

발간등록번호 : 11-1550108-000059-01



백제왕도 3대 핵심유적

종합학술연구 마스터플랜 수립

2019. 11.



(주)나루컨설팅

제 출 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님 귀하

본 보고서를 「백제왕도 3대 핵심유적 종합학술연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의 최종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19년 11월

나루컨설팅 대표 한인규

목 차 | contents

제 1 장 연구의 개요

-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목적 2
- 제2절 연구 수행범위 4
- 제3절 마스터플랜 수립 Framework 5

제 2 장 연구계획수립

- 제1절 슬로건 공모전 9
 - 1. 공모전의 의미 9
 - 2. 공모전 진행 및 결과 10
- 제2절 이해관계자 분석 15
 - 1. 전문가 워크숍 15
 - 2. 전문가 의견 설문조사·분석 24
 - 3. 교육청 관계자 조사·분석 68

제 3 장 환경분석

- 제1절 PEST분석 틀 75
- 제2절 정치적 환경(Political Environment) 분석 78
- 제3절 경제적 환경(Economical Environment) 분석 87
- 제4절 사회적 환경(Social Environment) 분석 93
- 제5절 기술적 환경(Technological Environment) 분석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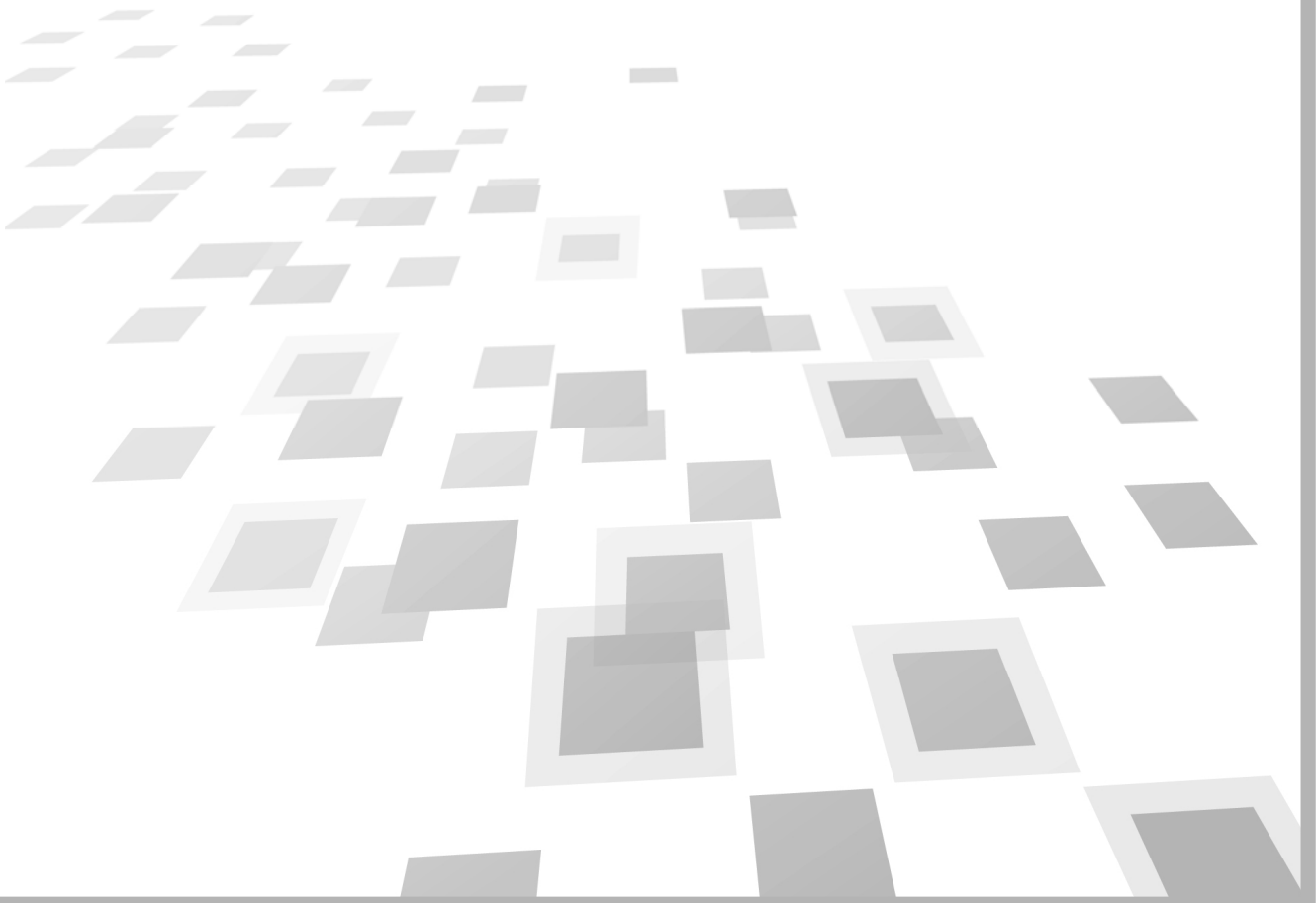
제 4 장

비전 및 전략수립

제1절 SWOT 분석	109
1. SWOT 요인 도출	109
2. SWOT Matrix	113
제2절 미션 및 비전 수립	118
1. 미션 수립	118
2. 비전 수립	119
3. 슬로건 및 핵심가치	121
제3절 전략 수립	123
1. 전략목표	123
2. 가치체계도	126
3. 세부과제	128
4. 단계별 추진 전략	144
제4절 조직체계 구축	146
1. 조사·연구 기능분류	146
2. 조사·연구 조직체계 구축	147
제5절 전략목표에 따른 계획구축	149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문화재청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충실한 발굴 및 고증연구의 필요성** 대두
 -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사적·건축·세계)에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의 승인 조건(2016.10.)으로 제시한 ‘국가발굴에 준하는 학술발굴’을 위해 발굴조사의 사업분류를 국가검토사업으로 변경하여 시행 중임(추진단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시행청의 발굴계획서 등을 검토·승인하고, 물량, 내역, 단가 등을 검토·감독함)
- 공주시의 <공주 송산리고분군 제단유구 발굴조사(충남역사문화원, '18)> 종료에 따른 **무령왕릉 주변지역 백제고분 분포현황 및 중장기 발굴조사 추진** 시급
 - 공주 송산리고분군 분포현황 및 발굴조사 추진 협의 완료(추진단·공주시)
- 부여군·LH의 <사비왕궁터 발굴 및 정비를 위한 토지비축사업('18~'20)> 관련 **부여 관북리 일대의 대단위 발굴조사 시행계획 수립** 필요
 - 부여 관북리·쌍북리 일대 발굴조사 추진 협의 완료(추진단·부여군)

〈참 고〉 부여군·LH 토지비축사업

1. 사 업 명 : 사비왕궁터 발굴 및 정비를 위한 토지비축사업
2. 대상지역 : 부여 관북리 및 쌍북리 일원 특별보존지구(345필지 161,980㎡)
3. 보상기간 : 2019.1.~ 2020.12.(2년)
4. 사 업 비 : 67,670백만원(철거비 6,900백만원, 보상비 60,770백만원)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의 <백제고도 익산지구 역사문화환경 복원 기초연구(용역연구개발과제, '18)> 관련 **왕궁리유적 및 주변지역의 역사경관 연구 고도화** 방안 마련 필요

〈참 고〉 백제고도 익산지구 역사문화환경 복원 기초연구

1. 사업목적 : 익산 고도의 역사문화경관 복원의 기초자료 구축(고고지리 및 공간정보 등)
2. 수행기관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사학과 · 지리교육학과)
3. 사업기간 : 2018.4.23.~ 12.11.(232일)
4. 사 업 비 : 80백만원

- 공주 왕실묘역(송산리), 부여 왕궁(관북리), 익산 이궁(왕궁리) 추정부지 등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중장기 학술연구 로드맵 부재
- 고도 중심 유적지 발굴사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백제문화권 종합학술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 시급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백제왕도 3대 핵심유적(공주 송산리고분군, 부여 관북리유적, 익산 왕궁리 유적)의 역사 진정성 확립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조사·연구·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주, 부여, 익산 지역에 있는 여러 종류의 문화재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개별 유적들의 내용과 자세한 성격 파악을 토대로 지역 전체를 조망하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계획 수립
- 공주, 부여, 익산 지역 전체의 경관과 보존 전략 하에 각 유적별로 성격과 조사현황·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발굴조사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백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임
- 중장기적 관점의 조사·연구·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계획과 조사연구계획, 홍보·교육·활용계획, 조직·재정운용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정립하고, 체계적인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의 계획을 수립

<그림 1> 연구목적

백제왕도 3대 핵심유적의 역사 진정성 확립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중장기적 관점의 종합학술연구 마스터플랜 수립”



제2절 연구 수행범위

1 시간적 범위

- 본 연구는 백제왕도 3대 핵심유적에 대한 역사 진정성 확립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임. 중장기 마스터플랜은 통상적으로 약 20년 단위를 기준으로 수립하므로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로 함

2 공간적 범위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백제왕도 3대 핵심유적으로 공주 송산리고분군, 부여 관북리 유적, 익산 왕궁리 유적으로 백제왕도 핵심유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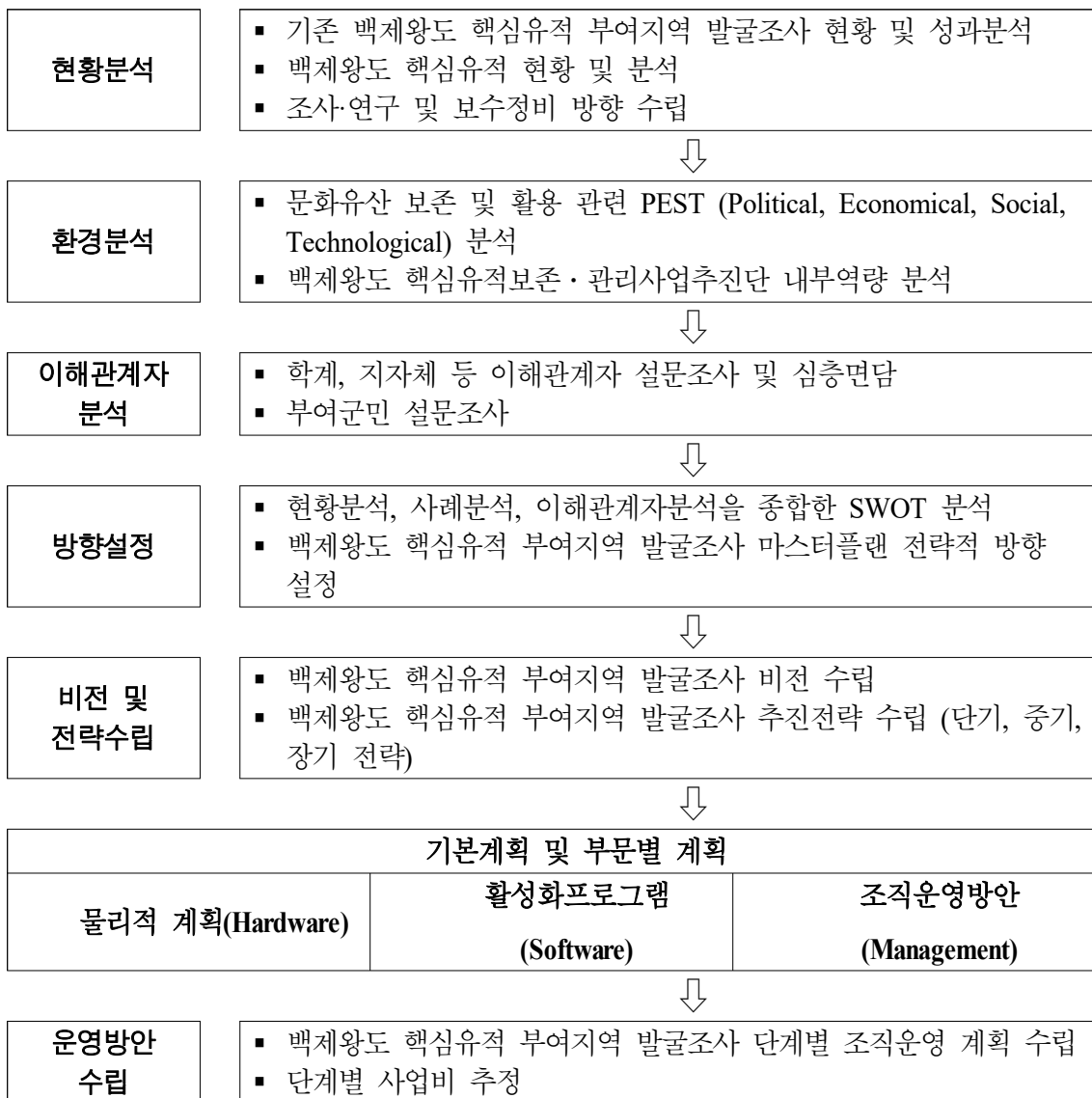
<그림 2> 공간적 범위



제3절 마스터플랜 수립 Frame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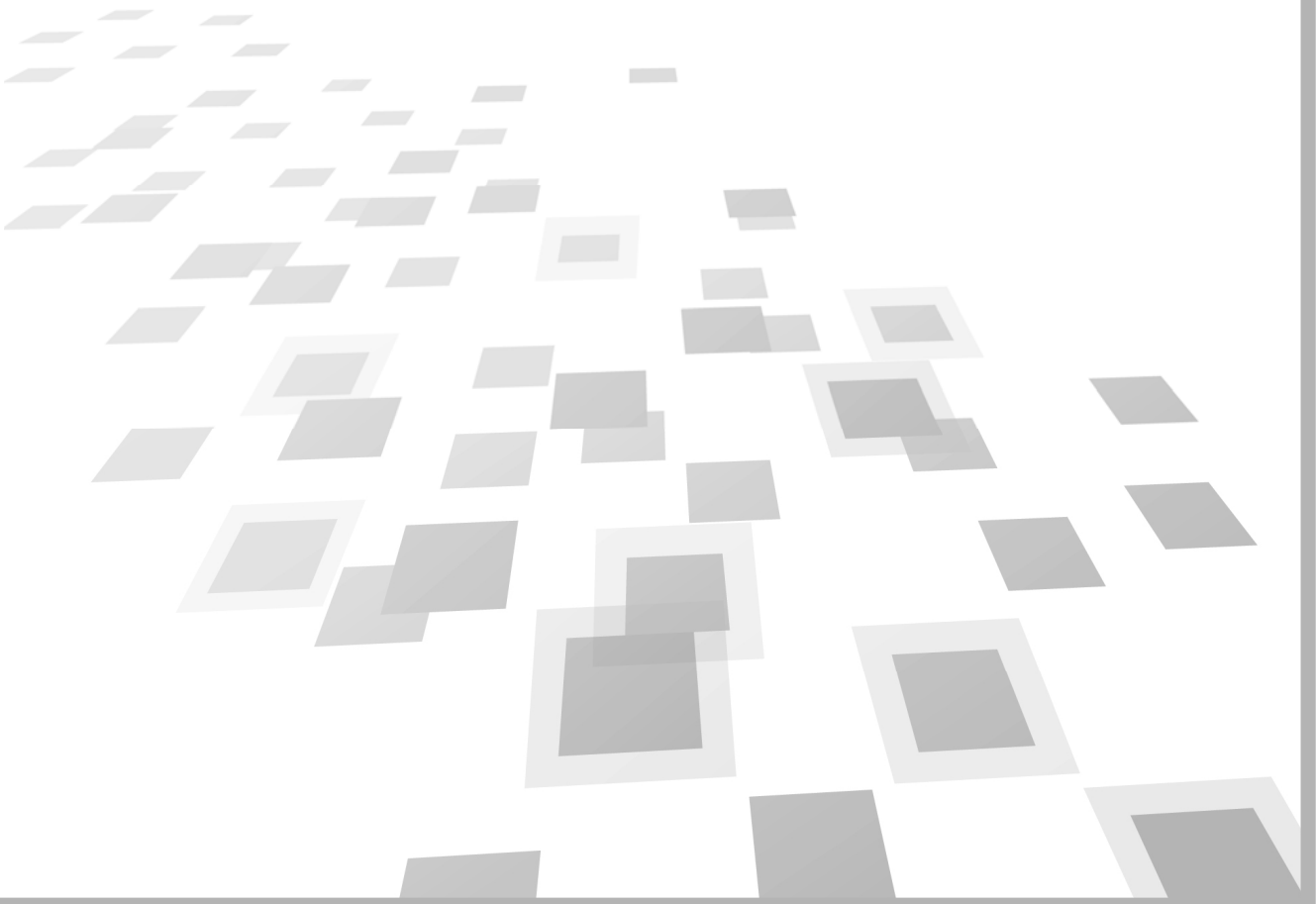
- 마스터플랜 수립의 주요 추진절차를 구체화하면 “①현황분석(성과분석) → ②환경분석(PEST 분석) → ③사례분석 → ④이해관계자 분석 → ⑤방향설정(SWOT 분석) → ⑥비전 및 전략 수립 → ⑦마스터플랜 기본계획 및 부문별 계획 수립 → ⑧운영방안 수립”의 절차로 요약됨

〈표 1〉 백제왕도 3대 핵심유적 종합학술연구 마스터플랜 수립 Frame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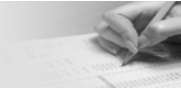


제 2 장

연구계획수립



제1절 슬로건 공모전



1 공모전의 의의

1. 국민참여의 의의

- J. S. Mill은 주권과 최고의 통제력이 궁극적으로 공동체 전체에 속하며 모든 국민은 궁극적 주권에 목소리를 내 뿐 아니라, 적어도 가끔은 지역적인 혹은 국가적인 공공 사무에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실제로 참여하는 정부를 이상적인 최고의 정부 형태로 보았음(윤성현, 2013). 즉 최선의 정부란 시민이 자신의 요구와 선호가 정책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때로는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임
- 참여는 사회의 일반 구성원이 정책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행동으로서 투표 행위, 시위, 집회, 청원, 캠페인, 기부, 조직 설립·가입·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참여민주주의는 정책결정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직접참여 기회를 최대한으로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한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에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도입 하는 민주주의 한 유형임(정영태, 1997)
- 국민참여는 국가 행정의 민주성 확보에 기여하고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킴. 대표적으로 국민참여는 국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대한 정부기관의 반응성을 높이는 기제가 되고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유지에 필요한 자질 및 태도를 함양함(Olsen, 1972). 참여를 통해 국민들이 자신들이 정치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정치 효능감을 갖게 됨(유재원, 2003). 정치 효능감은 정치체제가 국민들의 선호와 욕구를 반영한다고 믿는 정치 신뢰의 기반이 됨
- 사람들은 참여를 통해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아정체성과 사회에 대한 귀속감을 획득 할 수 있고,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개인이 기존에 자신의 능력보다 더 확대된 시야를 가짐으로서 참여자 자신이 자기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성장과 국민의 주인의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정치 과정에 자신의 의견을 내고자 함. 이러한 국민들의 후기 신공공관리 국정참여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디자인단, 공공예산 참여, 공론 조사, 생활공감 모니터단 등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창구를 다양하게 열고 있음

2. 슬로건

- 슬로건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하나의 수단임. 소집단이나 조직에 주의를 환기하고 신호를 보낸다는 의미에서 출발하였지만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오늘날, 슬로건의 의미와 내용이 전해지고자 하는 수용자 영역과 담고자하는 내용의 영역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
- 슬로건은 브랜드 네임을 기억하고 부각시켜 인지를 돕는 효과로 중요한 설득수단으로서 메시지를 담은 도구임(Keller, 2003). 또한 기업의 이미지를 창출해 연속성 있게 이미지를 이어가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함(우에조 노리에, 1991). 즉 슬로건은 브랜드 자산 가치를 높이고 경쟁 브랜드보다 위에 설 수 있도록 함
- 슬로건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고안된, 브랜드 개성을 설명하는 간결한 문구로 정의(김병전, 이희복, 2019)할 수 있음. 결국 슬로건은 고객의 구매 행위와 브랜드 충성도를 이끌어 내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임
- 슬로건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고 만들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동시에 백제왕도 3대 핵심유적 종합학술연구 마스터플랜의 방향성을 국민의 뜻에 맞추기 위해 진행함

2

공모전 진행 및 결과

- 슬로건 공모전은 공모전 포지 선정 → 슬로건 공모전 진행 → 접수결과 취합 → 접수결과 취합 → 1차 선정 → 전문가 심사 → 결과 선정으로 진행함

- 슬로건 공모전의 표지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자체 제작하였으며 공모전에 참가하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방향성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표지 내에 3대 유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시함. 3대 핵심유적으로 공주 송산리고분군(왕실 능묘), 부여 관북리유적(왕궁), 익산 왕궁리유적(별궁)을 제시하고 간략하게 공모전 개요에 대하여 제시함
- 슬로건 공모전 표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왕도’의 연구, 국민의 뜻으로 시작하겠습니다.”로 정하고 시작함. 세부 표지 내용은 아래의 그림과 같음

〈그림 3〉 슬로건 공모전 표지

- 슬로건 공모전은 웹을 통하여 공개하고 이메일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접수기간 : 2019. 4. 1. ~ 4. 30.(1개월)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공개 : 문화재청 홈페이지 및 SNS 등
 -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접수결과 총 239건이 접수됨. 이 중 20개의 안을 선정하고 전문가들이 최종 심사를 진행하도록 함

〈표 2〉 슬로건 공모전 접수 결과 상위 20개

번호	내용
1	백제왕도로 통하는 문(門), 찬란한 역사가 비추는 창(窓)
2	찬란한 백제의 숨결을 찾아서
3	백제왕도, 과거를 풀다, 미래를 품다.
4	백제왕도, 문화를 잇다, 미래가 있다.
5	백제왕도와 통(通)하다. 백제문화를 수(秀)놓다.
6	자랑스런 우리 역사 일번지, 백제왕도
7	백제를 품多, 문화를 잇多, 미래를 열多
8	세상에서 가장 깊은 길, 백제왕도
9	문화의 꽃 백제 그 심연에 달다
10	백제! 세상의 빛을 보다!
11	700년 역사를 간직한 금강 유역의 왕조, 호남과 호서를 잇다
12	같이 찾는 백제왕도, 가치 여는 백제문화
13	되새기는 백제왕도의 꿈, 되살리는 문화유적의 빛
14	백제 700년의 숨결, 1500년의 잠에서 깨어나라
15	백제 700년, 아름다움을 그린다. 왕도 300리, 역사를 거닐다
16	백제왕도 연구로! 살아있는 역사로, 꽃피우는 문화로!
17	백제왕도, 함께 국민의 뜻으로, 다시 세상의 빛으로
18	백제의 가치 제대로, 국민과 같이 대대로
19	소중한 유적을 국민 곁으로! 진실된 역사를 모아 하나로!
20	시공을 초월한 만남, 백제왕도를 걷다

□ 접수결과 총 239건이 접수됨. 이 중 20개의 안을 선정하고 전문가들이 최종 심사를 진행하도록 함. 전문가는 공주, 부여, 익산으로 구분하고 세 개 유적을 아우를 수 있는 슬로건을 선정하도록 하였음

〈표 3〉 슬로건 공모전 전문가 심사 명단

공 주(6)	부 여(6)	익 산(6)
김영관(충북대학교)	강종원(한밭대학교)	곽장근(군산대학교)
박보현(대전보건대학교)	박순발(충남대학교)	김명진(㈜라드피온)
우재병(충남대학교)	서현주(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주성(전주교육대학교)
이 훈(공주대학교)	성정용(충북대학교)	이은석(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이주현(국립문화재연구소)	윤형원(국립부여박물관)	정상기(국립익산박물관)
이찬희(공주대학교)	정용재(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홍보식(공주대학교)

〈그림 4〉 슬로건 공모전 전문가 심사 전경



- 선정결과 3건의 안이 선정됨. 그 중 본 용역의 슬로건으로 “백제를 품多, 문화를 잇多, 미래를 열多”로 채택함. 이외 “백제의 가치 제대로, 국민과 같이 대대로”, “백제왕도로 통하는 문(門), 찬란한 역사가 비추는 창(窓)이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슬로건으로 선정되었음

〈표 4〉 슬로건 공모전 선정 결과

구 분	슬 로 건
최 우 수	백제를 품多, 문화를 잇多, 미래를 열多
우 수	백제왕도로 통하는 문(門), 찬란한 역사가 비추는 창(窓)
우 수	백제의 가치 제대로, 국민과 같이 대대로

제2절 이해관계자 분석



1 전문가 워크숍

1. 개요

- 목적 : 백제왕도 핵심유적(공주, 부여, 익산) 발굴현황과 성과 보고 및 향후 학술조사 연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워크숍을 진행함
- 일시 : 2019. 5. 9. ~ 10. (1박 2일)
- 주요내용
 - 백제왕도 3대 핵심유적 발굴조사 현황 및 성과 보고
 - 향후 백제왕도 핵심유적 학술조사연구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표 5〉 전문가 참석 명단

공 주(6)	부 여(6)	익 산(6)
김영관(충북대학교)	강종원(한밭대학교)	곽장근(군산대학교)
박보현(대전보건대학교)	박순발(충남대학교)	김명진(쥬라드피온)
우재병(충남대학교)	서현주(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주성(전주교육대학교)
이 훈(공주대학교)	성정용(충북대학교)	이은석(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이주헌(국립문화재연구소)	윤형원(국립부여박물관)	정상기(국립익산박물관)
이찬희(공주대학교)	정용재(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홍보식(공주대학교)

2. 결과

- 전문가 워크숍 결과 3대 핵심유적 관련 단계별 종합학술연구 마스터플랜(안)을 수립하고, 각 유적별 마스터플랜 모델(안)을 도출함

1) 단계별 종합학술연구 마스터플랜(안)

① 기반 구축기(2020년 ~ 2024년) : 관광자원화를 위한 가치규명, 전문가 중심 참여로 백제 문화 확립, 자료 축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종합학술연구 거버넌스 체계 구축

(1) 종합학술연구 부문 : 발굴조사 방향 설정 및 계획 구체화

(2) 교육·홍보·활용 부문 :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사업 실시

(3) 조직 및 재정운용 부문 : 수요 인력 산정, 조직운영방안 도출, 예산 확보

② 발전기(2024년 ~ 2034년) : 정비 및 복원을 통한 관광자원화, 일반 국민 참여로 백제 문화 확산, 자료 축적, 종합학술연구 거버넌스 체계 확장

(1) 종합학술연구 부문 : 발굴조사 성과를 기반으로 한 유적 가시화

(2) 교육·홍보·활용 부문 : 시범 사업 등을 통해 프로그램 고도화 및 확산

(3) 조직 및 재정운용 부문 : 인력 채용, 조직수행체계 확립, 예산 집행

③ 도약기(2034년 ~ 2038년) : 백제 역사 문화 연구 고도화, 일반 국민 주도로 백제 문화 확산, 자료 활용 극대화, 종합학술연구 거버넌스 체계 안정

(1) 종합학술연구 부문 : 파생되는 심화연구 개발, 보존 및 정비 완성

(2) 교육·홍보·활용 부문 : 국민이 주도하는 문화유산 향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조직 및 재정운용 부문 : 고도화된 연구 수행에 따른 조직 발전 방안 도출, 심화 사업예산 확보

4 가치체계도

Mission	백제왕도 진정성 확립을 통한 국민 문화유산 향유 확대		
Vision	함께하는 백제왕도 복원, 국민을 즐겁게 하는 백제 문화		
Slogan	백제를 품고, 문화를 잇고, 미래를 열다		
Core-Value	품고 (종합학술연구)	잇고 (보존 및 정비)	열고 (교육 및 활용)
전략목표	종합학술연구 체계 확립 및 백제역사 문화 진정성 규명	자연·국민·역사가 공존하는 세계유산 백제왕도 보존 및 정비	국민의 백제문화 향유를 위한 교육 및 활용 프로그램 확대

2) 유적별 마스터플랜 모델(안)

1] 공주 송산리고분군 마스터플랜 모델

<표 6> 공주 송산리고분군 마스터플랜 워크숍 결과 요약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제강점기 총 29기의 고분이 보고되었으나 현재 정비된 고분은 무령왕릉 포함 7기에 불과함 무령왕릉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이후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송산리고분군을 조사한 적이 없음 복원된 고분의 봉분을 정비하지 않으면 고분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어 시급한 조사 필요
대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정비되어 있는 7기 고분 외에 약 20여기 고분의 위치 및 조사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고분군의 현황 파악이 우선(과학적 조사 필요) 발굴조사는 복원정비된 범위부터 시작하여 주변지역으로 확대조사 시행 송산리고분군만 아니라 웅진도읍기 고분 전반에 대한 조사 및 사상체계의 연구도 필요 권역별 지식 허브로써 연구소 역할 강조 및 다양한 기관과 협업하여 조사·연구 진행

□ 종합학술연구(Vision : 백제 왕실의 장례 및 능원 제도 복원)

○ [발굴조사] 웅진도읍기 불명확한 왕실 능원 모습 규명

- (사전조사) 본격적인 발굴조사 전 지형분석, 물리탐사, 고고학 조사의 교차검증으로 송산리 일대 고분분포 양상 확인 후 그 결과물을 조사계획 수립에 반영

- * 지형분석 - 항공라이다측량, 일제강점기 이후 항공사진·전경사진 분석 등
- * 물리탐사 - GPR탐사, 전기비저항탐사 등
- * 고고학 조사 - 문헌자료 및 기 발굴자료 조사, 현장(지표)조사 등

- (정비구간 내) 일제강점기 보고된 고분 중 현재 위치가 확인되나 조사 내용이 불명확한 고분, 조사된 이후 복원·정비가 잘못되어 봉분조정이 시급히 필요한 고분부터 조사대상 선정
- (정비구간 외) 송산리고분군 주변부터 외곽지역으로 조사대상 지역을
- 확대하면서 확인되는 고분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통해 우선 조사대상 선정

○ [심화연구] 백제 후기 능원의 구성요소 및 왕실 상장례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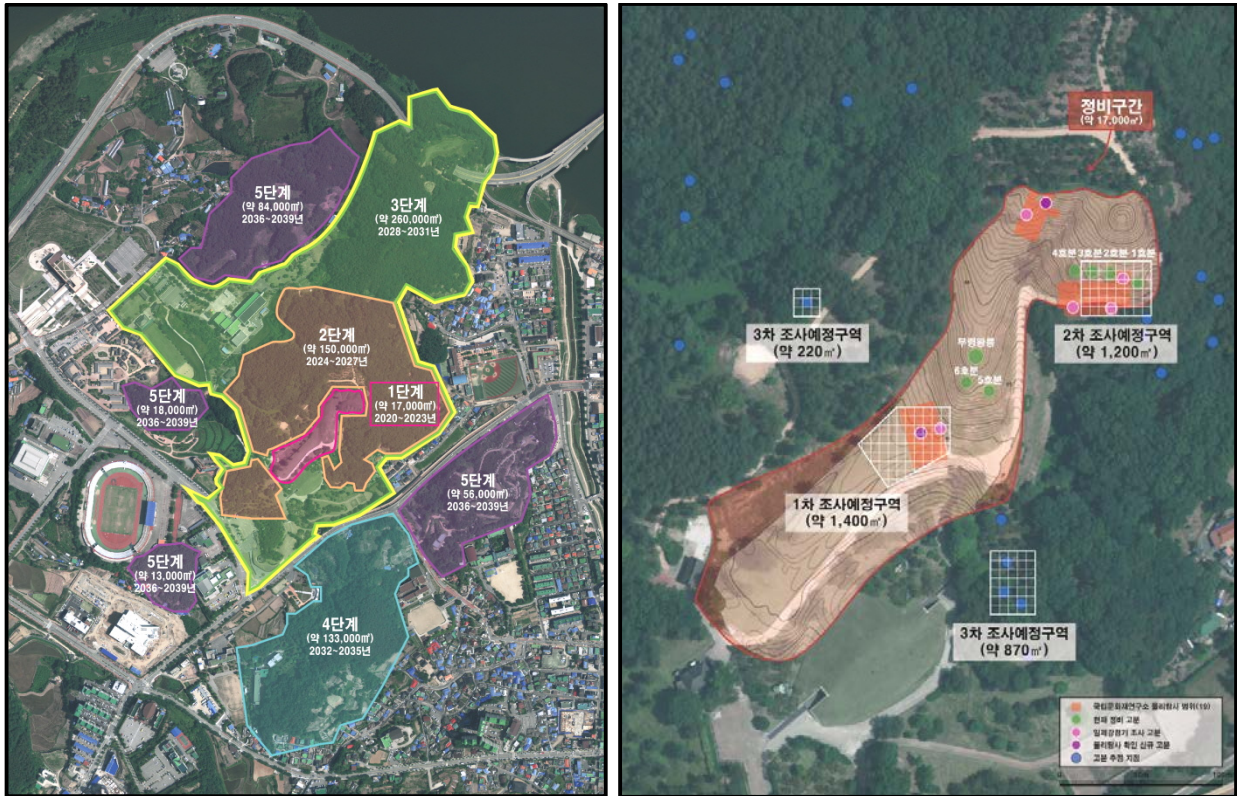
- 백제 후기 중앙의 묘제와 묘제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요소를 분석하여 백제 왕실의 장례(죽은사람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과 절차) 변천과정 규명
- 동아시아(중국 중심)의 능원 및 능묘제도를 연구하고, 백제 후기의 능원 모습과 비교하여, 백제 왕실무덤 조성의 특성 및 위계 연구
- 한성말~웅진기 지역별 할석제 석실분 자료를 분석하고, 웅진기 백제 중앙의 능원자료와 비교하여, 동시기 중앙과 지방의 묘제 차이점 규명

○ [융합연구] 조사성과 및 연구성과 고도화를 위한 학제간 융합연구

- 고분 피장자의 신체 특성 연구를 위하여 해부학, 법의학, 유전학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 구축
- 철학, 종교학, 문헌사학 등 학제간 융합연구로 백제 능묘 조성의 사상적 배경 (무령왕릉 연화문전-불교; 송산리 6호분 사신도-도교)과 제도사적 정착 과정을 규명
- 고분의 지하구조 문제점(누수 및 전돌 깨짐 현상 등)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고분 구조의 안전성 향상 및 보존·관리 정책 지원

□ 발굴조사 계획

○ 송산리 고분군의 5단계 발굴조사 계획(중·장기, 단기)



※ 고분조사는 긴급성·중요도 고려, 전문가 검토 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선별적으로 진행

- ◆ 1단계(2020~2023년, 17,000㎡) : 송산리 고분군 복원·정비구간 조사
- ◆ 2단계(2024~2027년, 150,000㎡) : 현재 복원·정비된 구간 주변으로 조사지역 확대
- ◆ 3단계(2028~2031년, 260,000㎡) : 정지산(정지산 유적) 일대 및 공주박물관 주변지역 조사
- ◆ 4단계(2032~2035년, 133,000㎡) : 교촌리(교촌리 고분군) 일대 조사
- ◆ 5단계(2036~2039년, 171,000㎡) : 웅진동 및 교동(웅진동 고분군 및 교동 유적) 일대 조사

② 부여 관북리유적 마스터플랜 모델

〈표 7〉 부여 관북리유적 마스터플랜 모델 워크숍 결과 요약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발굴조사가 1차적인 조사(단순한 발굴조사)만 진행 • 1982년부터 사비왕궁을 찾기 위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나 현재도 사비왕궁 모습을 규명하지 못함 • 사비왕궁 복원을 위한 관북리 일대 345필지 161,980㎡ 대상의 토지비축사업 진행으로 지역민의 생활·경제와 관련된 부분 위협
대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과 상생이 가능한 발굴조사 진행(현장 공개 및 지역 경제 관심) • 관북리유적 뿐만 아니라 사비도성 전반에 대한 조사 및 연구도 필요함 • 왕궁지구 조사로 접근하고, 다양한 융·복합연구로 백제 왕궁의 모습을 규명 • 유럽과 같은 살아있는 유적의 종합적 플랜으로 역사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제고

□ 종합학술연구(Vision : 백제 사비왕궁의 역사적 진정성 회복)

○ [발굴조사] 사비도읍기 불명확한 왕궁의 모습 및 축조 프로세스 규명

- 사비도성 내 유구 배치 및 도로망 분석을 통하여 관북리 일대 매장문화재의 분포 양상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조사계획을 수립
- 사비왕궁과 관련된 주요시설이 존재하는 현재 관북리유적 주변부터 부소산성 남쪽·동쪽 방향으로 조사지역 확대
 -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9.1.~2020.12.까지 사비왕궁터 발굴 및 정비를 위한 토지비축사업 추진 중
-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고고학 자료의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 [심화연구] 백제 사비왕궁을 중심으로 한 도성 운영체계 연구

- 사비도성 주요건물 건설을 위해 조성한, 성토대지의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사비도성의 착공시점 및 개발방식 연구
- 사비도성 내 분포하고 있는 유구를 재검토하여 시기별로 단계설정 하고, 각 단계별 분포양상 분석을 통해, 사비도성의 공간 활용 모습 규명
- 동아시아(중국 중심)지역 도성 및 지역 거점성의 규범화된 속성과 백제 사비도성의 비교연구를 통해, 사비도성의 위계 및 특성 도출

○ [융합연구] 학제간 협업을 통한 연구성과의 고도화

-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씨앗류의 종자분석과 건물 또는 부속시설에 사용된 목재의 수종분석을 통해 사비지역 생태환경 및 경관복원 연구
- 백제시대 지반강화(성토) 방법이나 수리체계 조성을 통한 불리한 지형조건 및 주위환경 극복 방안 연구
- 백제시대 건물의 상부구조 규명 및 복원 연구를 통하여 사비도성 재현의 기초 자료를 제공

□ 발굴조사 계획

○ 부여 관북리유적의 5단계 발굴조사 계획



- ◆ 1단계(2020~2023년, 32,000㎡) : 현재 정비되어 있는 관북리유적의 남쪽 연접 지역 조사
- ◆ 2단계(2024~2027년, 43,000㎡) : 부소산성 남쪽 중앙부의 부여여고 일대 조사

- ◆ 3단계(2028~2031년, 55,000m²) : 쌍북리(쌍북리유적) 일대 조사
- ◆ 4단계(2032~2035년, 36,000m²) : 부소산성 동남쪽지역 조사
- ◆ 5단계(2036~2039년, 35,000m²) : 부소산성 동쪽지역 조사

③ 익산 왕궁리유적 마스터플랜 모델

〈표 8〉 익산 왕궁리유적 마스터플랜 워크숍 결과 요약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유구들의 시기, 구조, 성격 등 기존 조사·연구성과의 내실화가 미흡함 • 공장 외부에 대한 조사가 거의 전무한 상황임 • 왕궁리유적 주변 주요유적들의 관계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대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구의 성격 규명과 단계별 변화상을 밝힐 수 있는 심화연구 진행이 필요함 • 향후 공장 외부로 확장조사를 실시하여, 공간활용 및 주요유적과의 관계 규명이 필요함 • 공장 외부 조사는 토지매입 구간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되, 북쪽과 동쪽 구간을 먼저 실시하고 향후 토지매입과 정책상황에 따라 남쪽과 서쪽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출토유물(토도류, 금속류 등)의 다양한 학제간 종합 분석·연구가 필요함 • 다양한 대국민서비스를 실시하여, 왕궁리유적의 역사적 가치와 진정성을 제고하여야 함

□ 종합학술연구(Vision : 백제역사유적지구 익산의 역사문화적 가치 창출)

○ [발굴조사] 왕궁리유적의 공간 활용방식 규명

- 공장 외부의 북쪽(평탄지 일대)과 동쪽(왕궁리유적과 체석사지 사이 구간)의 발굴조사를 추진하여, 도로망을 비롯한 관련 시설물 유존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당시 공간 활용방식 규명
- 공장 내·외부 미조사구간의 물리탐사, 지형분석 등 다각적 조사를 실시하여, 발굴조사 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우선 조사지역 선정

○ [심화연구] 왕궁리유적의 운영체계 및 구조 규명

- 동아시아 궁성의 구조 및 변천에 대한 조사·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왕궁리유적과 비교·검토를 실시하여, 왕궁리유적의 위상과 발전단계 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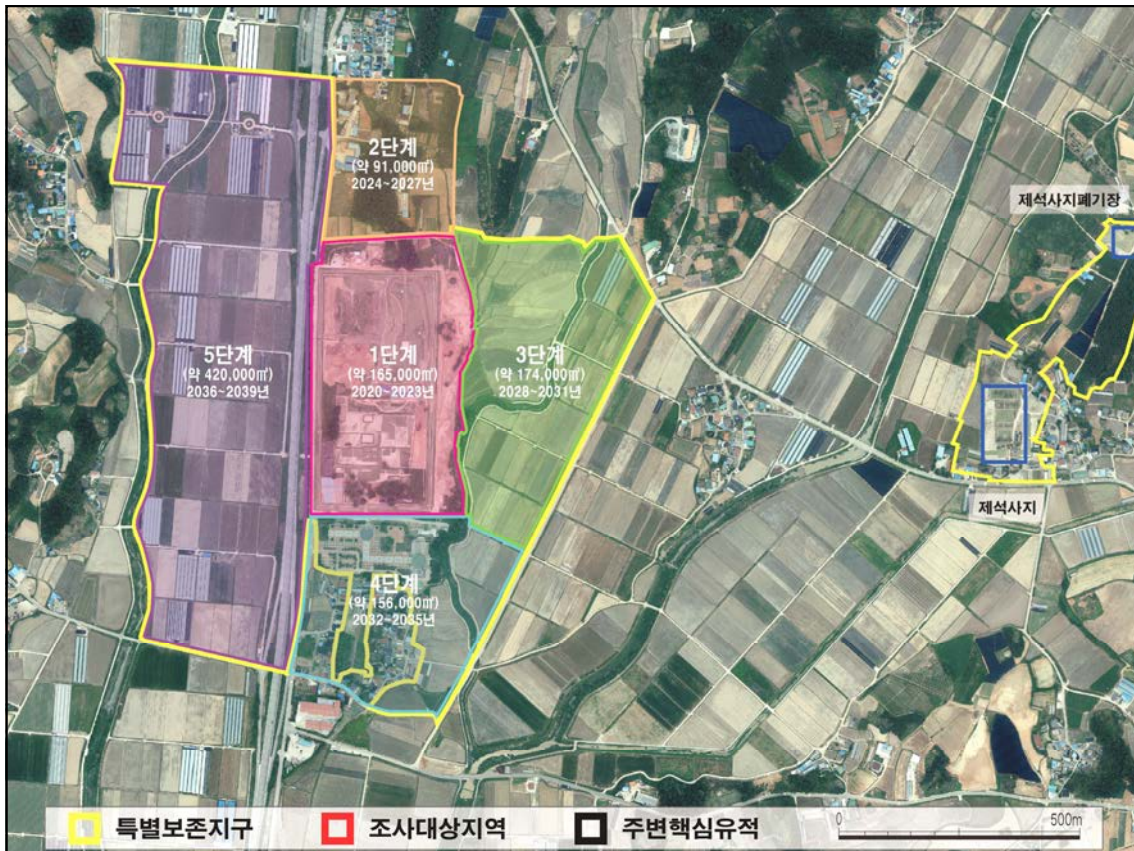
- 왕궁리유적 내 건물지의 층서관계를 재구성하고, 수집된 절대연대측정 자료를 재검토하여, 건물지 간의 선후관계와 단계별 점유양상 검증
- 왕궁리유적 내 금속 및 유리 제작 공방의 출토유물을 분석하여, 백제 사비기 공방의 제작기술 특성 복원. 향후 사비도성과 비교·분석 실시

○ [융합연구] 연구성과 환류를 위한 최신 기술체계 도입

- 백제 사비기 고도지역(부여·공주·익산) 조사자료의 수집·공유·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표준화된 시스템 개발 연구
- 왕궁리유적 조사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국민서비스 실시
- 왕궁리유적의 연구성과의 환류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사회교육활동(나도 고고학자, 찾아가는 연구소 등) 추진방안 연구

□ 발굴조사 계획

○ 왕궁리유적의 5단계 발굴조사 계획(안)



- ◆ 1단계(2020~2023년, 165,000㎡) : 유적 내 미조사구간 조사
- ◆ 2단계(2024~2027년, 91,000㎡) : 유적 외부 북쪽 일대 조사
(지형 개변이 적은 구간으로 유구 유존 가능성 높음)
- ◆ 3단계(2028~2031년, 174,000㎡) : 유적 외부 동쪽 일대 조사
(제석사지 관련 공간 활용방식 조사)
- ◆ 4단계(2032~2035년, 156,000㎡) : 유적 외부 남쪽 일대 조사
(궁성 개발 및 활용 관련 공간 활용방식 조사)
- ◆ 5단계(2036~2039년, 420,000㎡) : 유적 외부 서쪽 일대 조사
(궁성 개발 및 활용 관련 공간 활용방식 조사)

2

전문가 의견 설문조사분석

- 설문조사 목적 : 백제왕도 3대 핵심유적 발굴조사·정비·활용 관련 전문가 시각에서 현황 진단 및 수요 파악을 통해 종합학술연구 마스터플랜 수립에 반영하기 위함
- 조사 개요
 - 대상자 : 백제관련 전문가 중 국립부여연구소의 추천을 받아 이중 승낙한 위원을 21명을 대상으로 함
 - 조사방법 : 웹조사
 - 조사수행기관 : (주)나루컨설팅
 - 조사기간 : 2019년 9월 10일 ~ 25일
- 질문지 구성
 - 질문지의 내용은 크게 유적별(공주, 부여, 익산) Vision 및 종합학술연구 체계(품고)의 적절성, 보존 정비 계획(잇고) 관련 사항, 활용 계획(열고) 관련 사항 등 크게 3개 분야로 구성하며, 분야별 질문을 구조화하고 개별적인 부문에 대해 세부적 문항을 구성하였음. 각 질문은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구성하고 개방형에 대해서는 그 이유와 의견 등을 기입함으로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표 9> 질문지 구성

조사영역	세부항목	
유적별 Vision 및 종합학술 연구 체계(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 송산리 고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sion 적절성과 그 이유 - 학술연구의 진행 형태 - 발굴조사 연구 적절성과 그 이유 - 융합 연구 적절성과 그 이유 - 단계별 발굴조사 계획의 적절성과 그 이유 ○ 부여 관북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sion 적절성과 그 이유 - 학술연구의 진행 형태 - 발굴조사 연구 적절성과 그 이유 - 융합 연구 적절성과 그 이유 - 단계별 발굴조사 계획의 적절성과 그 이유 ○ 익산 왕궁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sion 적절성과 그 이유 - 학술연구의 진행 형태 - 발굴조사 연구 적절성과 그 이유 - 융합 연구 적절성과 그 이유 - 단계별 발굴조사 계획의 적절성과 그 이유 	폐쇄형/ 개방형
보존 정비 계획(잇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 및 복원의 방향성 ○ 정비 및 복원의 형태 ○ 그 이유 	폐쇄형/ 개방형
활용계획(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적 전시 디자이너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성 정도와 그 이유 - 유적별 필요성 정도 ○ 주민생활 기록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성 정도와 그 이유 - 유적별 필요성 정도 ○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 여부와 그 이유 ○ 경제활성화 여부와 그 이유 	폐쇄형/ 개방형
조직 구성·예산규모 및 기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 능력제고(조직 및 예산 확충 등) ○ 기타의견 	개방형

□ 전문가 명단

- 전문가는 크게 학계와 조사기관으로 구분하였고 학계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고고학, 보존, 건축, 정비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음

〈표 10〉 전문가 설문 응답 명단

연번	기 관	성 명	직 위
1	충북대학교	이종민	문화재위원
2	목포대학교	김건수	문화재위원
3	명지대학교	김왕직	문화재위원
4	서울신문STV	서동철	문화재위원
5	안산대학교	이순희	문화재위원
6	인제대학교	이영식	문화재위원
7	고려대학교	이희정	문화재위원
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진상철	문화재위원
9	고려대학교	박현숙	문화재위원
10	동아대학교	박광춘	문화재위원
11	서울대학교	이준정	문화재위원
12	전북대학교	남해경	문화재위원
13	중앙승가대학교	최태선	문화재위원
14	계명대학교	노종국	명예교수
15	서울대학교	권오영	백제학회장 문화재위원
16	영남대학교	이청규	한국고고학회장 문화재위원
17	국민대학교	김재홍	한국상고사학회장 문화재전문위원
1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경택	호서고고학회장
19	공주대학교	정재윤	
20	충남대학교	장인성	은퇴
21	계명대학교	김권구	문화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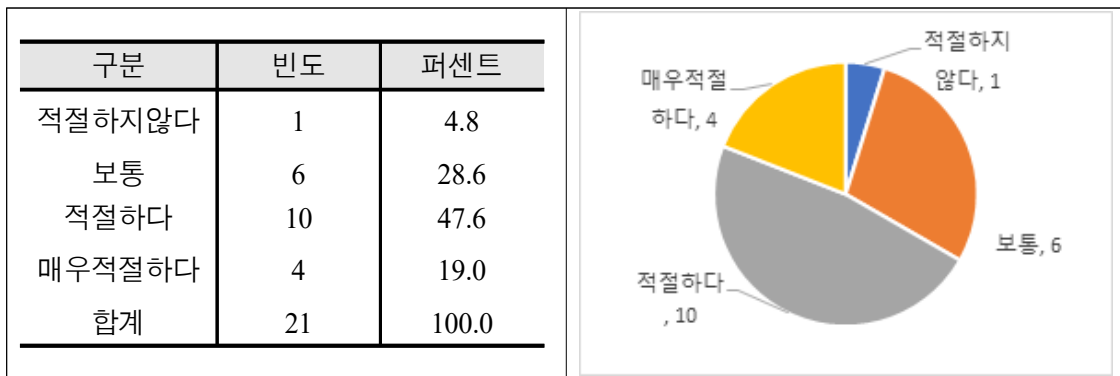
1. 유적별 Vision 및 종합학술 연구 체계(품고)

1) 공주 송산리 고분군

□ Vision 적절성과 그 이유

-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종합학술연구 Vision인 “백제 왕실의 장례 및 능원 제도 복원”에 관한 적절성 정도를 전문가에게 질의함. 응답결과 매우 적절하다가 19%, 적절하다가 47.6%로 전문가들은 현재 Vision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사료됨

〈표 11〉 공주 송산리 고분군 Vision의 적절성



- 적절하지 않다고 제시된 의견으로 백제고분의 존재를 확인하는 계획을 먼저 세운 뒤 발굴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됨. 조금 더 다양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여야 함. 정비 계획을 고려해야 함 등의 의견이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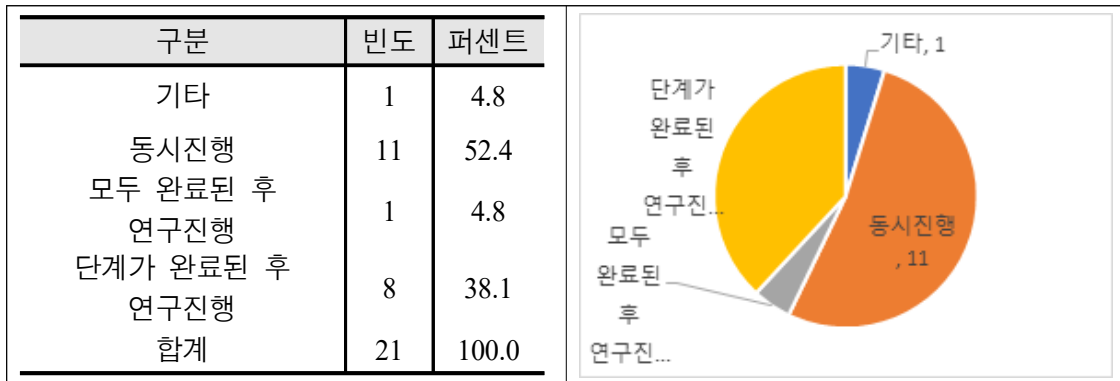
〈표 12〉 공주 송산리 고분군 마스터플랜 비전의 부정적 의견

번호	내용
1	• 백제고분의 존재를 확인하는 계획을 먼저 세운 뒤 발굴조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2	• 마스터플랜은 적절하게 짜여져 있으나 고분 자체에 대한 조사와 연구로 이루어져 있어 고분과 자연환경, 경관 등을 고려하여 송산리 고분군 지구 내에서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3	• 최소범위에 대한 발굴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는 방향으로 발굴범위설정요망. 송산동고분군 전역을 모두 발굴하는 것은 문제 있음. 유적정비에 필요한 최소 구역에 대한 발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4	• 학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추가 발굴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와 같은 잔디밭과 고분군, 전시관을 조성하는 정비계획은 고려되어야 한다.
5	• 심화연구와 융합연구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음. 종합 마스터플랜(2020~2038년)과 발굴조사계획 5단계(2020-2039년)가 맞지 않음

□ 종합학술연구의 진행 형태

- 본 유적과 관련하여 발굴조사, 심화연구, 융합연구 체계로 구성하였음. 이에 따라 종합학술연구의 진행 형태에 대하여 질의함. 발굴조사, 심화 연구 및 융합 연구 동시 진행이 52.4%로 선택되었고 발굴조사가 단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심화연구 및 융합 연구 진행이 38.1%로 조사됨. 전문가들은 동시 진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의견으로 동시 진행하면 전모가 드러나기 전 심화 또는 융합연구의 성과를 위한 조기 해석의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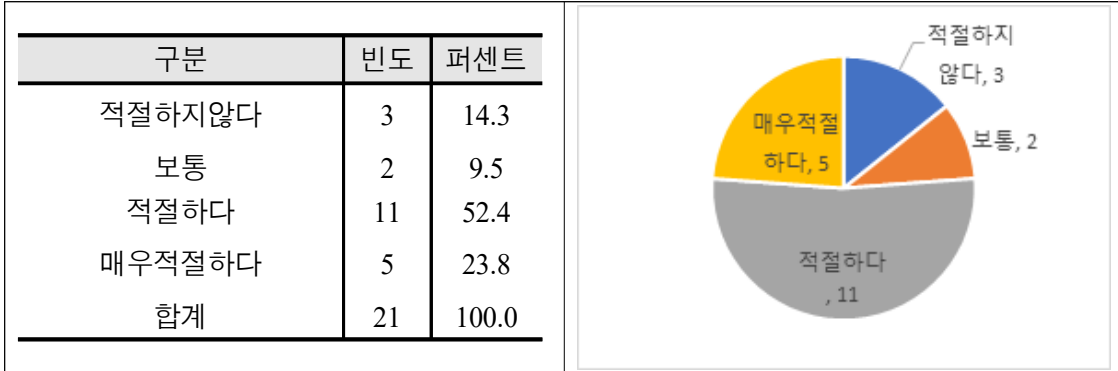
〈표 13〉 공주 송산리 고분군 학술연구 진행 형태



□ 발굴조사 연구 적절성과 그 이유

- 응진도읍기 불명확한 왕실 능원 모습 규명을 목표로 사전조사, 정비구간 내·외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전문가들에게 그 의견을 조사함. 응답결과 매우 적절하다가 23.8%, 적절하다가 52.4%로 긍정적인 응답이 76.2%로 높은 긍정으로 조사됨

〈표 14〉 공주 송산리 발굴조사 연구 적절성



-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전면 발굴조사는 최소화해야 함. 과학적 조사에 의한 송산리 고분군의 고분분포에 초점을 맞춰야 함 등의 의견이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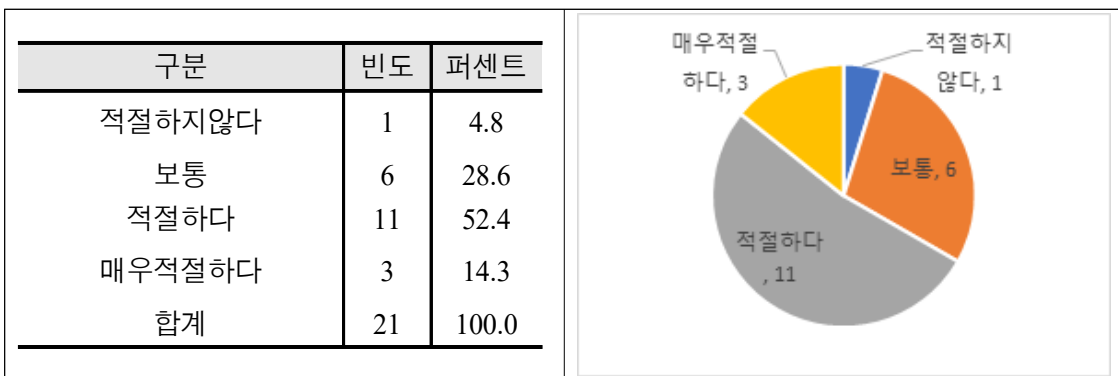
〈표 15〉 공주 송산리 발굴조사 연구 계획의 부정적 의견

번호	내용
1	• 5단계 중 1단계 완료부터 심화 및 융합연구 진행 가능
2	• 송산리고분군의 개별 고분의 발굴조사와 더불어 공산성과 주변 유적군을 이어주는 부분을 고려한 발굴조사 계획이 이루어지면 효과적임
3	• 기본 계획은 적절하나, 각 구간 별로 어떤 고분을 어느 정도 발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매우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고분을 발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계획상의 기간으로는 불가능한 작업이다.
4	• 유적정비에 필요한 최소구역에 대한 발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5	• 발굴조사 계획이 너무 두리뭉실하게 설명되어 있음. 즉 일제 강점기 때의 유구확인인지 아니면 확인 후 전면발굴조사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음. 전면 발굴조사는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6	• 백제 왕릉의 유형을 파악하는 정도에서 고고발굴은 그치고, 과학적 조사에 의한 송산리고분군의 고분분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임(공급한 고분을 모두 조사한다는 것은 고려해야 함)

□ 심화연구 적절성과 그 이유

- 공주 송산리고분군의 심화연구는 백제 후기 능원의 구성요소 및 왕실 상장례 연구로 설정하고 백제 후기 중앙의 묘제와 묘제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요소 분석, 백제 왕실의 장례 변천과정 규명을 제시 등을 제시하였음
- 응답결과 매우적절하다와 적절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66.7%로 조사되었음

〈표 16〉 공주 송산리 심화연구 적절성



- 심화연구 계획과 관련하여 사비기로의 이행과정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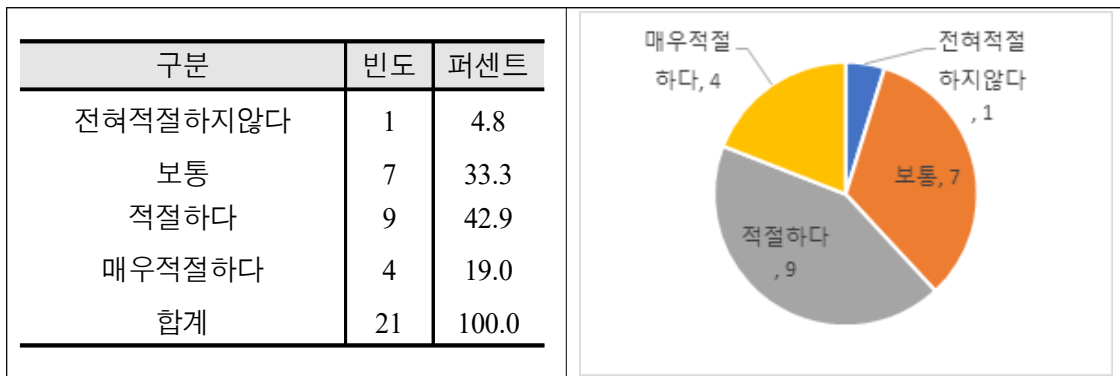
〈표 17〉 공주 송산리 심화연구 계획의 부정적 의견

번호	내용
1	•백제 능원과 능묘는 주로 중국 남조와 관련지우고 있으나 북조나 고구려와의 비교도 내용 지면을 증가하였으면 효과적임
2	•석실분 자료 연구를 한성말-웅진기에 국한하지 말고 적어도 사비기로의 이행 과정에도 중점을 두어야 함
3	•연구 주제는 적절하나, 정비를 위한 특정 부분 발굴만으로 이러한 심화연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기존의 연구 성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굳이 이 사업에 포함시킬 이유가 있을지?
4	•3을 선택했으나 아쉬운 점을 적는다면 백제 한성기와 웅진기의 중앙과 지방이라는 개념을 어느 지역까지 또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 차이를 끌어내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함.
5	•왕실제례를 무형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지. 고고학적으로 왕릉으로 이운되는 도로, 공간, 제의 공간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지의 방향성과, 고고학적 연구라면 도로, 제의 공간 등은 고분에서 생활시설로의 영역 확대가 되므로 접근방법이 달라져야 함

□ 융합연구 적절성과 그 이유

- 융합연구는 조사성과 및 연구성과 고도화를 위한 학제간 융합연구를 목표로 제시하고 고분 피장의 신체 특성 연구를 위한 해부학, 법의학, 유전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철학, 종교학, 문헌사학 등 학제간 융합연구 등의 제시하였음
- 응답결과 매우 적절하다와 적절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61.9%로 조사되었음. 이는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융합연구 주제를 적절하게 잡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사료됨

〈표 18〉 공주 송산리 융합연구 적절성



-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공주의 고지형에 대한 조사연구를 추가하여야 됨. 고분과 경관의 시대적 변천 과정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이를 정비 계획에 반영하여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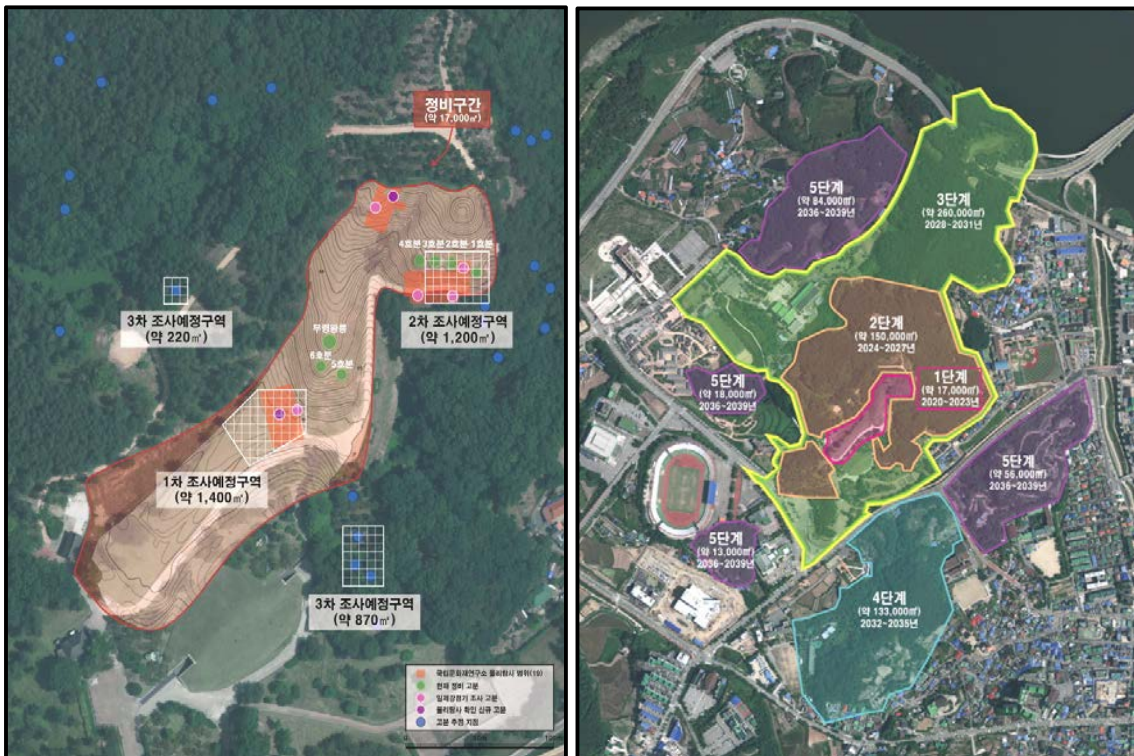
〈표 19〉 공주 송산리 융합연구 계획의 부정적 의견

번호	내용
1	• 백제 도성 속에 존재한 왕릉이라는 시각에서 고대 도시화와 고분에 이해가 필요함
2	• 융합연구에서 웅진기의 도읍 성곽과 사찰, 입지와 경관 등과 관련된 주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공주의 고지형에 대한 조사연구가 추가 될 필요가 있음.
3	• 융합 연구는 중요하나 너무 피상적으로 주제 설정이 되었다. 만약 피장자 인골이 출토된다면 국내의 인골고고학자들과의 연구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해부학, 법의학, 유전학과 같이 고고학 자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연구자들과 무리한 융합 연구를 하기보다는 고고학적 기반에서 인골을 연구한 인력들과의 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능묘 조성의 사상적 연구도 철학, 종교학에서 제시해 줄 수 있는 바는 많지 않다. 고고학계, 역사학계에 매장의례, 매장과

번호	내용
	관련된 종교, 사상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는데, 융합 연구라는 이름으로 실제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외부 전문가들과 공동연구를 하겠다는 계획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4	• 고분과 경관의 시대적 변천과정 등을 추가로 조사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 공주 송산리고분군 피장자에 대한 해부학, 법의학 등의 융합연구는 발굴 결과물이 축적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보임.
6	• 현재의 융합연구 이념으로는 결과가 서로 유기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음. • 하나의 이념(품다, 잇다, 열다)에 맞는 융합연구 설정을 해야지 이념 따로, 연구 따르는 유기적이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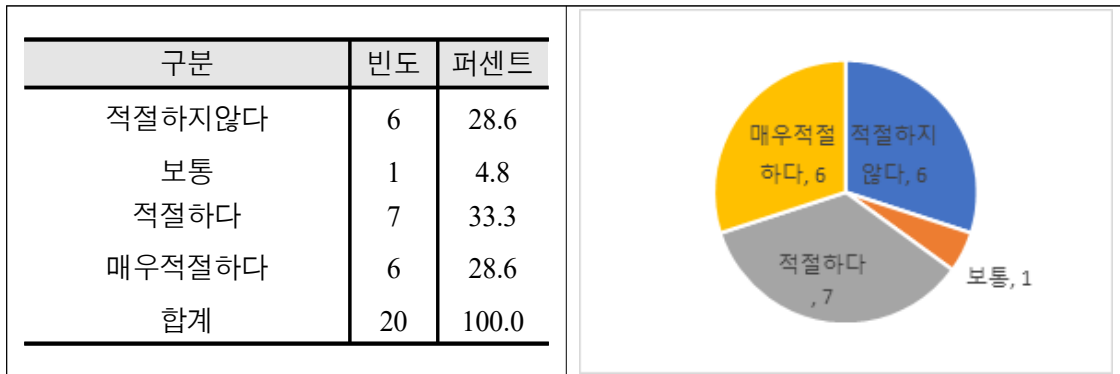
□ 단계별 발굴조사 계획의 적절성과 그 이유

- 송산리 고분군의 발굴조사 계획은 총 5단계로 중·장기, 단기로 구분하여 전문가들에게 제시하고 그 적절성에 대하여 질의함



- 송산리 고분군의 단계별 발굴조사 계획의 적절성에 대하여 매우 적절하다와 적절하다는 의견이 61.9%로 전문가들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20〉 단계별 발굴조사 계획의 적절성



- 단계별 발굴조사 계획과 관련하여 남아있는 모든 고분을 전부 발굴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과 조금 더 목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표 21〉 공주 송산리 단계별 발굴조사 계획의 부정적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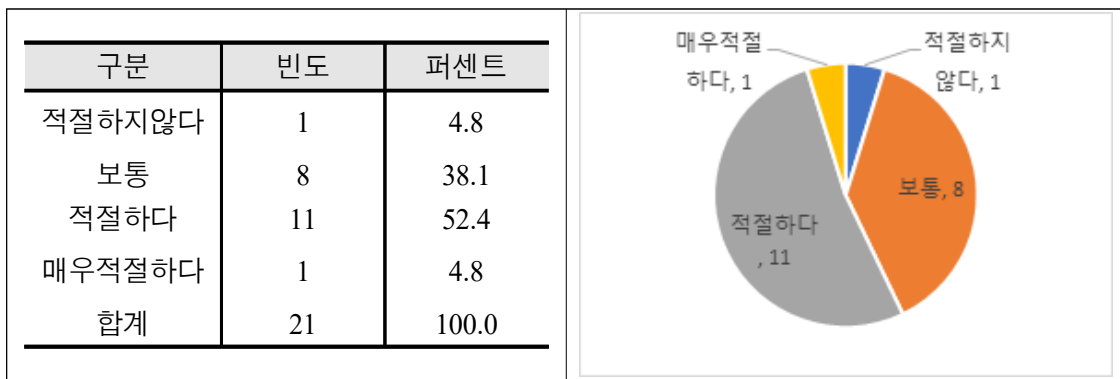
번호	내용
1	• 송산리고분군의 원근관계로 단계의 설정 보다는 개발위험이 다소에 의해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2	• 남아있는 모든 고분을 지금 이 시대에 전부 발굴할 이유는 없다. 후세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
3	• 기간 설정이 너무 짧다. 각 구간마다 필요한 시간이 현재의 2-3배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4	• 어떠한 목적으로 이렇게 계획하였는지 알 수 없음.
5	• 종합 마스터플랜(2020~2038년)과 발굴조사계획 5단계(2020-2039년)가 정합성이 없음.
6	• 첨부된 자료의 5단계 발굴조사 계획만으로 그 적절성을 이해하는 것은 불충분 함
7	• 단계별 영역 중, 어느 것을 샘플로 조사할 것인지(학술성) 선정할 필요와 정비단계에서 확인 되는 유적은 모두 발굴한다는 개념은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부여 관북리 유적

□ Vision 적절성과 그 이유

- 부여 관북리유적의 종합학술연구 Vision인 “백제 사비왕궁의 역사적 진정성회복”에 관한 적절성 정도를 전문가에게 질의함. 응답결과 매우 적절하다와 적절하다는 의견이 57.2%로 전문가들은 현재 Vision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22> 부여 관북리 Vision의 적절성



- 관북리 유적 비전과 관련하여 여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좋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사비 도성 전반으로 확대된 발굴조사, 연구, 활용, 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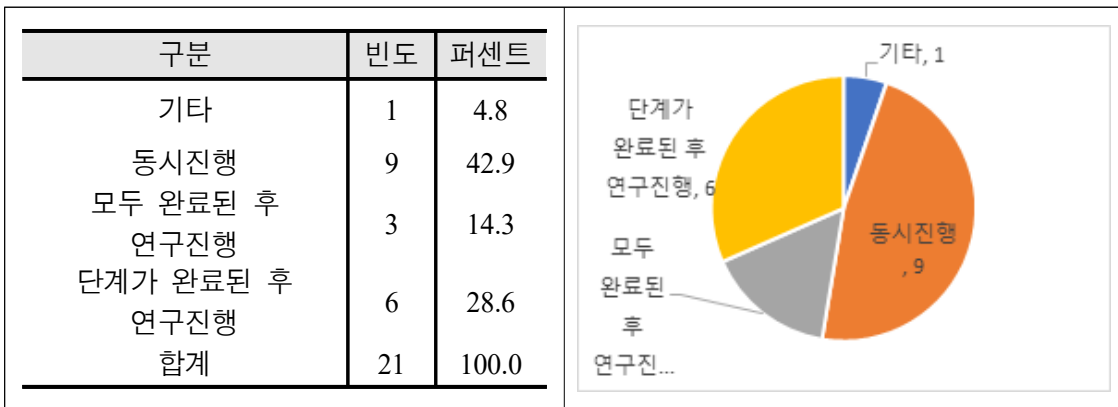
<표 23> 부여 관북리 유적 마스터플랜 비전의 기타 의견

번호	내용
1	• 현재 관북리 일대는 상대적으로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왕궁이나 도로, 도성 유적에 대한 심화 연구를 진행하고 사비 도성 전반으로 확대된 발굴조사, 연구, 활용, 복원이 필요함
2	• 발굴조사 구역을 5단계로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1,2단계 조사후 발굴결과를 보고 심화연구 마스터플랜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등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3	• Master Plan 작성 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합니다.(특히 정비계획)
4	• 모든 대표유적의 접근법이 발굴조사후 심화 융합단계로, 발굴에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다. 전체 유적의 몇%를 발굴해서 데이터화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발굴조사의 이념을 설정할 필요성)

□ 학술연구의 진행 형태

- 본 유적과 관련하여 종합학술연구는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전문가들에 질의하였고 응답결과 동시진행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42.9%로 가장 의견이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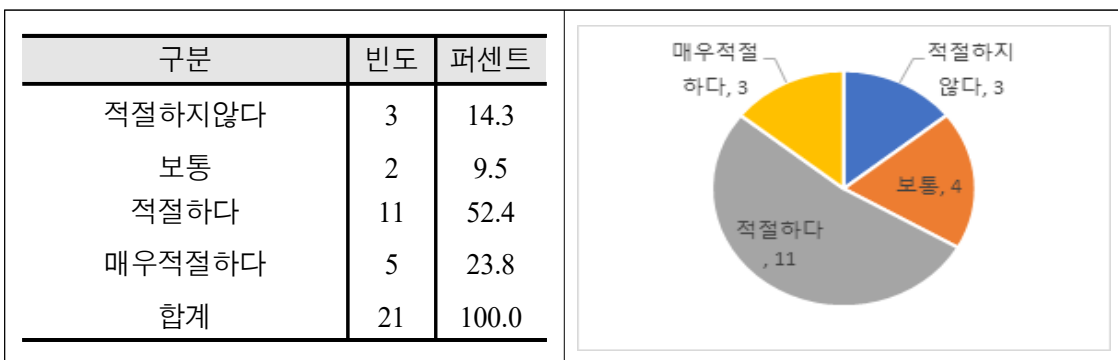
<표 24> 부여 관북리 학술연구 진행 형태



□ 발굴조사 연구 적절성과 그 이유

- 관북리 유적 발굴조사 연구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76.2%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25> 부여 관북리 발굴조사 연구 적절성



- 기타 의견으로 유적 정비에 필요한 최소 구역에 대한 발굴을 진행하여야 된다는 의견과 성급하게 유적 전체를 발굴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된다는 것이 도출됨. 세부적인 의견은 아래의 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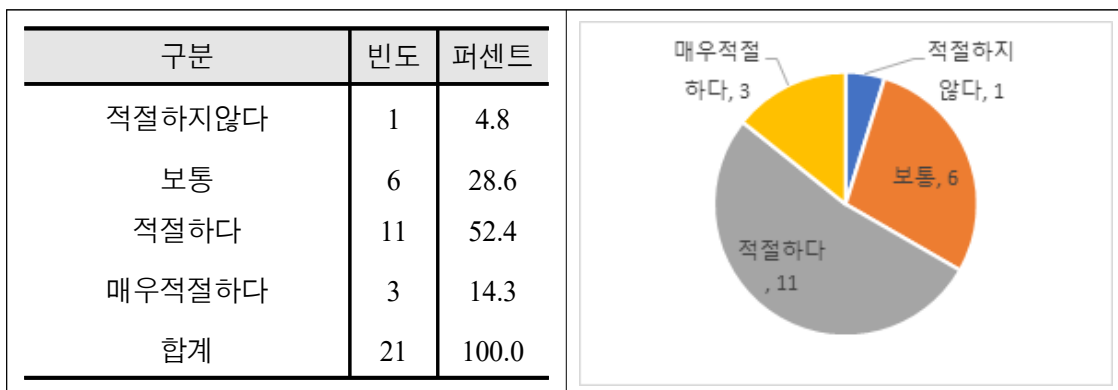
〈표 26〉 부여 관북리 유적 발굴조사 연구 적절성에 대한 기타 의견

번호	내용
1	• 사비 도성의 왕궁에 대한 심화연구를 통해 사비 도성의 구조를 이해하고 조사를 진행하면 효과적임
2	• 유적정비에 필요한 최소구역에 대한 발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3	• 어느 정도까지 발굴조사를 진행할지 애매모호함. 전면 발굴조사를 한다면 후손에게 물려줄 것은 무엇인지 보이지 않음
4	• 발굴조사에서 건물군의 규모와 분포는 알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생활유적 건물군의 성격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의 발굴은 성과적 측면에서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지 고민하여야 함 • 단순 유물적 효과만으로도 성급 유적 전체를 발굴한다는 것은 고려되어야 함

□ 심화연구 적절성과 그 이유

- 본 유적의 심화연구는 백제 사비왕궁을 중심으로 한 도성 운영체계 연구를 목적으로 제시하였고 사비도성 주요 건물 건설을 위해 조성한 성토대지의 체계적인 조사를 통한 사비도성의 착공시점 치 개발 방식 연구, 각 단계별 분포양상 분석을 통한 사비도성 공간 활용 모습의 규명 등을 제시하였음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매우적절하다와 적절하다는 의견이 66.7%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음

〈표 27〉 부여 관북리 심화연구 적절성



- 심화연구와 관련하여 경관 고고학적 측면 연구 추가, 유적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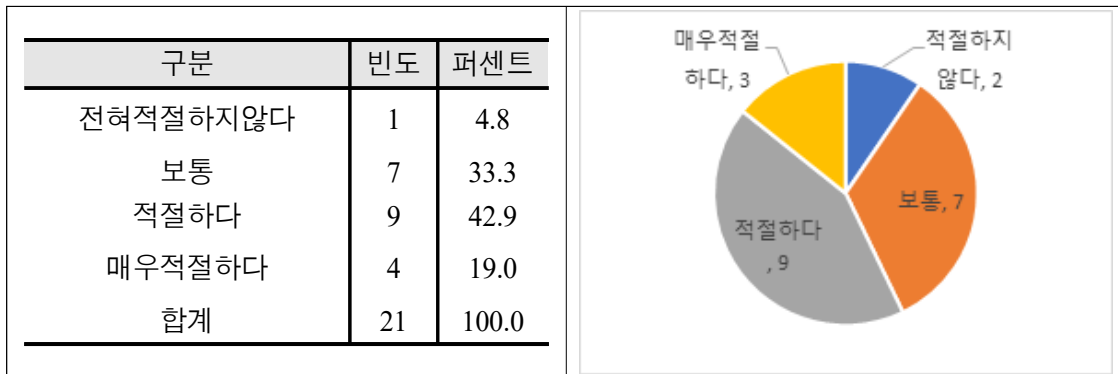
〈표 28〉 부여 관북리 유적 심화연구 적절성에 대한 기타 의견

번호	내용
1	•백제 도성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이므로 적절한 심화연구로 사료됨
2	•도시구성은 건축물이 대부분이므로 건축분야 전문가를 연구진으로 보강하고 건축에 대한 구체적 연구진행 필요
3	•경관고고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를 추가하여야 한다.
4	•3을 선택했음. 도성운영체계는 그 범위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위치도 비정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다양한 지역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전제되어야 연구가 가능한 주제인 만큼 연구제목이 너무 커보임
5	•고고학적 조사로 시간성(편년)은 가능하겠으나, 유적의 성격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고민

□ 융합연구 적절성과 그 이유

- 학제 간 협업을 통한 연구성과의 고도화를 융합연구의 목표로 제시하고 씨앗류의 종자분석, 백제 시대 지반강화(성토) 방법 등을 전문가들에 제시하였고 그에 대한 적절성에 대하여 질의함
- 응답 결과 61.9%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표 29〉 부여 관북리 융합연구 적절성



- 융합연구와 관련하여 심화연구와 융합연구의 경계를 조금 더 명확히 하여야 된다는 의견, 경주 월지와는 다른 융합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기타 세부적인 의견은 아래의 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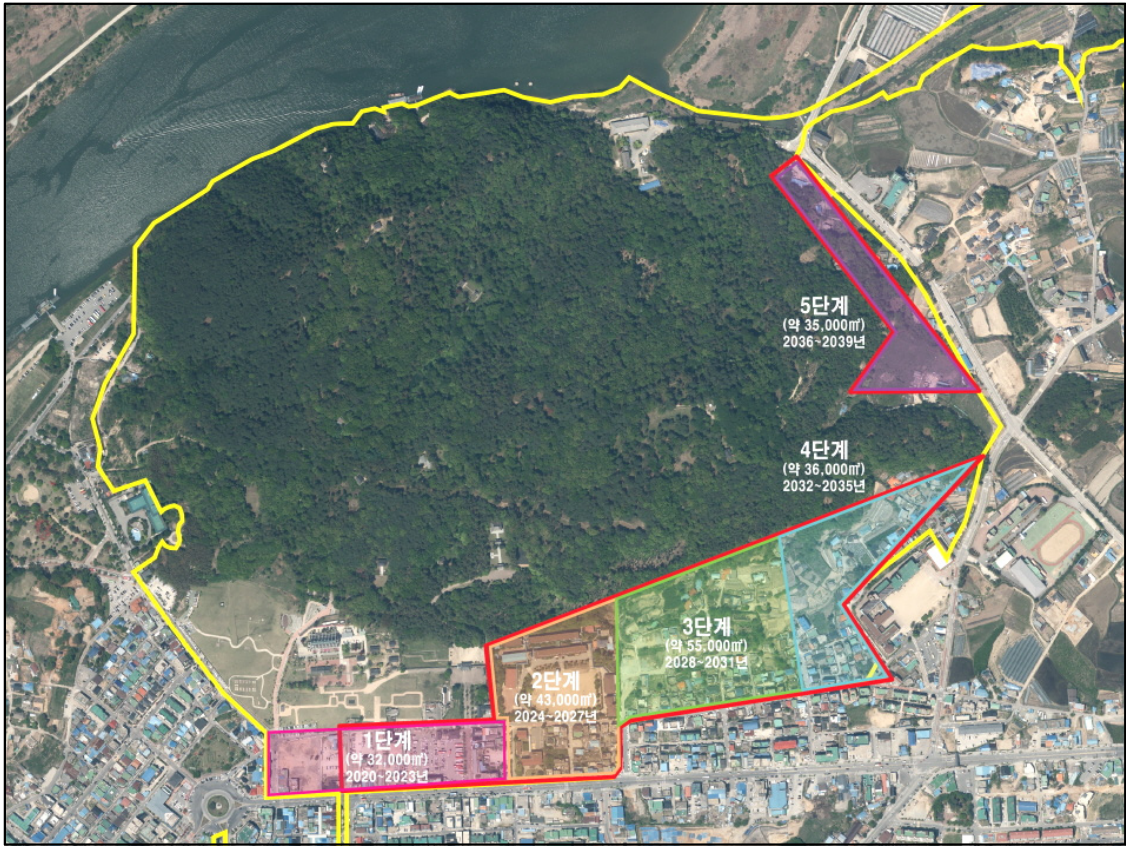
〈표 30〉 부여 관북리 유적 융합연구 적절성에 대한 기타 의견

번호	내용
1	• 사비 도성은 현 부소산을 후원으로 설정한 북조나 북위의 도성 구조와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산이나 산악과 관련된 정원(경주 월지와는 다른)에 대한 융합 연구가 필요함
2	• 부여의 고지형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함. 필요하다면 층위확인을 위한 피트 조사도 추가할 수 있음
3	• 사비지역의 생태환경과 경관복원을 연구 주제로 설정한 것은 매우 중요하나, 이는 단순히 종자분석과 수종분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전반적인 고지형 연구, 동물상에 대한 연구도 함께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경주 월성 발굴 현장의 고환경연구팀과 같이 여러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연구팀을 발족하여 다년간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4	• 상부구조물의 연구는 가능하겠지만 그것으로 복원하기에는 부적당할 것으로 보임.
5	• 심화연구와 융합연구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음. 심화연구를 위해서는 융합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6	• 융합연구와 심화연구와의 연결고리가 약해 보임, 각각 개별연구로 변화할 가능성 • 두 연구의 결과를 이념과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

□ 단계별 발굴조사 계획의 적절성과 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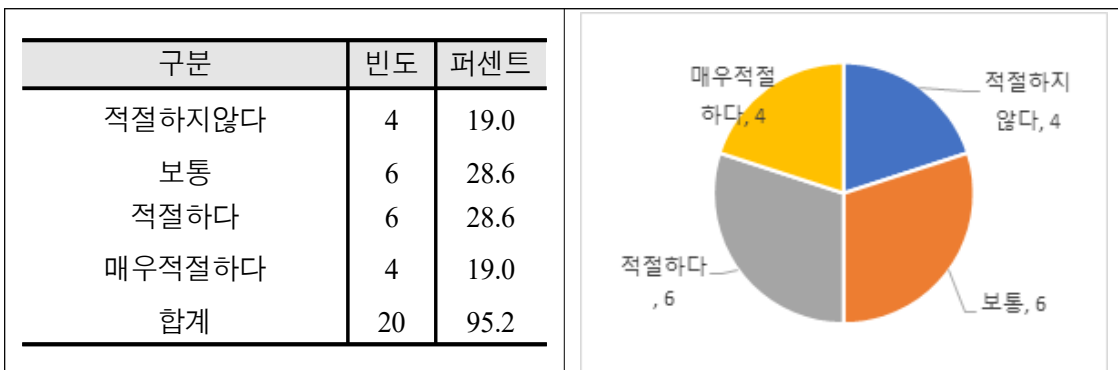
- 부여 관북리 유적의 경우 5단계의 발굴조사 계획을 제시하였음. 1단계 현재 정비 되어 있는 관북리 유적의 남쪽 연접 지역 조사, 2단계 부소산성 남쪽 중앙부의 부여여고 일대 조사, 3단계 쌍북리 일대 조사, 4단계 부소산성 동남쪽지역 조사 5 단계 부소산성 동쪽지역 조사임

〈그림 5〉 부여 관북리유적의 5단계 발굴조사 계획



-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였고 적절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은 47.6%로 조사되었음

〈표 31〉 단계별 발굴조사 계획의 적절성



- 단계별 계획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과 필요한 최소 구역에 대한 발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5단계 발굴조사 계획만으로는 그 적절성을 이해하는 것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2〉 부여 관북리 유적 발굴조사 단계계획 적절성에 대한 기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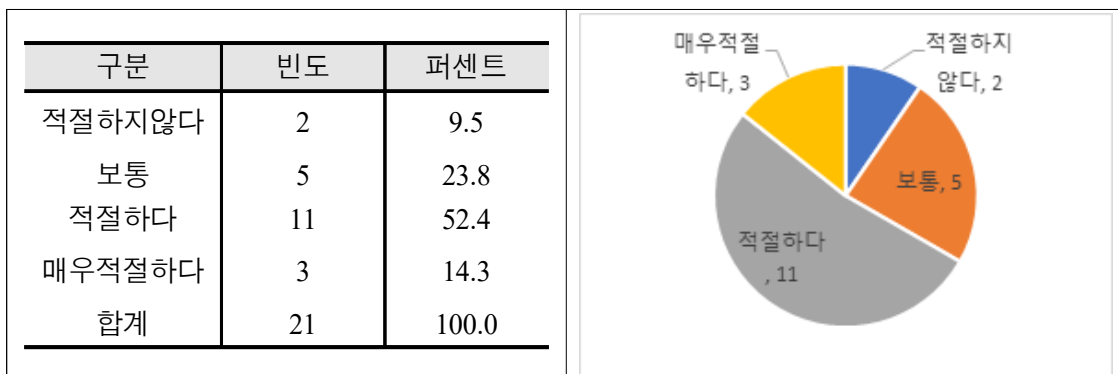
번호	내용
1	• 1단계 발굴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다음 단계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 현재 복원된 구역의 발굴조사가 이전부터 이루어졌으므로 사비 도성의 왕궁이란 시각에서 이에 대한 기초 발굴조사도 필요함
3	• 기간 설정이 너무 짧다. 각 구간마다 필요한 시간이 현재의 2-3배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4	• 유적정비에 필요한 최소구역에 대한 발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5	•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구획을 하고, 그에 따른 무작위 발굴조사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6	• 부소산성 남쪽에 위치한 현 민가에 대한 이전이 전제되어야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5단계 내에서 민가의 이주 대책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임
7	• 첨부된 자료의 5단계 발굴조사 계획만으로 그 적절성을 이해하는 것은 불충분함

3) 익산 왕궁리 유적

□ Vision 적절성과 그 이유

- 익산 왕궁리 유적의 비전은 백제역사유적지구 익산의 역사·문화적 가치 창출로 제시하였음. 이에 대하여 전문가는 66.7%가 긍정적으로 수립되었다고 응답하였음

〈표 33〉 익산 왕궁리 Vision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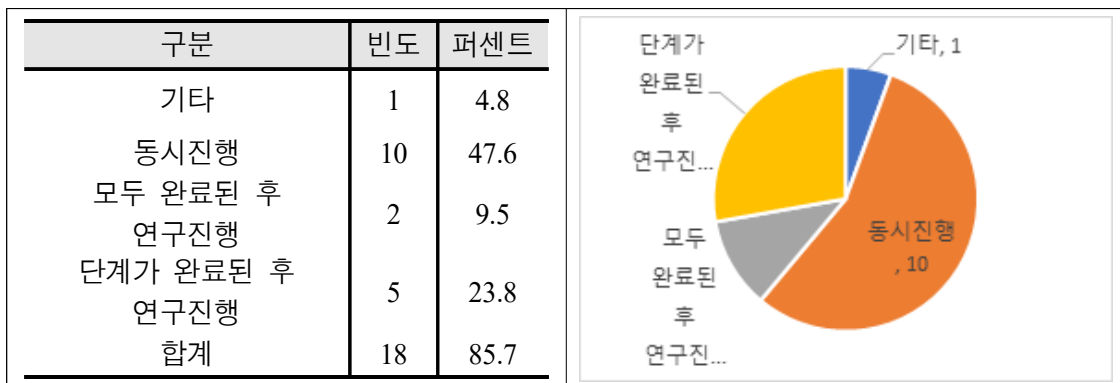
〈표 34〉 익산 왕궁리 유적 Vision 적절성에 대한 기타 의견

번호	내용
1	• 1단계 발굴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다음 단계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 현재 복원된 구역의 발굴조사가 이전부터 이루어졌으므로 사비 도성의 왕궁이란 시각에서 이에 대한 기초 발굴조사도 필요함
3	• 기간 설정이 너무 짧다. 각 구간마다 필요한 시간이 현재의 2-3배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4	• 유적정비에 필요한 최소구역에 대한 발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5	•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구획을 하고, 그에 따른 무작위 발굴조사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6	• 부소산성 남쪽에 위치한 현 민가에 대한 이전이 전제되어야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5단계 내에서 민가의 이주 대책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임.
7	• 첨부된 자료의 5단계 발굴조사 계획만으로 그 적절성을 이해하는 것은 불충분 함

□ 학술연구의 진행 형태

○ 익산 왕궁리 유적에 대하여 발굴조사, 심화연구 및 융합 연구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였음. 응답 결과 동시에 진행하여야 된다는 의견은 47.6%로 조사되었음. 발굴조사 단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심화연구 및 융합연구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23.8%로 조사됨. 전문가들은 동시 진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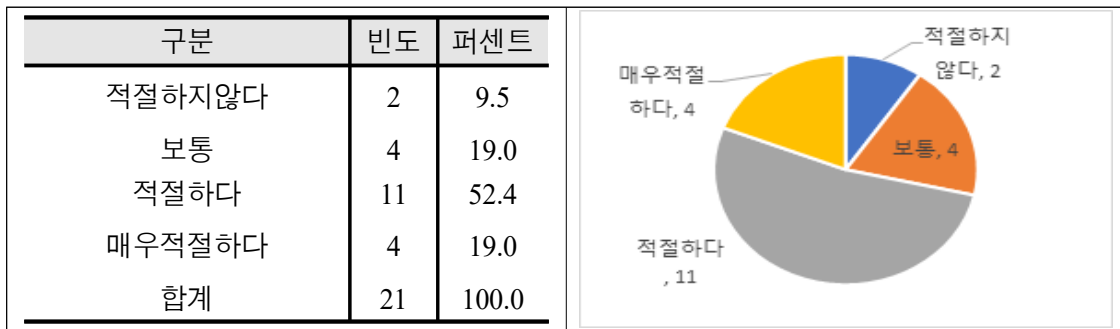
〈표 35〉 익산 왕궁리 학술연구 진행 형태



□ 발굴조사 연구 적절성과 그 이유

- 발굴조사 목표로 왕궁리 유적의 공간 활용 방식 규명을 수립하였고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시하였고 그 적절성에 대하여 조사하였음. 조사결과 적절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71.4%로 분석되었음

<표 36> 익산 왕궁리 발굴조사 연구 적절성



- 본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연구에 관하여 지금까지의 발굴을 토대로 유적 정비에 필요한 최소 구역에 대한 발굴을 검토하여야 됨 등의 의견이 제시됨. 세부적인 의견은 아래의 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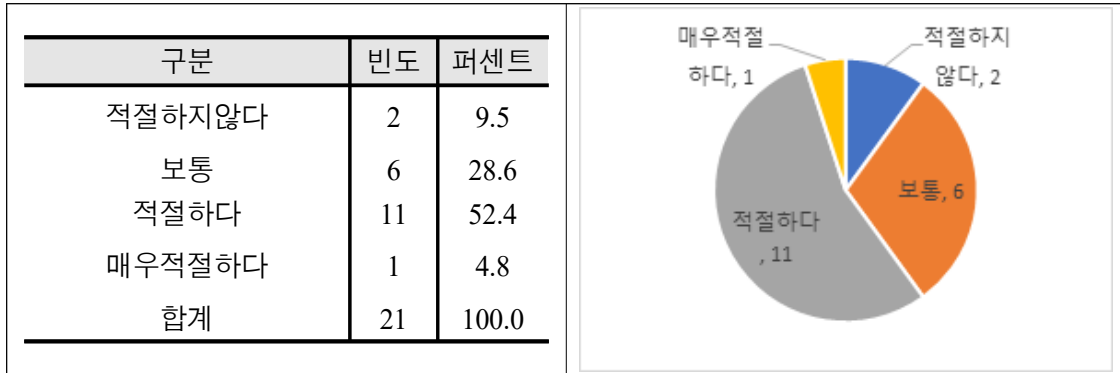
<표 37> 익산 왕궁리 유적 발굴조사 연구 적절성에 대한 기타 의견

번호	내용
1	• 개별 유적의 세부 조사 보다는 도로, 광장 등 공간을 고려한 조사는 향후 백제 도성 연구의 기초가 될 것임
2	• 지금까지의 발굴을 토대로 유적정비에 필요한 최소구역에 대한 발굴을 하는 것 검토요망
3	• 어느 정도까지 발굴조사를 진행할지 애매모호함. 전면 발굴조사를 한다면 후손에게 물려줄 것은 무엇인지 보이지 않음
4	• 왕궁리유적과 제석사지 사지의 통로도 고려

□ 심화연구 적절성과 그 이유

- 왕궁리 유적의 운영체계 및 구조 규명을 심화연구의 목표로 제시하고 그 적절성에 대하여 질의함. 응답결과 67.2%가 적절하다는 결과가 도출됨. 이는 익산 왕궁리의 심화연구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표 38〉 익산 왕궁리 심화연구 적절성



- 본 유적과 관련하여 중국, 일본의 담장과 비교하는 연구와 정원의 활용 등에 관한 연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세부적인 의견은 아래의 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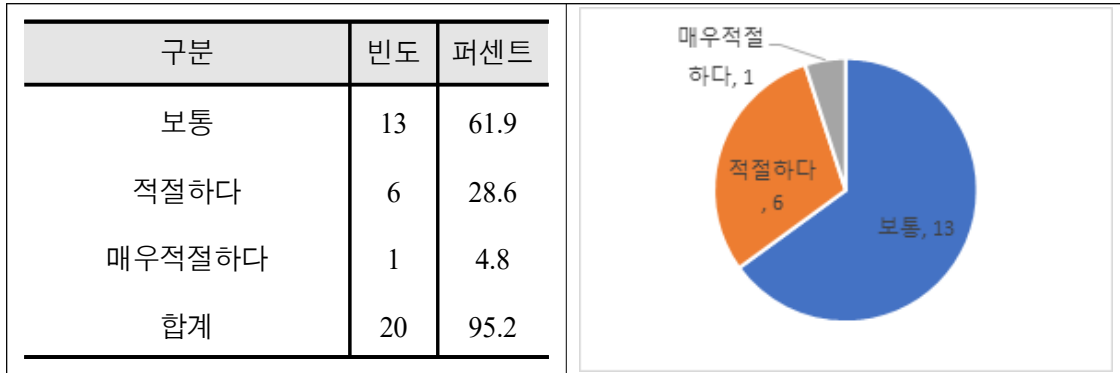
〈표 39〉 익산 왕궁리 유적 심화 연구 적절성에 대한 기타 의견

번호	내용
1	• 왕궁리 유적은 백제 도시에서 드물게 담장, 후원의 정원, 지구내 탑 등 사찰적 면모 등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중국 일본의 담장과 비교, 정원의 활용 등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 도시구성은 건축물이 대부분이므로 건축분야 전문가를 연구진으로 보강하고 건축에 대한 구체적 연구진행 필요
3	• 융합연구적 측면에 볼 때 고고학적 측면에 치우쳐 있다.
4	• 익산의 왕궁리 유적을 기본적으로 궁성으로 규정하고 조사를 진행하는데 역사학계에서도 이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함
5	• 심화연구에서 이미 발굴된 원지와 전각 유적의 사상적 배경을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 융합연구 적절성과 그 이유

- 왕궁리 유적의 융합 연구 계획의 적절성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질의한 결과 보통 이다는 의견이 61.9%로 조사됨. 추후 기타 의견으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융합연구의 계획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40〉 익산 왕궁리 융합연구 적절성



- 해당 유적에 대한 융합 연구와 관련하여 학제간 융합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고대의 옛 지형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 등이 제시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41〉 익산 왕궁리 유적 융합 연구 적절성에 대한 기타 의견

번호	내용
1	• 융합 연구의 주제가 선뜻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으며 왕궁리 유적에 대한 기초적인 학제간 융합 연구도 필요함
2	• 현재 왕궁리 유적 주변은 그 대부분 논으로 조성되어 있어 고대의 옛지형을 파악하기 어려운 바, 이에 대한 조사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3	• 사회교육활동과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융합연구인지 애매함

□ 단계별 발굴조사 계획의 적절성과 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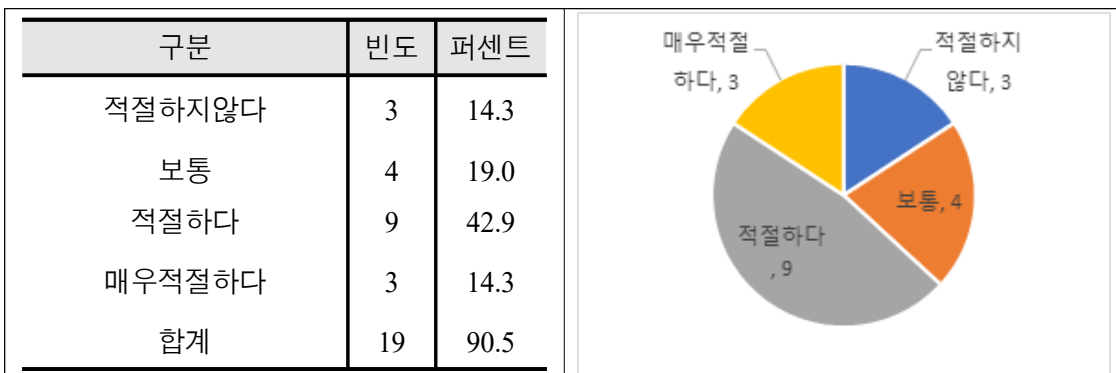
- 익산 왕궁리 유적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총 5단계로 구분하여 그 적절성에 대하여 질의함

〈그림 6〉 익산 왕궁리 유적의 5단계 발굴조사 계획



○ 응답결과 57.2%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42〉 단계별 발굴조사 계획의 적절성



4) 공주 송산리 고분군 응답 세부 분석

(1) 카이스퀘어 검정

- 해당 유적의 Vision이 적절 여부에 따라 선택한 응답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카이스퀘어(χ^2) 검정을 실시함
- 분석결과 발굴조사 연구 계획의 적절성, 심화연구 계획 수립의 적절성, 융합연구 수립의 적절성, 단계별 계획 수립의 적절성 중 발굴조사 연구 계획 수립의 적절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발굴조사연구가 적절하게 수립되었다고 응답한 경우 Vision 수립이 부정적이라는 4.8%, 보통이라는 9.5%, 긍정적이라는 61.9%로 조사됨. 즉 발굴조사 연구계획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이 Vision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다고 응답한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임

<표 43> 공주 송산리 고분군 비전 적절성 선택 요인 카이스퀘어 분석

(단위 : 명, %)

구분		Vision 적절성						χ^2
		부정		보통		긍정		
		빈도	%	빈도	%	빈도	%	
발굴조사연구 적절성	부정	0	0.0%	3	14.3%	0	0.0%	10.031**
	보통	0	0.0%	1	4.8%	1	4.8%	
	긍정	1	4.8%	2	9.5%	13	61.9%	
심화연구 적절성	부정	0	0.0%	1	4.8%	0	0.0%	8.679
	보통	1	4.8%	3	14.3%	2	9.5%	
	긍정	0	0.0%	2	9.5%	12	57.1%	
융합연구 적절성	부정	0	0.0%	0	0.0%	1	4.8%	7.396
	보통	1	4.8%	4	19.0%	2	9.5%	
	긍정	0	0.0%	2	9.5%	11	52.4%	
단계별 계획 적절성	부정	1	5.0%	3	15.0%	2	10.0%	8.037
	보통	0	0.0%	1	5.0%	0	0.0%	
	긍정	0	0.0%	2	10.0%	11	55.0%	

(2) 회귀분석

- 발굴조사연구의 적절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Vision수립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즉 발굴조사연구 계획 수립이 적절하게 수립할수록 전문가들은 Vision 수립이 적절하다고 응답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임

〈표 44〉 발굴조사연구 계획 적절성과 Vision 수립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849	0.631		2.931***
발굴조사연구계획 수립 적절성	0.507	0.159	0.601	3.188***

5) 부여 관북리 유적 응답 세부 분석

(1) 카이스퀘어 검정

- 분석결과 발굴조사 연구 계획의 적절성, 심화연구 계획 수립의 적절성, 융합연구 수립의 적절성, 단계별 계획 수립의 적절성 중 발굴조사 연구 계획 수립의 적절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발굴조사연구가 적절하게 수립되었다고 응답한 경우 Vision 수립이 보통이라는 9.5%, 긍정적이라는 61.9%로 조사됨. 즉 발굴조사 연구계획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이 Vision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다고 응답한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임

<표 45> 부여 관북리유적 비전 적절성 선택 요인 카이스퀘어 분석

(단위 : 명, %)

구분	Vision 적절성						χ^2	
	부정		보통		긍정			
	빈도	%	빈도	%	빈도	%		
발굴조사연구 적절성	부정	1	4.8%	2	9.5%	0	0.0%	18.750***
	보통	0	0.0%	4	19.0%	0	4.8%	
	긍정	0	0.0%	2	9.5%	12	61.9%	
심화연구 적절성	부정	0	0.0%	0	0.0%	1	4.8%	7.042
	보통	1	4.8%	4	19.0%	1	4.8%	
	긍정	0	0.0%	4	19.0%	10	47.6%	
융합연구 적절성	부정	0	0.0%	1	4.8%	1	4.8%	4.969
	보통	1	4.8%	4	19.0%	2	9.5%	
	긍정	0	0.0%	3	14.3%	9	42.9%	
단계별 계획 적절성	부정	0	0.0%	2	10.0%	2	10.0%	7.258
	보통	1	5.0%	4	20.0%	1	5.0%	
	긍정	0	0.0%	2	10.0%	8	40.0%	

(2) 회귀분석

- 발굴조사연구의 적절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부여 관북리 유적의 Vision수립을 종속 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즉 발굴 조사연구 계획 수립이 적절하게 수립할수록 전문가들은 Vision 수립이 적절하다고 응답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임

<표 46> 발굴조사연구 계획 적절성과 Vision 수립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378	0.383		3.597***
발굴조사연구계획 수립 적절성	0.595	0.102	0.809	5.846***

5) 익산 왕궁리 유적 응답 세부 분석

(1) 카이스퀘어 검정

- 분석결과 발굴조사 연구 계획의 적절성, 심화연구 계획 수립의 적절성, 융합연구 수립의 적절성, 단계별 계획 수립의 적절성 중 발굴조사 연구 계획 수립의 적절성, 심화연구 수립의 적절성, 단계별 계획 수립의 적절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발굴조사연구가 적절하게 수립되었다고 응답한 경우 Vision 수립이 부정적이라는 4.8%, 보통이라는 4.8%, 긍정적이라는 61.9%로 조사됨
- 심화연구가 적절하게 수립되었다고 응답한 경우 Vision 수립이 부정적인 응답은 10%, 긍정적인 응답은 50%가 선택됨
- 단계별 계획 수립이 적절하게 수립한 경우 Vision 수립이 보통이라는 5.3%, 긍정적이라는 57.9%로 분석됨

<표 47> 익산 왕궁리 유적 비전 적절성 선택 요인 카이스퀘어 분석

(단위 : 명, %)

구분		Vision 적절성						χ^2
		부정		보통		긍정		
		빈도	%	빈도	%	빈도	%	
발굴조사연구 적절성	부정	1	4.8%	1	4.8%	0	0.0%	14.055***
	보통	0	0.0%	3	14.3%	1	4.8%	
	긍정	1	4.8%	1	4.8%	13	61.9%	
심화연구 적절성	부정	0	0.0%	1	5.0%	1	5.0%	10.615**
	보통	0	0.0%	4	20.0%	2	10.0%	
	긍정	2	10.0%	0	0.0%	10	50.0%	
융합연구 적절성	보통	1	5.0%	4	20.0%	8	40.0%	0.761
	긍정	1	5.0%	1	5.0%	5	25.0%	
단계별 계획 적절성	부정	1	5.3%	1	5.3%	1	5.3%	13.168**
	보통	1	5.3%	3	15.8%	0	0.0%	
	긍정	0	0.0%	1	5.3%	11	57.9%	

(2) 회귀분석

- 단계별 조사 계획의 수립 적절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익산 왕궁리 유적의 Vision 수립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즉 발굴조사연구 계획 수립이 적절하게 수립할수록 전문가들은 Vision 수립이 적절하다고 응답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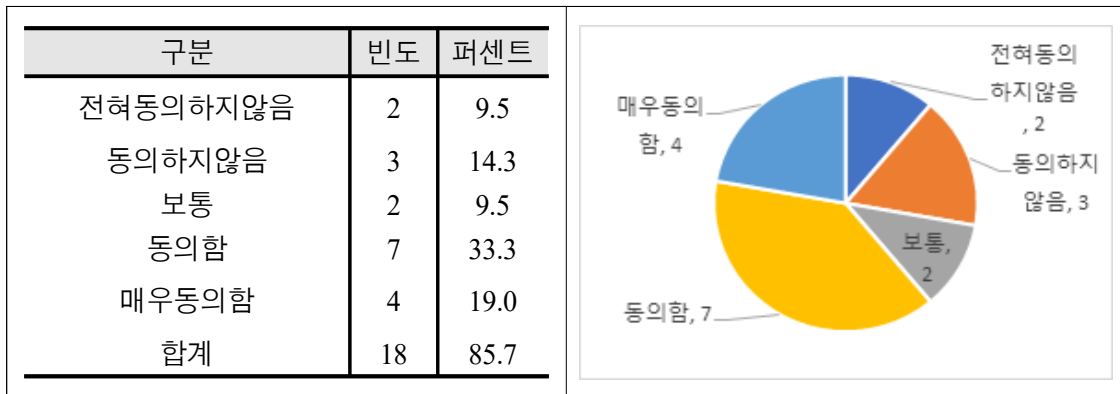
〈표 48〉 발굴조사연구 계획 적절성과 Vision 수립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548	0.594		2.605**
단계별 조사 계획의 적절성	0.574	0.159	0.660	3.619***

2. 보존 정비 계획(잇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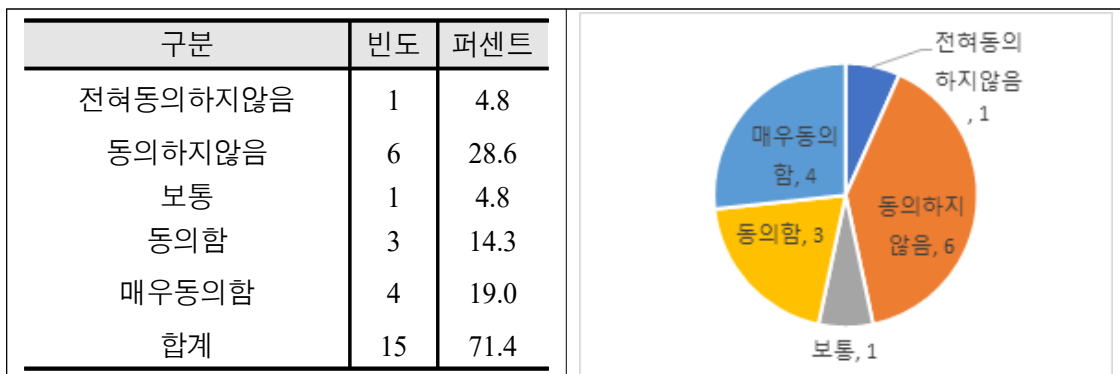
- 발굴조사 완료 후 정비 및 복원 vs 발굴조사와 병행하여 정비 및 복원
 - 백제왕도 3대 핵심유적과 관련하여 발굴조사가 완료 후 정비 및 복원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발굴조사와 병행하여 정비 및 복원되어야 한다는 질문을 전문가에게 질의 하였음
 - 응답결과 발굴조사 완료 후 정비 및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을 합쳐 52.3%로 조사되었음. 세부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49〉 발굴조사 완료 후 정비 및 복원



- 발굴조사와 병행하여 정비 및 복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을 합쳐 33.3%로 분석됨.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73과 같음. 즉 전문가들은 발굴조사 완료 후 정비 및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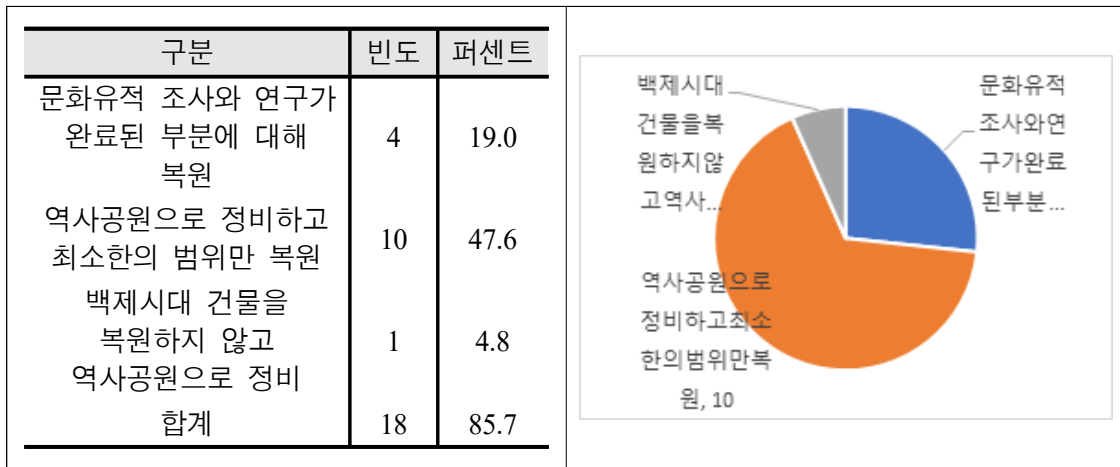
〈표 50〉 발굴조사 병행하여 정비 및 복원



□ 발굴조사 이후 정비 및 복원의 형태

- 발굴조사 이후 정비 및 복원되는 형태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역사공원으로 정비하고 최소한의 범위만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47.6%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역사공원으로 정비하고 최소한의 범위의 복원을 주장하는 분이 많다고 볼 수 있음

<표 51> 정비 및 복원의 형태



□ 정비 및 복원 방향성·형태에 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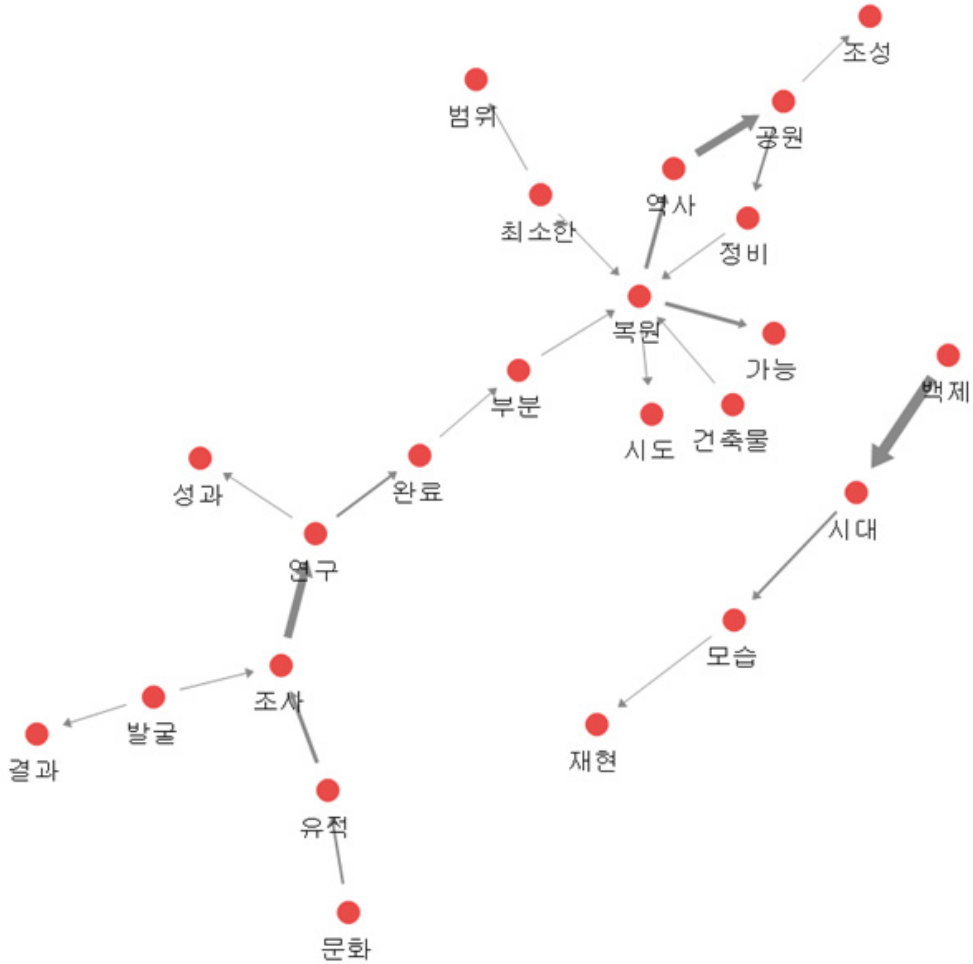
- 개방형 질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 (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수행하고 본 질의에 대한 전문가의 생각을 정리함
-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은 단어(노드)들 사이의 관계를 시각적 연결망으로 표현하여 중심 개념과 주변 개념들의 관계와 연결된 강도를 파악하는데 용이하고, 추상적인 의미구조를 구체화할 수 있음
- 각 개념의 다중 연결된 구조인 네트워크는 하나의 의미를 형성하는데(Barnett & Woelfe, 1988), 다양한 의미 사이의 다중 연결의 구조화된 의미 표현이 의미 연결 망임(Schultz et al., 2012)
- 의미 연결망 분석을 활용하면 텍스트의 구조화된 패턴의 정보를 추출해 커뮤니케이션 양상을 체계화할 수 있으며, 단어들의 의미론적 연관 구조를 쉽게 파악하여 기사 내부에 잠재된 메시지 전달자의 의도를 도식화 할 수 있음(남인용·박한우, 2007). 따라서 의미 연결망 분석은 개념의 의미가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표 52〉 정비 및 복원 방향성·형태 질의에 대한 단어 출현 빈도 현황

순위	단어	출현빈도	끝점	시작점	순위	단어	출현빈도	끝점	시작점
1	복원	29	4	3	13	최소한	5	0	2
2	유적	13	1	1	14	모습	4	1	1
3	백제	10	0	1	15	문화	4	0	1
4	역사	8	1	1	16	건축물	3	0	1
5	연구	8	1	2	17	성과	3	1	0
6	정비	8	1	1	18	완료	3	1	1
7	조사	8	2	1	19	재현	3	1	0
8	가능	7	1	0	20	결과	2	1	0
9	부분	7	1	1	21	범위	2	1	0
10	시대	7	1	1	22	시도	2	1	0
11	공원	6	1	2	23	조성	2	1	0
12	발굴	5	0	2					

- 출현한 단어 간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출현빈도 2회 이상, 노드 간 연결 1회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단어의 네트워크를 추출하였음
- 해당 질문에서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인 주제 단어는 ‘복원’이며 복원 → 역사 → 공원, 복원 → 가능, 복원 → 시도로 이어지는 연결을 보임. 또한 범위 → 최소한 → 복원, 조사 → 연구 → 완료 → 부분 → 복원으로 연결됨
- 추가적으로 백제 → 시대 → 모습 → 재현으로 연결됨

<그림 8> 정비 및 복원 방향성·형태 질의에 대한 단어 네트워크 분석



3. 활용 계획(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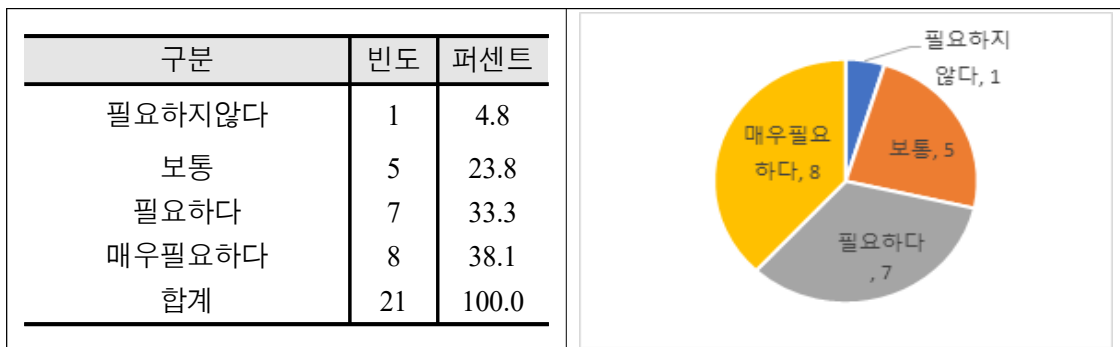
1) 전시디자이너 제도

- 유적의 보존 및 정비를 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보존 및 정비임. 이에 다양한 관점에서 보존 및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획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에게 질의 하고 그 응답을 조사하였음

□ 전시 디자이너 제도 도입의 필요성

- 전시 디자이너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없었으며 매우 필요하다고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은 71.1%로 조사됨

〈표 53〉 전시 디자이너 제도 도입의 필요성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개방형으로 응답하게 하였고 그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실시함
- 분석결과 필요 22회, 기획 16회, 정비 15회, 유적 12회, 보존·전문가가 각 10회 순으로 나타남. 출현 빈도에 따른 word cloud는 아래의 그림과 같음

〈그림 9〉 전시 디자이너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word clou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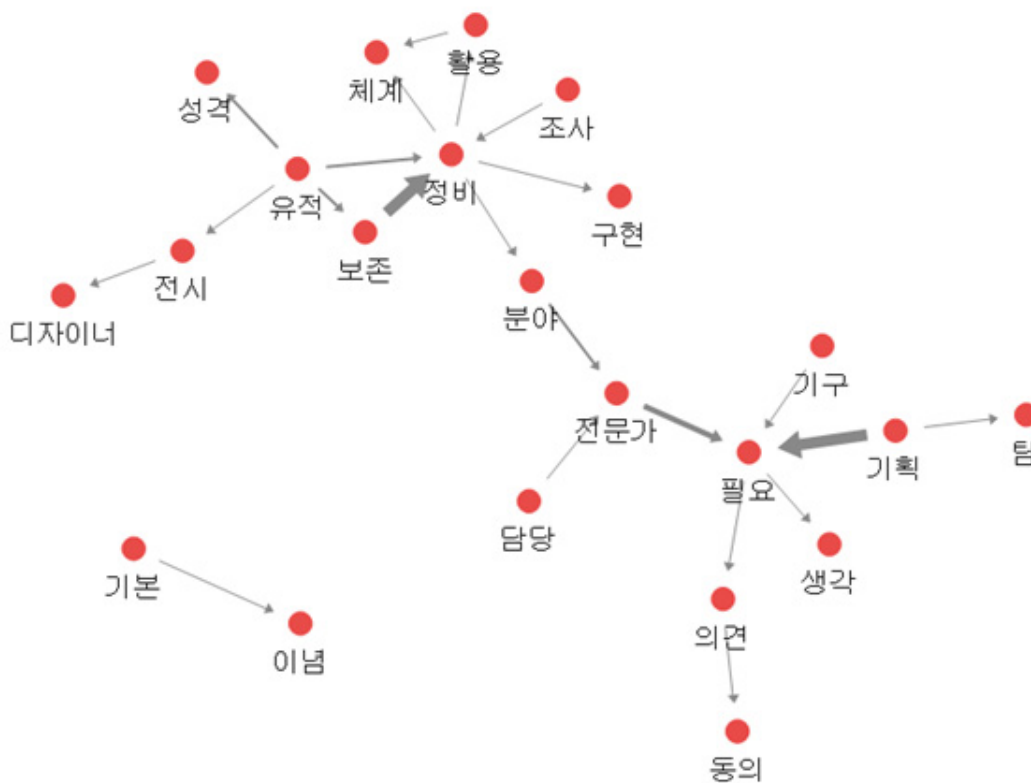
- 연결망이 도착하는 끝점의 단어는 ‘필요’, ‘정비’가 다른 3개의 노드와 연결되어 가장 높은 중심성을 보이고 다음으로 ‘전문가’, ‘체계’가 2개의 노드로 분서됨. 연결망이 시작하는 시작점은 ‘정비’, ‘유적’이 다른 4개의 노드와 연결되어 최상위의 중심성을 보임

〈표 54〉 전시디자이너 질의에 대한 단어 출현 빈도 현황

순위	단어	출현빈도	끝점	시작점	순위	단어	출현빈도	끝점	시작점
1	필요	22	3	2	12	활용	4	1	1
2	기획	16	0	2	13	기본	3	0	1
3	정비	15	3	4	14	성격	3	1	0
4	유적	12	0	4	15	의견	3	1	1
5	보존	10	1	1	16	조사	3	0	1
6	전문가	10	2	1	17	구현	2	1	0
7	분야	6	1	1	18	기구	2	0	1
8	전시	5	1	1	19	담당	2	0	1
9	생각	4	1	0	20	동의	2	1	0
10	이념	4	1	0	21	디자이너	2	1	0
11	체계	4	2	0	22	팀	2	1	0

- 출현한 단어 간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출현빈도 2회 이상, 노드 간 연결 1회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단어의 네트워크를 추출하였음
- 해당 질문에서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인 주제 단어는 ‘필요’이며 기획 → 필요, 전문가 → 필요, 기구 → 필요로 이어지는 연결을 보임. 또한 보존 → 정비, 유적 → 정비로 연결됨
- 그리고 필요 → 의견 → 동의하는 연결이 분석됨

<그림 10> 전시 디자이너에 대한 단어 네트워크 분석



□ 유적별 전시디자이너 제도 도입의 필요성

- 유적별 전시 디자이너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모두 평균 4점 이상으로 필요하다는 높은 의견이 도출됨. 전문가들은 모든 유적에 대하여 전시디자이너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판단됨

<표 55> 유적별 전시디자인 제도 필요성에 대한 응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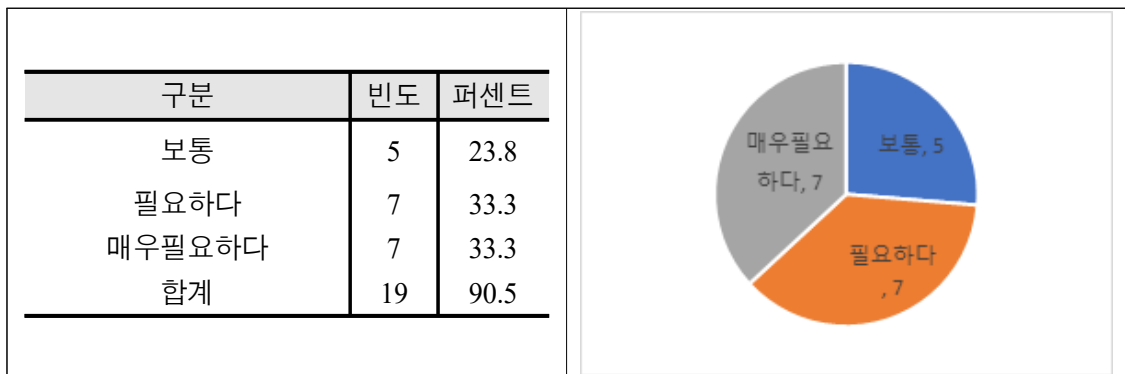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공주	21	2	5	4.00	.894
부여	21	2	5	4.05	.865
익산	21	2	5	4.10	.889

2) 주민생활기록화

□ 주민생활기록화 사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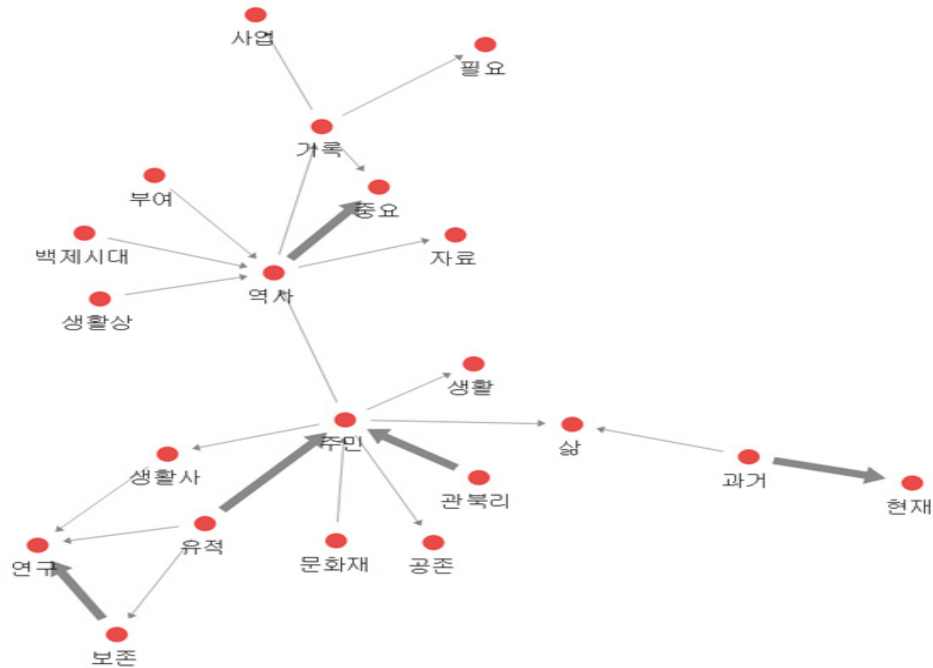
- 기록화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질의하였고 응답결과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66.9%로 조사됨. 이는 해당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기록화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표 56> 주민생활기록화 사업 도입의 필요성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개방형으로 응답하게 하였고 그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실시함
- 출현 빈도에 따른 word cloud는 아래의 그림과 같음

〈그림 12〉 주민생활기록화 제도에 대한 단어 네트워크 분석



□ 유적별 주민생활기록화 제도 도입의 필요성

- 유적별 주민생활기록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부여 관북리 유적이 4.05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이외 공주, 익산도 평균 3.55점으로 평균 이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58〉 유적별 전시디자이너 제도 필요성에 대한 응답 현황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공주	20	1	5	3.55	1.234
부여	20	3	5	4.05	.759
익산	20	1	5	3.55	1.099

3) 관광자원으로서 역할

- 백제왕도 3대 핵심유적 발굴조사는 관광자원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전문가에게 개방형으로 질의하였고 그 응답을 분석하였음

<그림 13> 관광자원 역할에 대한 응답 word clou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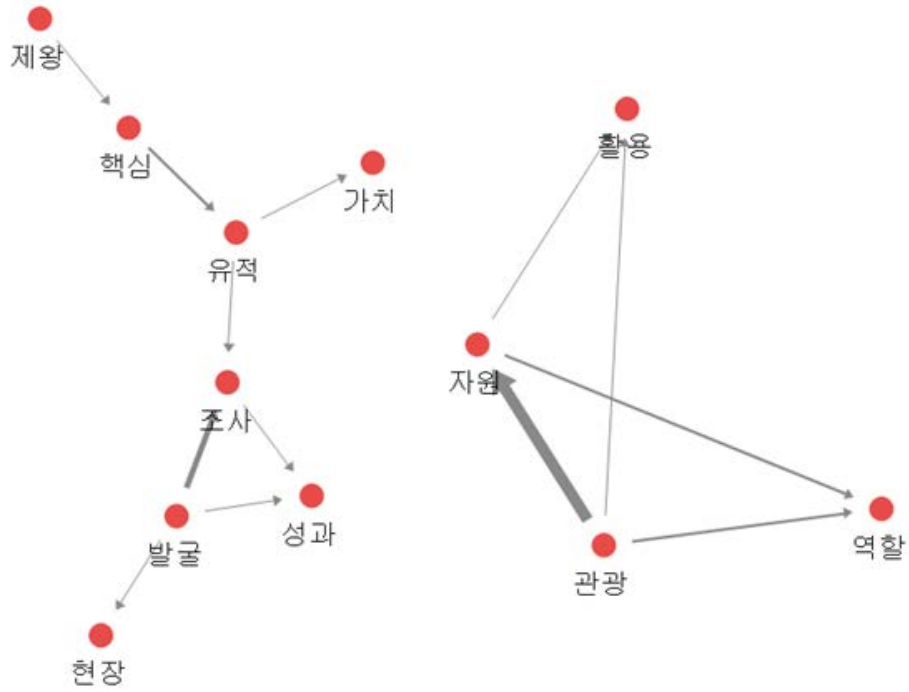
- 연결망이 도착하는 끝점의 단어는 ‘조사’, ‘역할’, ‘활용’, ‘성과’가 2개의 노드와 연결되어 가장 높은 중심성을 보이고 연결망이 시작하는 시작점은 ‘관광’, ‘발굴’이 다른 3개의 노드와 연결되어 최상위 중심성을 보임

<표 59> 관광자원 역할 질의에 대한 단어 출현 빈도 현황

순위	단어	출현빈도	끝점	시작점	순위	단어	출현빈도	끝점	시작점
1	관광	16	0	3	17	백제	5	0	1
2	발굴	15	0	3	19	성과	4	2	0
3	자원	14	1	2	19	핵심	4	1	1
4	유적	11	1	2	21	구축	2	1	0
5	조사	11	2	1	21	시스템	2	0	1
6	역할	7	2	0	21	왕도	2	1	0
7	가치	6	1	0	24	제왕	2	0	1
8	활용	6	2	0	24	현장	2	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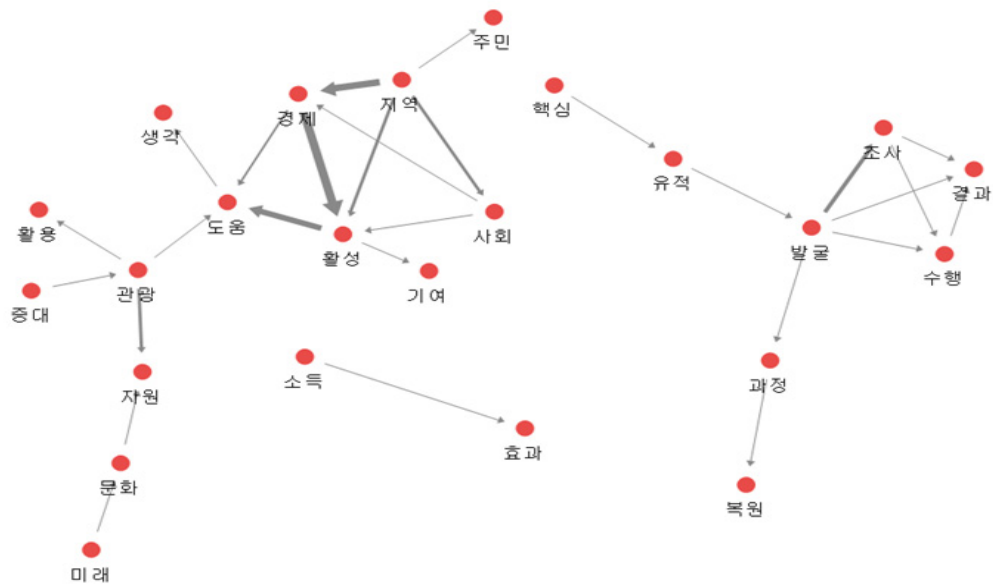
- 단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관광 → 자원 → 역할의 연결이 나타났음. 그리고 관광 → 활용의 연결도 나타남

〈그림 14〉 관광자원화에 대한 단어 네트워크 분석



-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단어 연결은 경제 → 활성화 → 도움, 지역 → 경제 → 도움의 연결이 나타남. 그리고 관광 → 도움, 증대 → 관광, 발굴 → 과정 → 복원 등의 연결로 분석되었음
- 그리고 소득 → 효과라는 연결이 나타남

<그림 16>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단어 네트워크 분석



5) 조직 및 예산 확충 방안

- 본 발굴조사와 관련하여 연구소의 사업 수행 능력 제고를 위하여 조직 및 예산 확충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질의하였음. 응답 결과 문화유산 인식과 관심을 유도해야 된다는 의견, 연구소의 조사 기능을 세부 주제에 따라 조직을 재편해야 함 등을 제안하였음

〈표 61〉 조직 및 예산 확충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번호	내용
1	• 정부의 문화유산 인식 재고와 국민들의 관심 유도
2	• 국민적 역사교육의 확대 강화를 통해 국민의 인문적 교양을 높여 국가예산의 확대를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밖에 없다.
3	• 사회교육활동과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융합연구인지 애매함.
4	• 백제 도성은 왕릉을 포함한 고분군, 궁궐.관아.도로망 등 거주구역, 사찰 등 신앙 구역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연구소의 조사 기능도 세부 주제 따라 조직을 재편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5	• 지역의 문화유산의 학술조사는 물론 훼손 위기의 중요 문화유산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보존 정비를 하는 사업도 수행해야 할 것임. 그렇게 할 때 그에 상응하는 예산과 조직을 확충할 수 있다고 판단됨.
6	• 해당 사업을 총괄할 전체 조직과 각 유적을 담당할 세부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별도의 예산 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7	• 다양한 백제유적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발굴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필요함으로 공주, 부여, 익산의 백제3대 핵심지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백제유적도 체계적 최소발굴의 원칙으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함.
8	• 분야별 전문가를 학예직으로 하고 외부전문가를 활용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연계 연구
9	•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면 조직 및 예산의 확충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된다.
10	• 목적을 가지고 발굴조사 계획을 만들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맞추어 조직과 예산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11	• 3대 핵심 유적 발굴조사 1,2단계 성과에 따라서 조직과 예산 확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지금의 마스터플랜은 구체적이지 않아 조직 및 예산 확충에 대한 타당성이나 규모가 산출되지 않음.

번호	내용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고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담보하기 위해 해마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지역 정치인(국회의원, 군수 등), 언론을 활용한 홍보 및 필요성 제기 등을 통해 예산확보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제왕도 3대 핵심유적 종합학술연구 마스터플랜과 같은 참신한 기획안을 갖고 각 기관과 시민을 설득한다면 조직 및 예산 확충도 가능할 것이다.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연구소 사업 수행과 예산 확충 방안 등을 실행할 필요가 있음.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의 결과물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인원의 증원 요청과 예산 확충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생각. 무엇보다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험이 많은 구성원 확보와 충분한 자료연구의 뒷받침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의 계획에는 “2 발전기(2024년 ~ 2034년) : (3) 조직 및 재정운용 부문 : 인력 채용, 조직수행체계 확립, 예산 집행”의 항목이 있다.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또 세 유적에 대한 5단계 발굴조사 계획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해야되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다. 동시에 발굴조사를 진행한다면 연구원의 증원이 필요하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주, 부여, 익산의 백제 유산의 성격은 크게 통치공간으로서의 왕궁과 나성, 이념공간으로서의 사찰, 사후공간으로서의 능묘로 분류된다. 통치공간과 이념공간은 공간을 같이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부여연구소의 구조는 도성 공간 조사연구와 사후 공간 조사연구로 전문화시켜 도성조사연구팀, 능묘조사연구팀으로 조직을 편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앞으로 한성도읍기 서울의 백제유산을 조사연구할 때 와도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 백제유산은 서울, 공주, 부여, 익산을 하나로 묶어서 조사하고 연구해야 상승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소의 내용에 따라 결정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시 각 유적의 전문조사자와(고고학적 문화현상의 점적 조사)이를 문화의 면으로 확대할 사학자, 인류학, 기타 주변학문과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결과속에서 융합연구들이 필요함

3

교육청 관계자 조사분석

1. 조사 개요

- 목적 : 공주, 부여, 익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발굴조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백제문화 향유를 위한 교육 및 활용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조사방법 : 브레인스토밍 후 개별 심층 조사
- 대상자 : 공주, 부여, 익산 교육청 관계자
- 일시 : 2019년 10월 2일 오전 10시 ~ 11시 30분(브레인스토밍)

2019년 10월 14일 ~ 11월 5일(개별 심층 조사)

2. 조사내용 및 결과

1)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 방법론 개요
 - 브레인스토밍은 Brain +Storming의 합성어로서, 뜻을 직역하면 ‘두뇌의 폭풍, 두뇌착관상태’인데 이는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폭풍 치듯이 마구 떠오르는 것을 표현한 것임
 - 브레인스토밍은 여러 사람(5-6인)이 그룹을 만들고 아무런 제약이 없는 편안한 상태에서 자유자재로 공상과 연상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아이디어를 내어 가도록 하는 그룹 아이디어 발상법을 의미함
 - 각종 프로세스에서 문제의 인식, 자료의 수집, 분석, 총합, 전개 등의 단계에서 유효한 방법으로 1938년 미국의 광고 대리점의 부사장인 오스본(A.F.Osborn)이 광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처음 개발함

□ 회의 개요

- 일 시 : 10월 2시 오전 10시 ~ 11시 30분
- 장 소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소회의실
- 참 석 자 : 조지현 연구사(부여소), 김은주 과장(마한교육문화회관), 추진아(충남 부여교육지원청), 나루컨설팅 2인

□ 회의 내용

- 부여군 교육지원청, 마한교육문화회관 사업 소개
 - (부여군, 부여소) ‘나도 고고학자’ 사업 소개. 현 사업은 이론과 실기를 한 공간에서 실시하였음. 이론에 대한 설명 시 대상자(초등학생)의 수업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됨. 추후 이론 수업은 학교에서 실시하고 현장에서는 체험만 진행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익산) ‘즐기면서 배우는 익산 역사문화체험 1일학교’ 사업 소개. 역사관련 추가 사업 마련 필요. 프로그램 개발 시 자문에 어려움이 있었음
- 프로그램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
 - 초등, 중등, 고등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초등의 경우 발굴현장 중심. 중등은 AR, VR, 퀴즈식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심. 고등의 경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등급별 단기, 중기, 장기의 프로그램 개발 필요

〈표 62〉 대상자 구분에 따른 기간 구분 예

구분	단기	중기	장기
초등	0		
중등	0		
고등		0	0

- 동아리 지원 사업, 부모님과 함께하는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고등의 경우 대상자가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회의 결과

- 부여소 홍보 계획 마련 필요(마스터플랜 수립 시 단기·중기 계획에 반영)
 - 타기관에서 문화재 관련 프로그램 개발 시 자문을 구할 방향을 모름.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 프로그램 개발 시 활용할 수 있는 백제관련 홍보 자료 마련 필요
 - ◆ 스토리 개발 및 활용 계획 수립 : 발굴과 관련된 스토리를 개발해 추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프로그램 선정 : 전문가 조사(2차:웹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선택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 일반 대중 대상 프로그램
 - 기획 프로그램

- 고객관리 프로그램 운영체계 수립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지원할 수 있는 부여소 내부 조직 구성 필요

2) 심층조사

- 브레인스토밍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초안을 작성하고 각 프로그램 별 실행 가능성 및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세부적인 질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 “백제문화 향유를 위한 교육 및 활용 프로그램 확대”에 접목가능한 프로그램 선정
 - 수정 가능한 프로그램 선정 및 프로그램 목적 및 개요 설정
 - 기타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선정
 - 기타 자유의견

3)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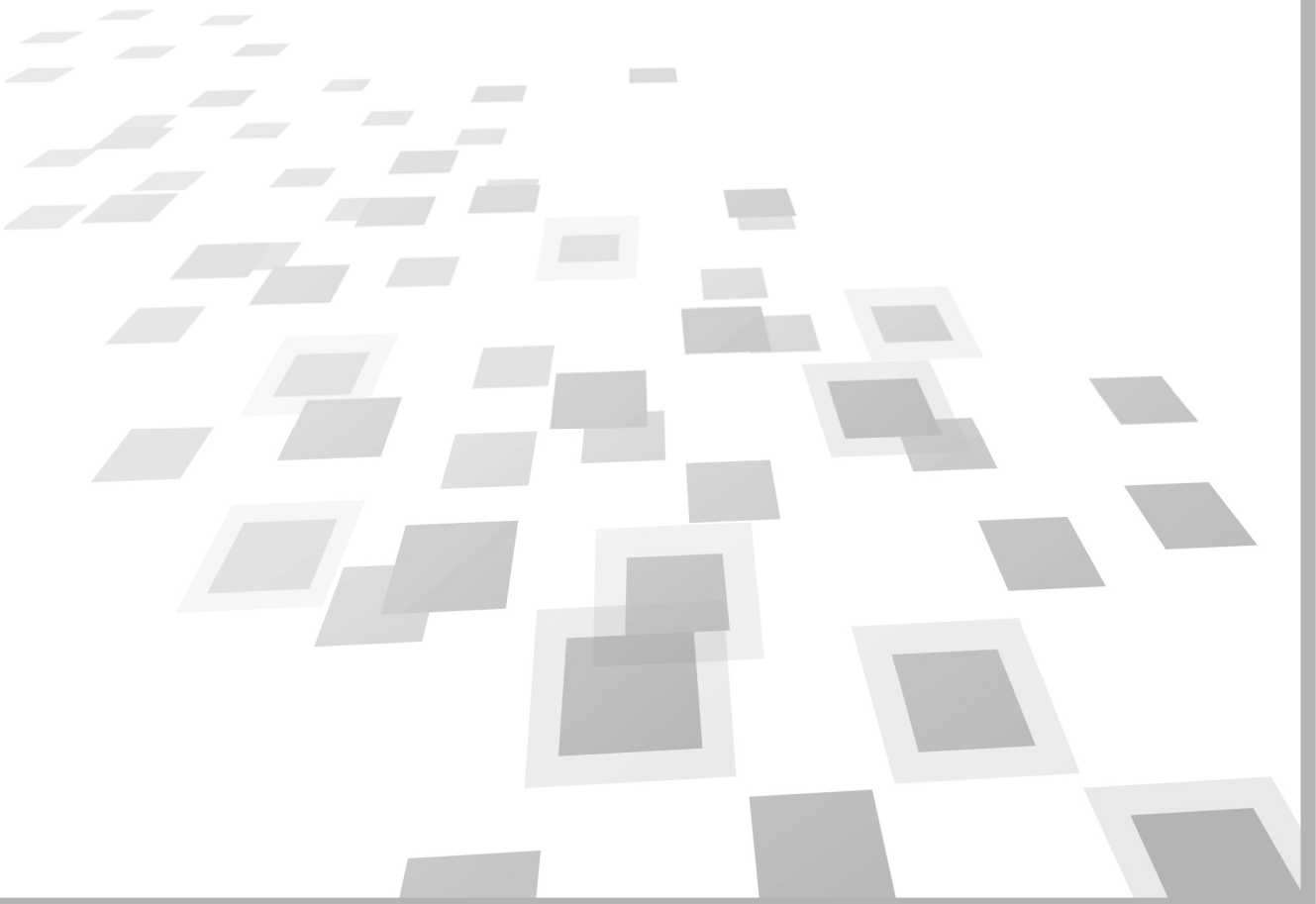
- 조사결과 프로그램 대상은 학생 및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일반대중 대상 프로그램으로 나뉨
 - 학생 및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은 발굴체험 캠프, 국민 발굴단, 발굴현장 올레투어, 초등학교 방문교육, 청소년 도슨트로 구성됨
 -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은 체험프로그램, 주민 퀴즈대회, 유네스코 지정 백제 역사 문화 지킴이, 지역 상권과 함께하는 역사 문화 프로그램 홍보로 구성됨
 - 일반대중 대상 프로그램은 부여연구소 투어, 스토리 개발 및 공모전, 사진 공모전, 극본 공모전, 드론 촬영 대회로 구성됨

〈표 63〉 교육청 담당자 추천 프로그램 명

구분	프로그램 명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1	발굴체험 캠프
	2	국민 발굴단
	3	발굴현장 올레투어
	4	초등학교 방문교육
	5	청소년 도슨트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6	체험 프로그램
	7	주민 퀴즈 대회
	8	백제 역사 문화지킴이
	9	지역상권 함께
일반대중 대상 프로그램	10	부여연구소 투어
	11	스토리 개발&공모
	12	사진 공모전
	13	극본 공모전
	14	드론 촬영 대회

제 3 장

환경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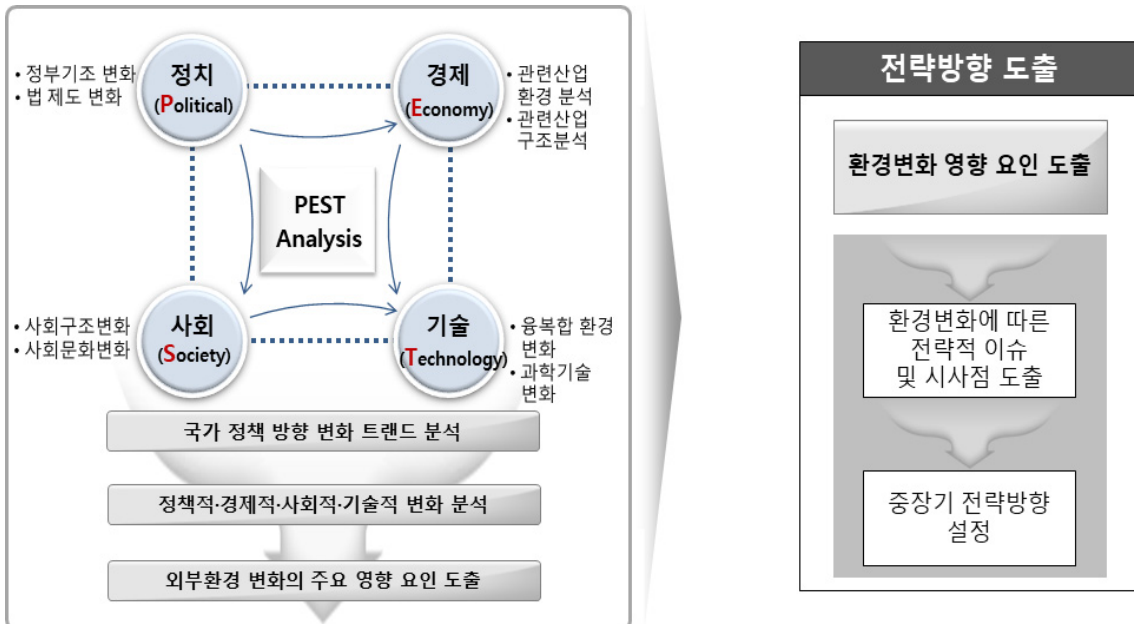
제1절 PEST 분석 틀



- PEST 분석은 전략 수립의 기본분석으로 조직을 둘러싼 거시환경 영향요인을 추출하여 해당 조직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기회(Opportunity)요인과 위협(Threats)요인을 분석하는 것임
- 외부환경은 거시환경과 미시환경으로 구분함. 거시환경 영역은 정치(Political), 경제(Economical), 사회(Social), 기술(Technological) 환경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PEST 분석(PEST Analysis)임
- 많은 조직들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음. 환경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많은 환경 요소들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느리거나 간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많음
- 조직을 둘러싼 환경은 범위가 넓고 조직과 조직의 전략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침. 때문에 환경을 몇 개의 하위 범주 또는 부문으로 나누고 환경의 주요 측면들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조직은 어느 정도까지 내부의 강점과 약점, 자원, 능력을 통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음. 어느 정도는 조직이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할 수 있음
- 사업의 성장 및 발전에 기회나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기술 등의 거시적인 환경요인을 파악하여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PEST 분석임
- PEST 분석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정치적 환경분석(Political Environment)이다. 정치적·법률적 환경변화가 외부의 규칙이나 전제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경쟁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등 조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임
 - 둘째, 경제적 환경(Economical Environment)이다. 외부 경제 환경요인의 변화도 조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예를 들면, 경제성장 또는 정체는 조직의 제품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원화 가치의 상승은 수입 및 수출기업에 기회와 위협을 초래하게 됨

- 셋째, 사회적 환경(Social Environment)이다. 인구통계학적 구조의 변화와 소비자 기호의 변화는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침. 출산율 저하, 맞벌이 가구의 증대, 노인 인구의 증가 등은 관련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기호의 변화 또한 큰 영향을 미치게 됨
- 넷째, 기술적 환경(Technological Environment)이다. 기술적인 혁신이나 비약적인 개선 등의 변화가 비즈니스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부분이 경쟁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함. 즉, IT인프라의 발달에 따라 비용절감, 부가가치 증대 등의 효과로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 등이 해당됨

<그림 17> PEST 분석 틀



□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사업의 발전 방안 도출에 있어 대외환경의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위기 또는 기회요인에 대한 분석과 통찰은 중요한 선결과제임. 한 사회의 보편적 환경변화는 사회와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집단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PEST(Political, Economical, Social, Technological)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표 64〉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PEST 분석 내용

구분	분석내용
<p>정치 환경 (Political Environ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분석 ■ 중앙부처(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문화재 관련 정책/제도 분석 ■ 지방정부(광역시·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조례/규칙 등 분석 ■ 조직 및 사업 관련 법령, 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 등
<p>경제 환경 (Economical Environ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문화재 발굴 및 보존 관련 경제 추이의 변화 ■ 문화재 발굴 및 보존과 관련된 국내 경제의 변화, 산업 환경 변화 추이 등 ■ 문화재 발굴 및 보존과 관련된 자치단체 등의 경제의 변화, 산업 환경 변화 추이 등
<p>사회 환경 (Social Environ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구조의 변화 ■ 사회문화 수준 및 구조(생활 행태, 가치관 등)의 변화 등
<p>기술 환경 (Technological Environ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개발 동향 등

제2절 정치적 환경(Political Environment) 분석



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가. 국정과제

-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20대 국정전략을 설정하고, 국정 전략별로 핵심정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음. 100대 국정과제는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487개 실천과제로 세분류하였으며, 각 실천 과제별로 연차별 이행목표와 이행계획을 설정하였음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전략 중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과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되어 있음. 이 과제의 목표는 생활문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 확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강화임
- 과제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민 기초문화생활 보장 둘째, 국민 문화예술 역량 강화 셋째,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 넷째,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임. 매장문화재조사 공영제 도입으로 연간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지속 확대, 문화재돌봄법(가칭) 제정으로 상시관리 대상 문화재 지속확대, 전통무형문화의 원형보전 강화 및 국민적 향유를 위한 지원 확대, 가야 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임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생활문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 확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강화	
국민 기초문화생활 보장	저소득층에게 연간 6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연차별로 확대하여 '21년부터 10만원 지급
국민 문화예술 역량 강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로 '22년 문화 예술교육 수혜자 수 360만명 달성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	분야별 문화도시 지정을 확대하고, 문화마을 (읍면동 단위 중심) 신규 조성 추진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조사 공영제 도입으로 '22년까지 연간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지속 확대 · 문화재돌봄법(가칭) 제정으로 상시관리 대상 문화재 지속 확대 · 전통무형문화의 원형보전 강화 및 국민적 향유를 위한 지원 확대 · 가야 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 	
문화자원 확대	연차별로 문화분야 재원 적극 확대

나. 문재인정부의 지역 공약 이행방안

□ 지역공약 현황 및 경과

- 구성 :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약은 143개로 구성되어 있음. 17개 시도 공약 130개, 시도 간 상생 공약 13개임
- 유형 : 공약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 1) 지역산업 혁신 2) SOC(교통·지역개발) 3) 공공기관 이전 등 제도 혁신 4) 기관 설치

□ 충남 공약의 발전 비전 및 공약

- 비전 : 충남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 공약
 - 천안·아산 KTX 역세권을 R&D집적지구로 조성
 - 내포 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
 - **백제왕도 유적 복원으로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
 - 논산·계룡 국방산업단지 조성 지원
 - 충남 서해안 해양신산업 육성
 - ‘농촌진흥청’ 산하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과 미래기술융합센터·테스트베드 구축
 - 장항선 복선전철화 및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건설 추진
 - 서산-천안-청주-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추진

□ 시사점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문화분야는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 문화시대”로 전환되었으며 과제 목표로 생활문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 확보,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강화를 제시하고 있음. 이는 보존을 통한 문화유산 향유로 문화재 정책방향의 변화로 볼 수 있음
-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방안에는 17개 시도 공약 130개, 시도 간 상생공약

13개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충남 공약 중 “백제왕도 유적 복원으로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이 선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백제왕도의 조사연구 및 정비 사업의 추진 동력이 확보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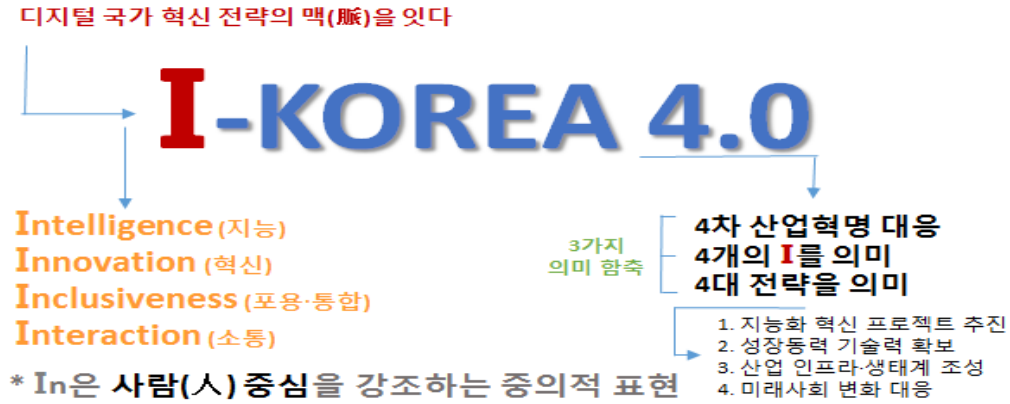
〈표 65〉 시사점

보존을 통한 문화유산 양유로 문화재 정책방향 변화	백제왕도유적 사업 추진 동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유산 조사·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이 일상 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유산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정책적 지원 확보 예산 확보를 통한 다양한 사업 추진 가능 주민이 누리는 문화유산 예산 확보 필요

다.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추진

-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국정전략을 설정하였고, 그 중 하나가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었음. 정부 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함으로써 미래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을 추구함
-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하여 6개 국정과제를 선정하였음. ①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②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및 육성, ③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④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⑤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및 육성, ⑥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이며,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출범하였음
-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세대 이동통신망 상용화, 인공지능 · 사물인터넷 · 빅데이터를 위한 투자 확대 및 활용, 융합인재 육성,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금융지원 강화,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음
- 2017년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이 발표됨. 이는 21개 관개부처가 함께 작업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상정 · 의결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①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②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③ 산업 인프라 생태계 조성, ④ 미래사회 변화 대응으로 향후 4대 분야 전략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산업혁신과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함

<그림 18> 4차 산업혁명 정책 브랜드 I-KOREA 4.0



2) 문화재청 2019년 주요업무계획

- 문화재청은 2019년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 문화재청이 만들어 가겠습니다.”를 비전으로 삼고 4개 목표를 추진하고 있음. 4개 목표는 다음과 같음. ① 안전하고 온전한 문화재 보존 및 전승, ② 누구든 언제나 향유하는 문화유산, ③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 ④ 문화유산 혁신을 통한 미래변화 선도
- 비전과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문화재청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음
 - 국민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문화유산 활용 :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개선하고,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아닌 자랑거리이자 매력적인 장소로 인식될 수 있도록 육성 프로젝트 추진
 - 문화재 주변지역 보호 방식 및 매장문화재 관리방식의 근본적 개선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체계 구축 : 사전 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 환경 조성, 문화재 수리체계 개선
 - 국제사회 역할 확대 : 우리의 우수한 문화재 보존역량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세계유산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세계유산을 등재할 수 있도록 등대신청서 품질제고와 같은 업무 개선

□ 주요업무추진계획

- 고도 등 역사문화도시 보존 및 육성 : 부여 나성 발굴 등 백제왕도 핵심유적 25개소 복원 및 정비 추진(447억원)
- 역사문화권 성격 규명 및 역사문화환경의 통합적·거시적 보존관리 법적근거 마련 추진
-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의 국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도입 및 전환
-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주도형 보존관리체계 시범 운영
- 디지털 콘텐츠 개발 확대 및 온라인 접근성 확대
- 직접 느끼고 만지는 참여형,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 수리 및 발굴 현장 공개
- 생활 문화유산교육 실현 및 민간 참여 활성화
 - 학교연계 문화유산 교육을 통한 차별 없이 교육받는 기회 확대
 -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대상 교육 확대
 - 문화재청 · 교육청 · 방송사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 수준 제고 및 대상학교 확대
 - 문화유산 교육 법제화 추진
 - 민간단체 및 민간기업과 연계한 보호활동 확대
- 우리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과정의 효율 개선
- 세계유산 관리체계 강화 및 활용·홍보 프로그램 개발
- 문화재 국제개발협력 확대
-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확대
- 문화재 관련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전통기술 복원, 전통소재 개발, 4차 산업 문화재 관련 기술 개발
- 소규모 발굴조사 국가지원 범위 확대 및 기간단축 : 연면적 제한 폐지, 제도개선을 통한 발굴대기일 단축
-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의 국가 매입 :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한 보존유적 매입을 통해 국민 불편 경감, 보존유적 지정의 평가 구체화 및 지정사유 공개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국민불편 단계적 완화 :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재조정하고, 규제와 활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계획 도입 추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확대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 추진
-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화재정보 공개 확대 :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문화유산 향유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화, 문화재분야 토지구제정보 공개기간 단축, 문화재 공간정보 공개 확대

비전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 문화재청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3) 문화재 관련법 현황 및 백제왕도 관련법

가. 문화재 관련 법률, 대통령령, 부령 현황

□ 문화재와 관련된 법안 및 대통령령, 부령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백제왕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판단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보고자 함

법률	대통령령	부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보호법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문화재보호기금법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 문화재위원회 규정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 주요 법률 재개정 현황

□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던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수증문화재의 정의, 매장문화재조사기관의 등록 등의 규정을 추가 · 보완하여 법률로 규정하였음. 이를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고 조사하며 관리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 2월 제정되어, 2011년 시행되었음

□ 2014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전액 부담하던 것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이 이루어짐

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2004년 3월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고대국가의 도읍지였던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의 고도는 도시 전체가 문화적 보고임. 하지만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개별적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고도의 포괄적 보호 및 전승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고도의 역사, 문화 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역사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게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됨
- 2012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 개정, 고도 주민의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의매수제도를 신설함. 지정지구 내의 각종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과의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와 지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고도 보존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2015년 고도에 대한 정의를 수정함. 기초조사를 사전 타당성 조사와 기초조사로 구분하고 해당 사무의 주체를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
- 2016년 고도 지정지구 내의 행위 허가에 있어서 행위기준에 부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고도 보존 및 육성 사업의 운영주체를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함. 아울러 규제 재검토 조항을 신설하여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고도 지정지구 내 허가 및 규제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함

라. 백제왕도 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 현황

- 17대 국회, 20대 국회에서 2차례 백제왕도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17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백제왕궁체험도시 복원 ·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임기 만료 폐기되었으며,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소관상임위원회 접수 후 계류 중임

-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백제왕궁체험도시 복원 ·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익산 지역의 백제 유적들을 바탕으로 백제왕궁문화단지 건립 등 백제왕궁체험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음

- 20대 국회에서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음.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백제왕도 핵심유적을 보존 · 관리 · 전승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 그리고 재원확보를 위해서 발의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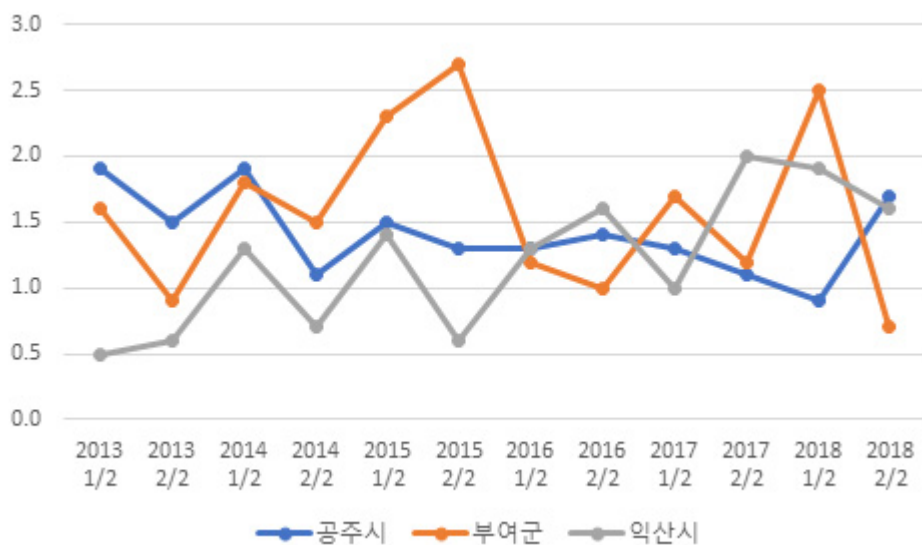
제3절 경제적 환경(Economical Environment) 분석

1) 공주·부여·익산의 경제 상황

가. 수년째 큰 변동이 없는 경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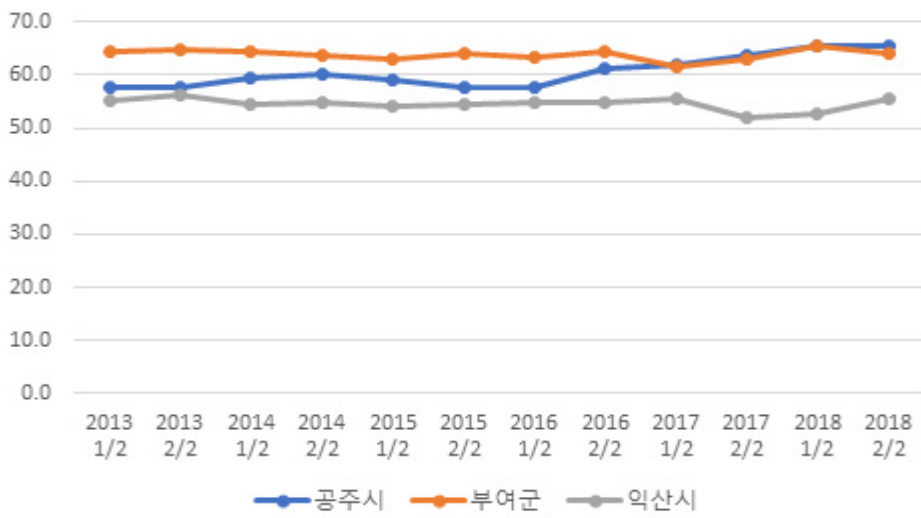
- 현재 공주·부여·익산의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공주·부여·익산 지역의 최근 6년간 경제 상황의 변동이 크지 않았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공주·부여·익산지역의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사업체 수 모두 지난 6년간 변동이 거의 없음
- 변동폭이 가장 큰 편인 실업률을 살펴보면, 2019년 1월 기준 전국 실업률 4.5%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고 있음. 사실상 완전고용에 속하는 수준이며, 전체 지역의 평균은 약 1.4%에 해당함. 특히 변동폭이 큰 편에 속하는 부여군의 실업률은 0.7%에서 2.7%까지 매 분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적은 공주시의 실업률은 약 1.5%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19>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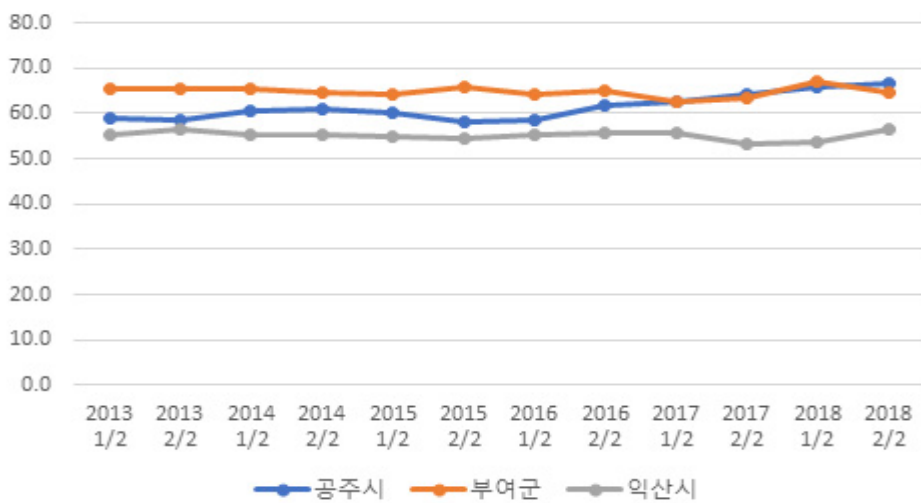
- 2019년 1월 기준 전국 고용률은 59.2%로 공주·부여 지역의 평균 고용률보다 낮은 편이지만, 익산 지역의 평균 고용률보다는 높은 편임. 공주·부여·익산 지역의 고용률 역시 지난 6년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음. 다만 공주시의 경우 지난 6년간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부여군과 익산시와는 다른 모습을 보임

<그림 20>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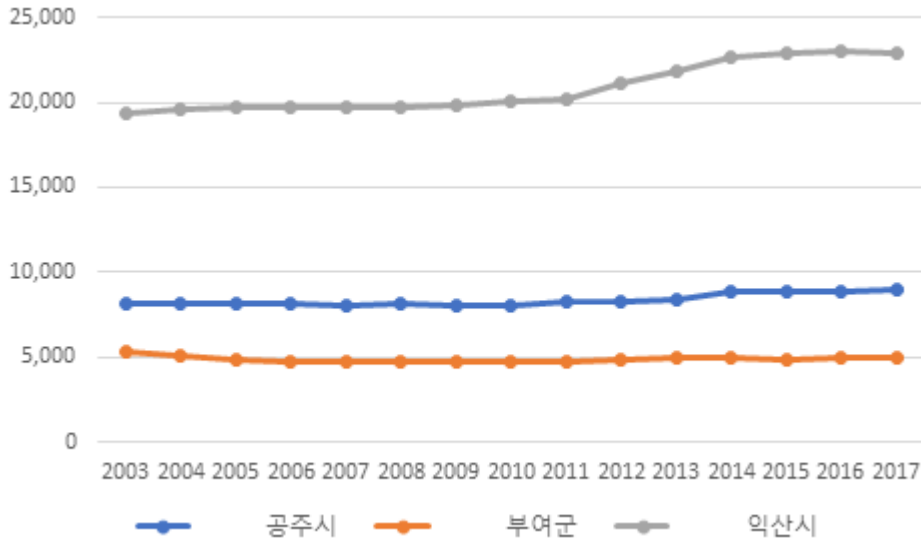
- 2019년 1월 기준 전국 경제활동 참가율은 61.9%로 부여군만 전국 경제활동 참가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다만 공주시의 경우 평균 경제활동 참가율이 61.4%로 전국 경제활동 참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림 21> 경제활동 참가율



- 2019년 1월 기준 공주·부여·익산 지역의 사업체수를 살펴보면, 공주·부여 지역과 달리 익산 지역은 사업체수가 2011년 이후 1,000개 가량의 급격한 사업체 증가가 2차례 있었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기간은 사업체수 변동이 거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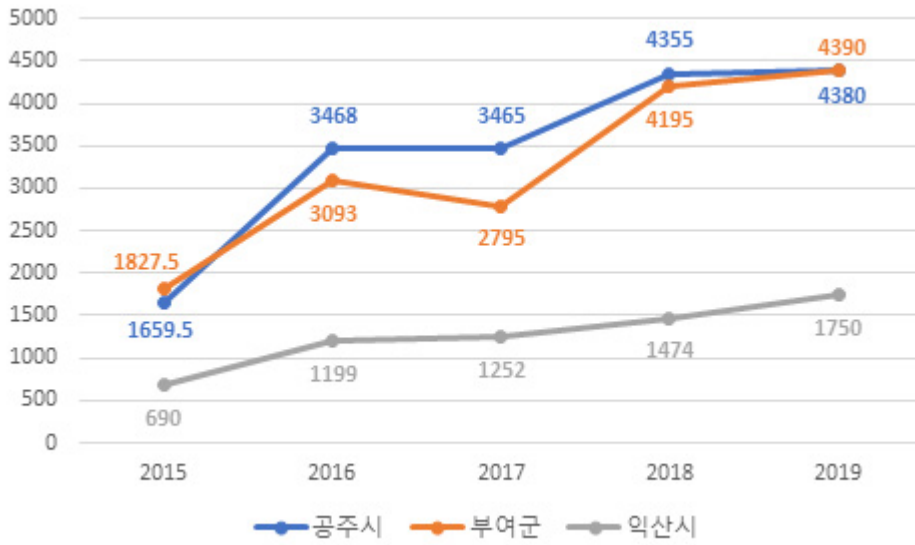
〈그림 22〉 사업체수



나. 지역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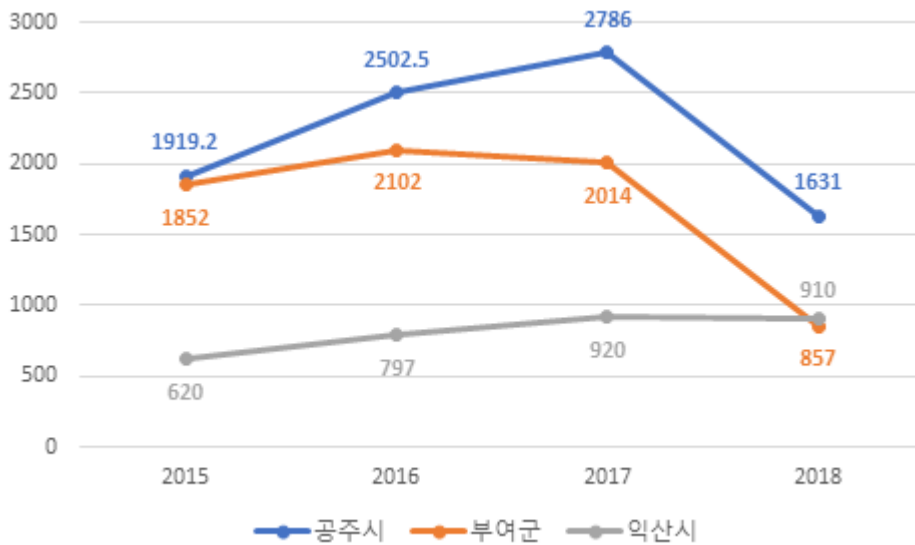
- 공주·부여·익산 지역의 지역경제에 관한 지표로써 지역축제를 활용함. 지역축제의 경제적 효과는 다수의 논문을 통해 확인된 바 있음. 최근 5년간 지역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사용된 예산과 해당 예산이 사용된 기간의 지역축제 방문객을 기준으로 공주·부여·익산 지역의 지역경제 상황을 추정하였음. 참고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공개하고 있는 「지역축제 개최계획」을 기준으로 재정리하였음
- 지역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은 지난 5년간 공주·부여·익산에서 꾸준히 증가해왔음. 2017년에는 다소 예산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였으나, 2018년에 예산이 대거 증가하여 결과적으로는 꾸준히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남

〈그림 23〉 예산(백만원)



□ 지역축제의 방문객 통계는 2015년부터 수집하여 2016년 통계에서부터 공개하고 있으므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4년간 통계만 존재함. 지난 5년간 지역축제 예산이 꾸준히 증가해온 것과 달리, 지역축제 방문객 수는 2017년까지 증가해왔으나, 2018년이 되면서 급격히 하락하였음. 이는 2017년 예산 감소에 따른 부작용으로 보임.

〈그림 24〉 방문객수(천명)



- 2016년까지 증가한 축제예산은 2017년 방문객까지 유인하였으나, 2017년 급격히 줄어들거나 2016년과 대동소이한 수준의 축제예산은 전년도 축제에 만족하고 재방문한 방문객들에게 큰 실망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보임. 이는 2018년 다시 예산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이 큰 폭으로 줄어든 현상에 대한 이유로 보임
- 부여, 공주의 경우 백제문화제를 해마다 개최해오고 있음

2)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경과(충남연구원, 2015)
 - ‘공주 · 부여역사유적지구’, ‘익산역사유적지구’ 잠정목록 등재 : 2010. 1.
 -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설립 : 2012. 5.
 - 등재신청서 작성 : 2012. 7. ~ 2014. 1.
 -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확정 : 2013. 9.
 - 등재신청서 제출 : 2014. 9.
 - ICOMOS 현지 실사 : 2014. 9.
 - ICOMOS 추가자료 요청 및 답변 : 2014. 9. ~ 2015. 4.
 - ICOMOS 평가보고서 당사국 송부(등재권고) : 2015. 5. 4.
 - 세계유산 등재 : 2015. 7. 4.
- 관광객 증가로 발생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충남연구원, 2015)
 - 관광객 수가 20~30%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 29.4만명에서 44.2만명 사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관광객 증가가 충남(공주, 부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관광객 20% 증가시 생산유발효과 286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131~196억원, 고용유발효과 614~920명으로 예상됨. 관광객의 30% 증가할 경우 430억원의 생산유발, 196억원의 부가가치유발, 920명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백제역사유적지구 활성화 방안(충남연구원, 2015)
 - 유적지 주변의 환경정비 사업
 - 관광 편의시설 확충
 - 관광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 외국인 관광객 유치
 - 통합 관광시스템 구축

제4절 사회적 환경(Social Environmen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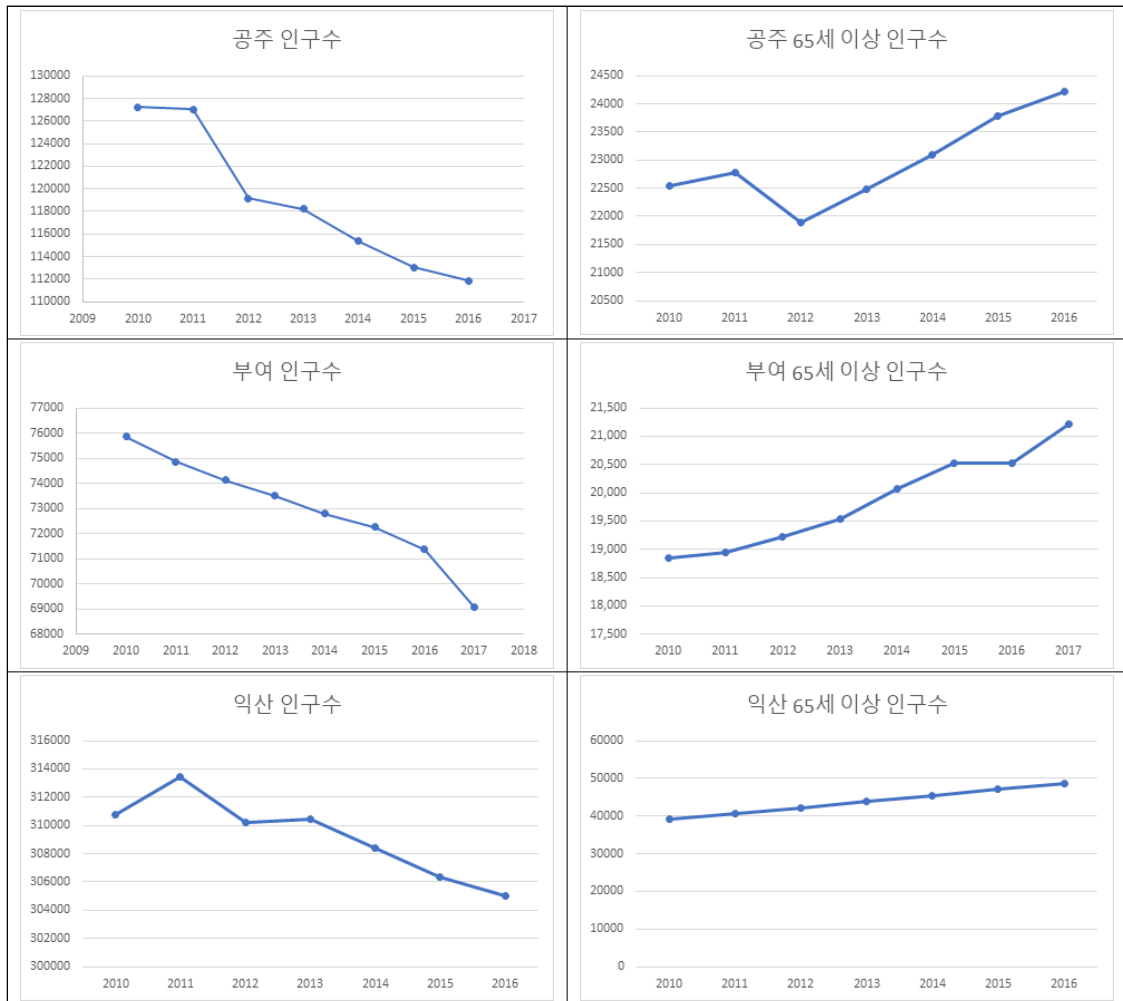


1)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가. 저출산 · 고령사회

- 우리나라는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1.0명 이하로 떨어져 세계최초로 합계출산율 1.0명 이하를 기록한 저출산 국가임. 통계청은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202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7년에는 3,929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발표하였음. 아울러 총부양비가 2017년 37명에서 2067년에는 12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미래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 교육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2004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5년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대응해오고 있음
- 2017년 공주, 부여, 익산의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¹⁾. 전국 평균보다 높은 합계출산율이지만 인구를 유지하는 수준의 출산율은 아니며, 특히 도시로의 인구유출로 인하여 공주, 부여, 익산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는 반대로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구조 자체가 고령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017년 기준 공주1.147, 부여1.086, 익산1.158, 전국1.052



나. 지방소멸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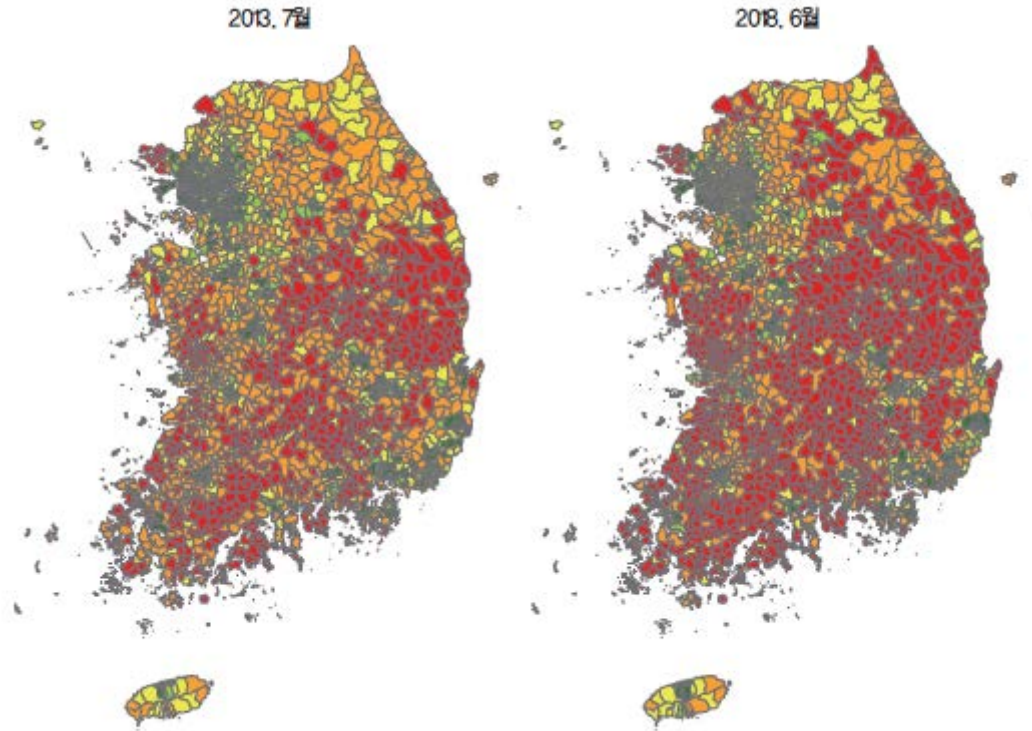
-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한국의 지방소멸과 관련한 연구를 발표하였음.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228개 시군구 및 3,463 읍면동으로 패널화하여 소멸위험지수를 조사함. 소멸위험 지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음

$$\text{소멸위험지수} = \frac{\text{20~39세 여성인구 수}}{\text{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 소멸위험지수 값이 1.0이하 일 경우 사회는 인구학적으로 쇠퇴위험 단계에 진입한 것을 의미하며, 0.5이하로 내려갈 경우 소멸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2018년 6월 전국의 소멸위험지수는 0.91임

- 전국의 소멸위험지수와 별개로 비수도권의 경우 청년인구의 비중이 매우 적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로 인하여 인구감소의 충격이 훨씬 클 수밖에 없음. 아울러 읍면동 단위로 내려갈수록 지방소멸의 위험성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25> 3,462개 읍면동 기준 지방소멸위험 현황



- 백제왕도 3대 핵심유적의 소재지인 공주, 부여, 익산의 소멸위험지수²⁾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구 분	2013년 소멸위험지수	2018년 소멸위험지수
공 주	0.565 주의단계	0.412 소멸위험진입 단계
부 여	0.306 소멸위험진입 단계	0.232 소멸위험진입 단계
익 산	0.873 주의단계	0.672 주의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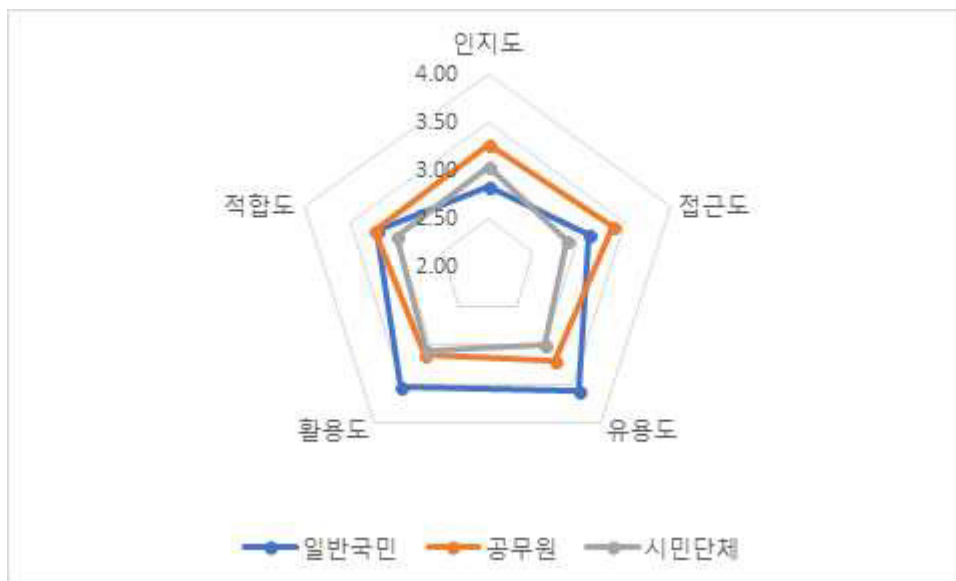
2) 소멸위험 매우 낮음(1.5이상), 소멸위험 보통(1.0~1.5미만), 주의단계(0.5~1.0미만), 소멸위험진입 단계(0.2~0.5미만), 소멸고위험 지역(0.2미만)

- 부여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수 0.232로 소멸위험진입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수가 0.2 미만에 가까워지고 있어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공주의 경우에도 2013년에 주의단계에서 2018년 소멸위험진입 단계로 접어들어 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 익산의 경우 3곳 중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소멸위험지수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 소멸위험진입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됨

2) 문화유산 향유의 시대

가.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 인식

-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제공 수준에 대한 평가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음. 일반 국민(3.25), 공무원(3.23), 시민단체(2.99)



- 특히, 일반국민들은 문화유산의 유용도 및 활용도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했으며, 문화유산 관람을 통해 삶의 여유, 역사에 대한 이해, 교양 및 자부심 증진 등을 느낀다고 답함. 문화유산을 관광상품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 이에 반해서 문화유산의 적합도와 접근도, 인지도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나.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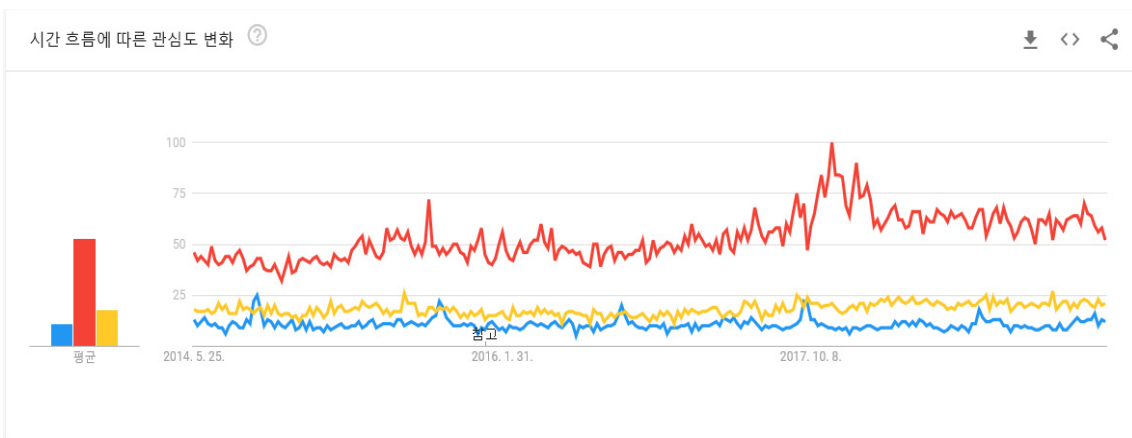
- 문화유산 원형 보존 VS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인식
 - ‘더 많은 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활용’(49.2%)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원형 보존’(43.2%)에 비해서 높았음
 - 또한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76.7%)는 의견이 ‘지역 개발의 걸림돌’이라는 의견보다 많았음

- 문화유산 향유 실태
 - 2018년 1년간 국민의 57.2%가 문화유산 향유 경험이 있음. 유형문화유적 방문 40.2%, 무형문화재 공연 및 전시 관람 9.0%, 자연유산 방문 40.4%로 나타났으며, 평균 관람 횟수는 유형 2.28회, 무형 1.65회, 자연 2.26회임
 - 문화유산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문화유산의 지명도’였으며, 다음으로 교통편의성, 접근성의 순서였음
 - 관람하고 싶은 문화유산 프로그램은 첫 번째 ‘축제와 함께 즐기는 문화유산 프로그램’, 다음으로 ‘참여/체험형’, 교육형이었음(유형유산 기준)
 - 76.6%에 달하는 국민이 문화유산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선택하였으나,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2.6%에 불과하였음. 아울러 ‘테마형 현장답사’와 같은 체험형 교육을 선호함. 실행 방안으로 ‘교과연계를 통한 학생 교육 프로그램’, ‘역사를 현장에서 배우는 프로그램’, ‘문화유산 디지털 교육’, ‘평생학습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음(문화재청, 2018)

3) 백제 문화권에 대한 관심도 : 구글트렌드 분석

□ 신라, 가야, 백제에 대한 관심 정도를 구글트렌드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백제는 신라와는 큰 차이가 있었고, 가야와는 신라와의 차이만큼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관심도가 더 낮음을 알 수 있음

○ 빨간색 : 신라, 백제 : 파란색, 가야 : 노란색



4) 교육환경의 변화

가. 2015년 개정교육과정

□ 2015년 교육과정이 개정되었음. 기존의 문과, 이과로 구분되었던 교육과정에서 인문 · 사회 · 과학기술을 두루 익힌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과 학습량 조정, 교수 · 학습 방법 제시, 과목 선택권 강화 등의 변경 내용을 담고 있음

□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은 ① 자기관리 역량, ② 지식정보처리 역량, ③ 창의적 사고 역량, ④ 심미적 감성 역량, ⑤ 의사소통 역량, ⑥ 공동체 역량과 같은 핵심역량을 키워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해당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지역사 교육 수요 증가

- 지역사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제5차 교육과정부터였음. 하지만 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권이 현장에 주어지지 않아 지역사 교육이 현장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 제6차 교육과정에서 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권을 현장에 부여하여 지역사 교육이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 지역 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지역교육청에서도 지역사 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사 교과서 편찬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순한 교과서가 아닌 지역사 VR 시범자료 제작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교과서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음. 아울러 지역사 교과서를 제작한 교육청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강원도, 세종시, 경남 진주, 경남 창원, 경남 김해 교육청임

제5절 기술적 환경(Technological Environment) 분석



1) 위성고고학(Space Archaeology)

- 위성고고학은 인공위성과 우주선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탄생한 고고학 분야이고 우주 고고학 또는 위성 원격탐사라고도 불림. 앨라배마대학교 세라 파켈 교수가 이 분야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음
- 위성을 통해 얻은 지도를 적외선 처리 등을 통해 가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유적의 배치를 파악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발굴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할 수 있음
- 위성고고학은 세라 파켈 교수와 연구팀이 이집트의 이치타위(Itchitawy)라는 고대 이집트 도시를 찾는데 활용되기도 하였음. 정글 한가운데에 위치한 마야 유적지, 페루 나스카강 바닥의 피라미드와 거대한 거주지 유적, 페트라의 새로운 유적터 등이 위성 고고학을 통해 발견되었음

2)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기술

가. 5세대 이동통신망(5G)

- 4차 산업혁명에 있어 중요한 ICT 중 하나가 5G이며, 이는 초연결 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어 핵심이 되는 기술임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자율주행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프라이며, 이미 주요국과 관련 기업들이 관련 장비의 개발, 통신망 구축 등 5G 서비스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그림 26〉 글로벌 5G 개발 상황 및 전망



나. 빅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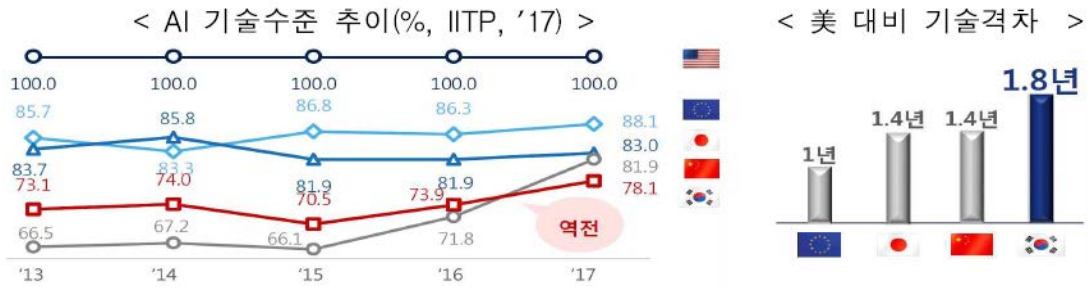
- 빅데이터란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와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 정보 자산으로서 데이터의 양, 속도, 다양성에서 큰 차이를 가짐.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데이터에 비해서 그 양이 거대하고 실시간으로 생산되며 구조화되지 않음
-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ICT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자율주행 등은 모두 빅데이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이러한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관리하기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이 사용되며, 이를 통해 빅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변화를 예측하는 형태의 기술로 발전하고 있음

다. 인공지능(AI)

-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적능력의 일부 혹은 전부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1차 산업혁명의 증기기관처럼 4차 산업혁명 촉발의 핵심 동력원임
- 기존의 기술이 설계자가 직접 설계하여 구현하는 방식이었던데 비해서,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반복학습하는 형태로서 이세돌 9단과 바둑대결을 펼친 알파고의 딥러닝 기법을 그 예로 들 수 있음
- 아울러 인공지능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량의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학습해야함에 따라 클라우드와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임

-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은 현재 도입단계를 넘어 상용화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최고 기술 수준에 비하여 78.1%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 대비 1.8년의 기술격차가 있음

<그림 27> I-KOREA 4.0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AI) R&D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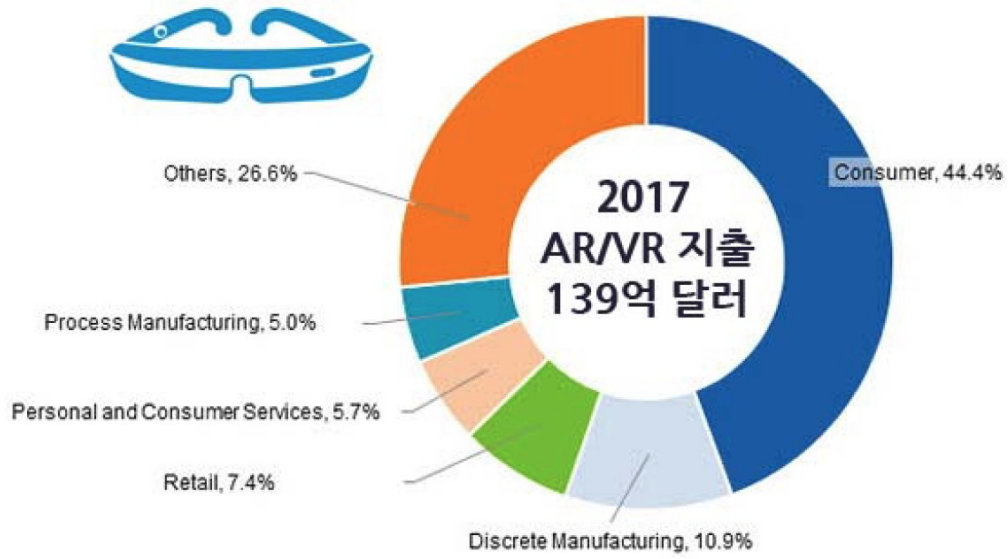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

라. 가상 및 증강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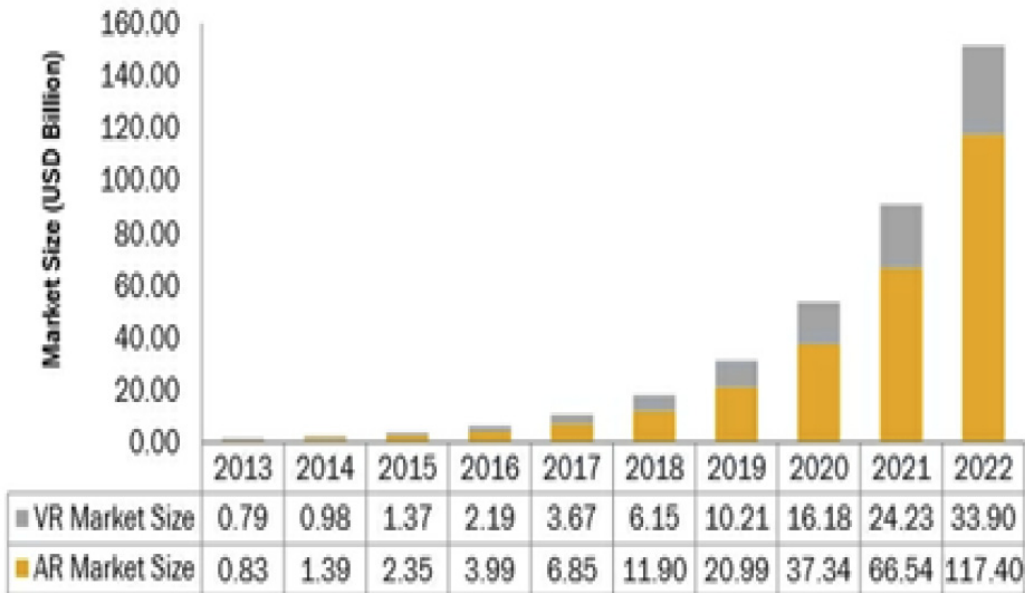
- 가상·증강현실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를 합한 지출액은 2016년 61억 달러에서 2017년 139억 달러, 2020년에는 1,44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2020년에는 2016년의 20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가상·증강현실 시장은 현재 가상현실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2018년 이후부터는 증강현실이 성장을 주도하여, 2020년에는 증강현실 시장이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8> 가상·증강현실 HW,SW 및 관련 서비스 지출 전망(IDC Japan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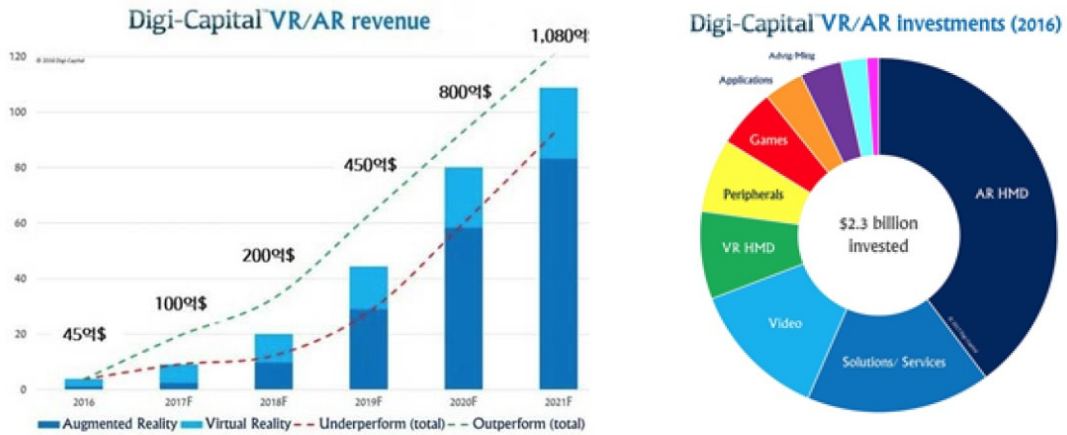
* 출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주간기술동향 1803호

<그림 29> 전세계 가상·증강현실 시장 전망(2013~2022)



* 출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주간기술동향 1803호

<그림 30> 가상·증강현실(VR/AR)시장 규모 및 투자 현황(2016)



<자료> Digi-Capital 2017. 2.

* 출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주간기술동향 1803호

<표 66> 증강현실(AR) 산업별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CAGR
AR 하드웨어	640	6,000	16,500	29,900	260.2%
AR 커머스	140	1,060	4,500	11,700	337.2%
AR 영화/TV	-	500	1,800	4,400	196.6%
산업용 AR	-	200	1,100	3,500	318.3%
AR 광고마케팅	-	200	600	1,700	191.5%
AR 테마파크	200	300	800	1,600	100%
AR 게임	-	200	600	1,400	164.6%
기타	100	1,370	5,300	13,400	411.7%
합계	1,080	9,830	31,200	67,600	297%

<자료> Digi-Capital, 2015.

* 출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주간기술동향 1803호

- 4차 산업혁명으로 각종 첨단 기술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관련 시장에 대한 전망도 매우 긍정적인 편이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보가 아직도 부족한 편이며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 중 가상·증강현실 기술이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음. 가상·증강현실 기술과 관련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매우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 문화재 관련 분야의 가상현실·증강현실 기술 활용을 통한 문화재 활용은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권(right to access)과 문화향유권을 증진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문화재 접근성 제고로 문화유산의 활용성 강화할 수 있음

마. 3D 프린팅

- 3D 프린팅은 3차원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유의 소재를 층층이 쌓아 입체 형태의 제품을 제작하는 기술로서,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3D 프린터의 활용성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3D 프린팅 기술은 주로 산업분야에서 시제품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개인이 소유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등 기술의 활용성이 증대되고 있음
- 3D 프린터는 문화유산 보존처리에 있어 손상된 국가유산의 수명을 연장하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높은 활용 가능성을 갖고 있음. 특히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보존처리과정을 3D프린터를 이용하여 컴퓨터상에서 구현된 입체 형상 데이터를 실물로 출력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3D 프린터를 사용할 경우 문화유산의 결손 부분을 데이터로 구축한 다음 출력하여 결손 부분을 손쉽게 성형 및 가공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반복적인 출력과 디지털 데이터의 형태 및 수치 조정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여러 가지 복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이해순·위광철, 2015)

3) 문화재 관련 기술 개발 및 도입

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안전관리

-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안전시스템 현장 적용 : 산간과 같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재에 우선 적용(3개소→32개소)
- 문화재 방재정보 통합시스템을 통해 문화재 안전관리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 현장 맞춤형 대응관리
- 드론을 활용하여 문화재 방재력 향상 추진

나. 문화재 관련 각종 기술개발 및 연구 현황

- 고고분야 : 시굴조사시 유적이나 유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하물리탐사(GPR)를 통해 발굴조사 면적 전체에 대한 유구양상을 측정함. 아울러 GPS 측량을 통해 도면으로 이미지화함
- 전통건축 수리 및 복원 정비 기법 : 조사연구를 통해 얻은 양식, 기법 등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문화재를 실제 수리, 복원, 정비하는데 필요한 기술연구를 실시하고 있음. 감은사지 삼층석탑, 불국사 다보탑, 불국사 삼층석탑, 미륵사지 석탑 등을 수리 · 복원하는데 이용되었으며, 정림사지, 활용사지, 미륵사지 복원정비에도 쓰이고 있음
- 문화재의 과학적 분석, 문화유산 융복합 연구 : 문화재의 재질을 분석하여 제작당시의 원료, 성분, 제작기법 산지 등을 추정하는데 활용되고 있고, 문화재 손상원인, 유물의 제작기술과 기법을 규명하여 원형을 영구적으로 보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복원 재료 및 기술 개발 : 전통 단청안료 제조기술 복원, 전통한지 제작기술 규명, 문화재 복원용 석회 품질개선, 문화재 접착재료 안정성 평가 기법 개발, 금속문화재 안정화 방안 등 보존 · 복원에 필요한 재료와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다. 문화유산 관련 데이터 개방

- 3D 프린팅 데이터 개방: 국가문화유산 포털을 통해 문화유산 3D 프린팅 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하였음. 창덕궁, 임신서기석, 성덕대왕신종 등 186건 1,196점의 자료를 개방하였으며, 3D 프린팅 · 모델링 · 영상 · 스캔 원본 등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음
- 개별적,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문화유산 향유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민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추진
- 문화재분야 토지구제정보 공개기간 단축, 문화재 공간정보 공개 확대

제 4 장

비전 및 전략수립



제1절 SWOT 분석



1 SWOT 요인 도출

1) 강점 (Strength) 요인

- 환경변화 분석 중 백제역사문화권 특성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범주화하여 강점 요인을 도출함
- 첫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1980년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익산 미륵사지 발굴조사단」 구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약 40여년 간의 백제 연구로 백제문화유산의 다양한 기초자료가 축적되어 있음. 또한, 백제역사문화권 조사 연구는 국가기관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의 지속적인 수행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둘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국립기관이며, 백제역사문화에 대해 장기간 수행해 온 경험 및 백제 관련 자료 접근성에 기초하여 연구활성화 기반이 구축되어 있음
- 셋째, 백제유적 발굴조사 사업 및 정비 사업에 대한 추진체계를 확보하고 있으며, 백제 연구자에 대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음
- 넷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백제 관련 융복합 연구 경험을 통한 학제간 연구기반이 확보되어 있음
 - 2012년 백제시대의 자연환경 복원과 백제문화권 유적의 입지분석(공주대학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백제왕도 관련 역사자원이 풍부하며, 이를 통한 관련 지방자치단에서는 지역 축제가 활성화되어 운영 중에 있음
 - 백제문화재(2019년 9월 28일 ~ 10월 6일) 주최 :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2) 약점(Weakness) 요인

-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내부 약점 요인들과 관련된 시사점들을 범주화하여 도출함
- 첫째, 백제왕도 핵심유적은 공주 6개, 부여 12개, 익산 8개로 총 26개의 유적이 존재함. 이 중 9개 유적은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음. 이 중 부여소에서 관리하는 유적은 송산리고분군, 관북리 유적, 왕궁리 유적 3개 소임. 이에 비해 연구인력은 부족한 실정임
- 둘째, 융복합 연구 기반은 확보되어 있는 반면 조사·연구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미흡함. 예산 부족 및 관련 융복합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함
- 셋째, 2019년 ‘백제 문화재 그리기’ 대회를 실시하였으나 시민 참여 및 연구결과 활용 프로그램은 아직 미흡함.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이를 향유하는 국민 입장에서 정책을 수행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
- 넷째, 유적 보존 및 정비를 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보존 및 정비임. 하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보존 및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획이 부족함
- 다섯째, 백제왕도 핵심유적과 관련하여 현재 주민이 거주하는 곳이 있음. 과거의 기록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기록도 중요함.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음

3) 기회(Opportunity)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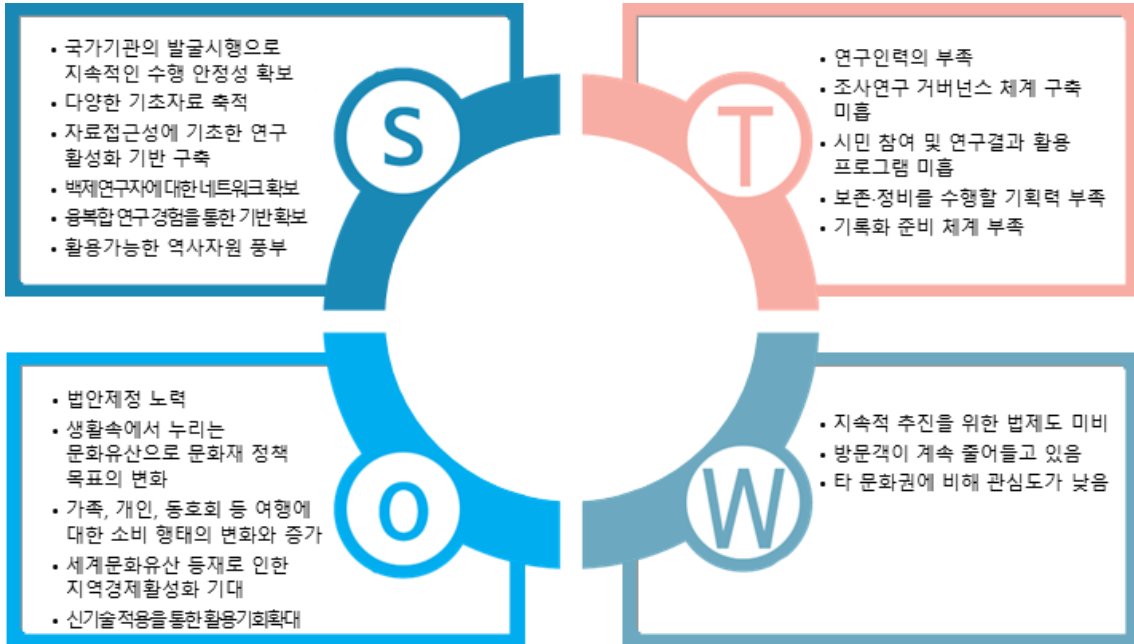
- 외부 환경에 대한 시사점 중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범주화하여 도출함
- 첫째, 백제왕도 관련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 현재 20대 국회에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통과 시 백제왕도 핵심유적을 보존·관리·전승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 그리고 재원확보가 될 수 있음

- 둘째, 생활 속에서 누리는 문화유산으로 문화재 정책 목표가 변화되고 있음. 이는 문화유산의 원형보존에서 활용, 활용에서 향유로 전화되는 것을 의미함. 문화유산 자체에서 향유하는 국민으로 정책 대상이 전화된다는 것을 의미함
- 셋째, 공간 계획적 관리로 문화재 보존정책의 변화하고 있음 문화재 한 점(點) 단위 관리 정책에서 선(線), 면(面), 공간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시각에서 관리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음
- 넷째, 가족, 개인, 동호회 등 여행에 대한 소비 행태의 변화와 증가가 나타나고 있음.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여가활용 시간 및 비용의 확대가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문화유산 향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 이는 문화유산에 대한 관광·교육 콘텐츠 개발 요구가 증가되어 문화유산 서비스 차원에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다섯째,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한 관광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음
- 여섯째, 신기술 적용을 통한 백제역사문화 조사·연구 자료의 생산, 축적, 활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가 형성됨으로써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4) 위협(Threat) 요인

-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시사점 중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범주화하고 도출함
- 첫째, 백제역사문화 조사·연구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가 미흡함.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동력을 위해서는 법제도 마련이 필수임
- 둘째, 지역축제를 위한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2018년 예산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음. 축제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고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 등이 필요함
- 셋째, 백제 문화권에 대한 관심도가 낮음. 신라와 가야에 비해 관심도가 낮음 편임. 국민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그림 31> SWOT Mat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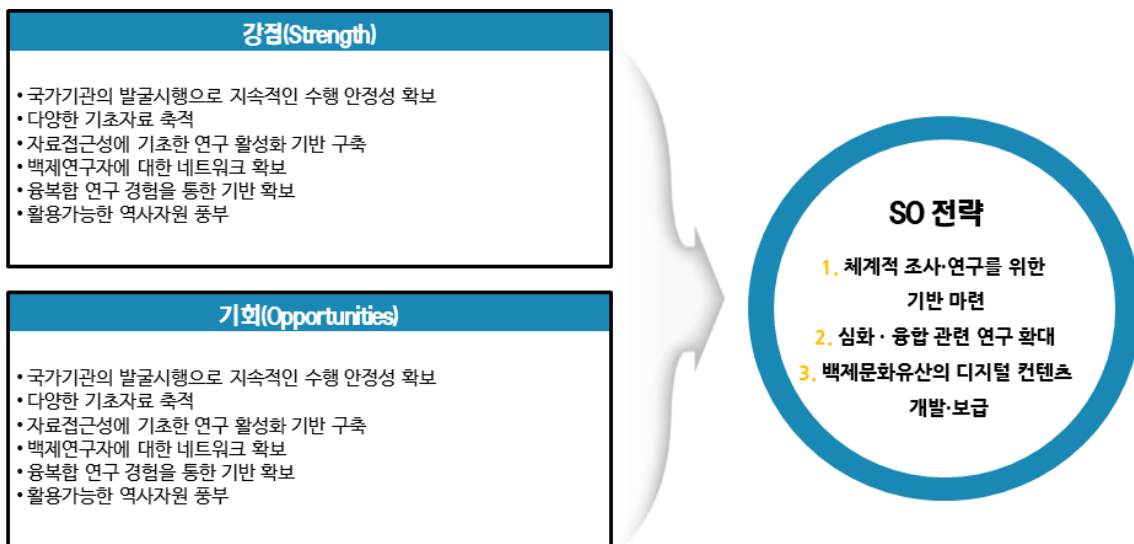


2 SWOT Matrix

1) SO 전략

- SWOT 요인 중 강점과 기회요인을 종합하여 SO전략을 도출함. 첫째,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위한 기반 마련 둘째, 심화·융합 관련 연구 확대 셋째, 백제문화유산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보급으로 도출함
-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기반 마련은 중장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백제왕도 핵심 유적의 조사·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는 과제임
- 심화·융합 관련 연구 확대는 3대 핵심 유적별 심화 연구와 융합 연구를 수행하는 과제임
- 백제문화유산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보급은 백제의 유적과 유물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화하여 개발·서비스 하는 과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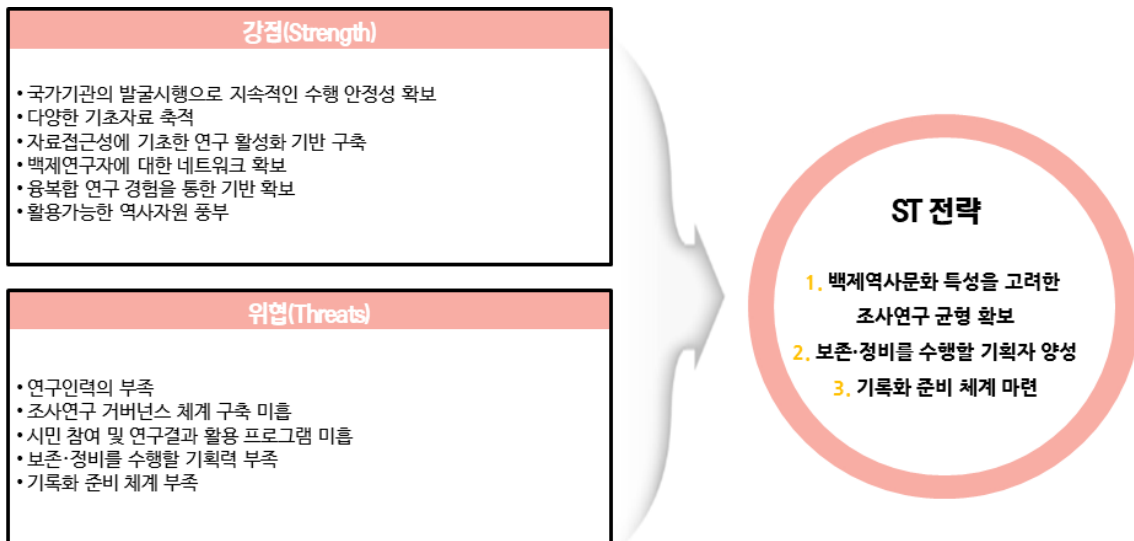
<그림 32> SO 전략



2) ST 전략

- SWOT 요인 중 강점과 위협요인을 종합하여 ST전략을 도출함. 첫째, 백제역사문화 특성을 고려한 조사 연구 균형 확보 둘째, 보존·정비를 수행할 기획자 양성 셋째, 기록화 준비체계 마련으로 도출함
- 백제역사문화 특성을 고려한 조사연구 균형 확보는 백제 고분, 왕궁에 대한 조사 뿐만이 아니라 생산시설, 사원, 관문지역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조사·연구의 균형을 확보하는 과제임
- 보존·정비를 수행할 기획자 양성은 유적 보존 및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다양한 관점에서 보존 및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획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전문 기획자를 양성하는 과제임
- 기록화 준비 체계는 현재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토지 보상이 완료되고 현재 주민의 생활상이 사라질 경우를 대비하는 사업임. 과거의 기록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기록도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인 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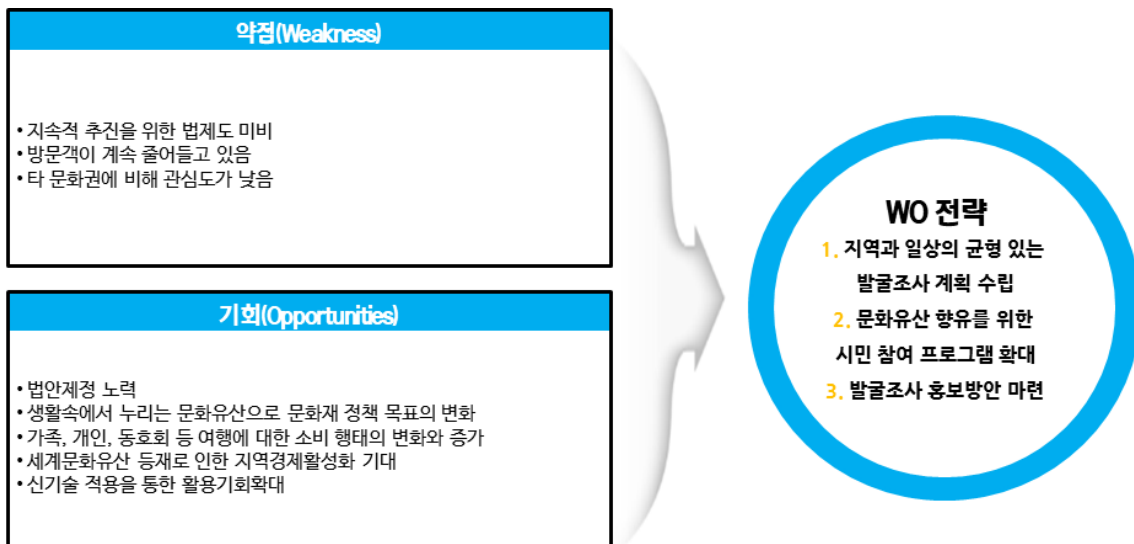
〈그림 33〉 ST 전략



3) WO 전략

- SWOT 요인 중 약점과 기회요인을 종합하여 WO전략을 도출함. 첫째, 지역과 일상의 균형있는 발굴조사 계획 수립 둘째, 문화유산 향유를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셋째, 발굴조사 홍보 방안 마련으로 도출함
- 지역과 일상의 균형 있는 발굴조사 계획의 수립은 백제왕도 3대 핵심유적 관련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과제임
- 문화유산 향유를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는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일상에서 접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과제임
- 발굴조사 홍보 방안 마련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까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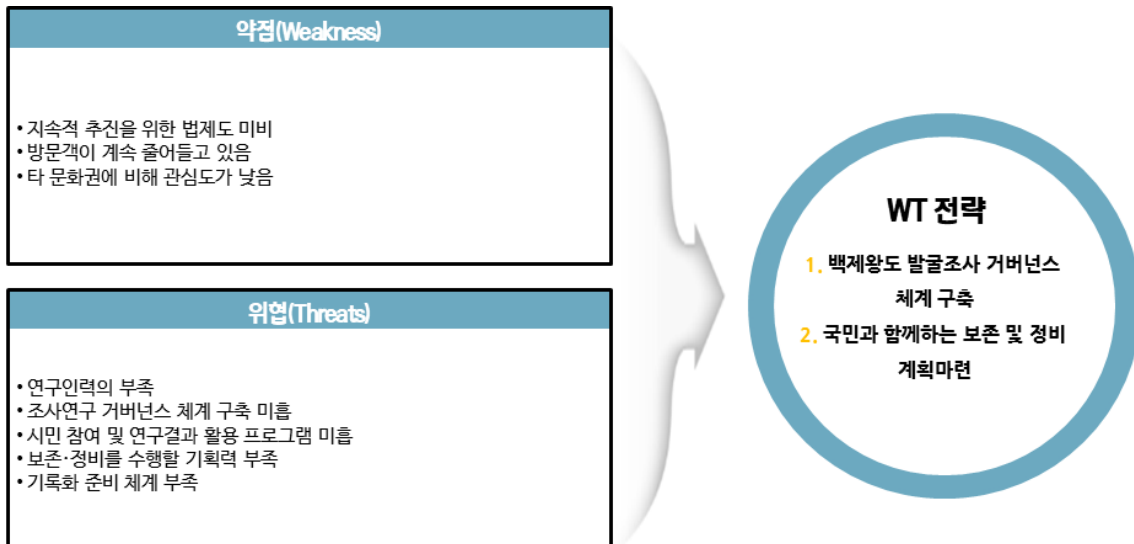
<그림 34> WO 전략



4) WT 전략

- SWOT 요인 중 약점과 위협요인을 종합하여 WT전략을 도출하였다. 첫째, 백제왕도 발굴조사 거버넌스 체계 구축 둘째, 국민과 함께하는 보존 및 정비 계획 마련으로 도출함
- 백제왕도 3대 핵심유적 조사·연구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백제왕도 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교육청이 백제역사문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과제임
- 국민과 함께하는 보존 및 정비 계획 마련은 세계유산 등재에 걸맞는 정비 계획 마련 시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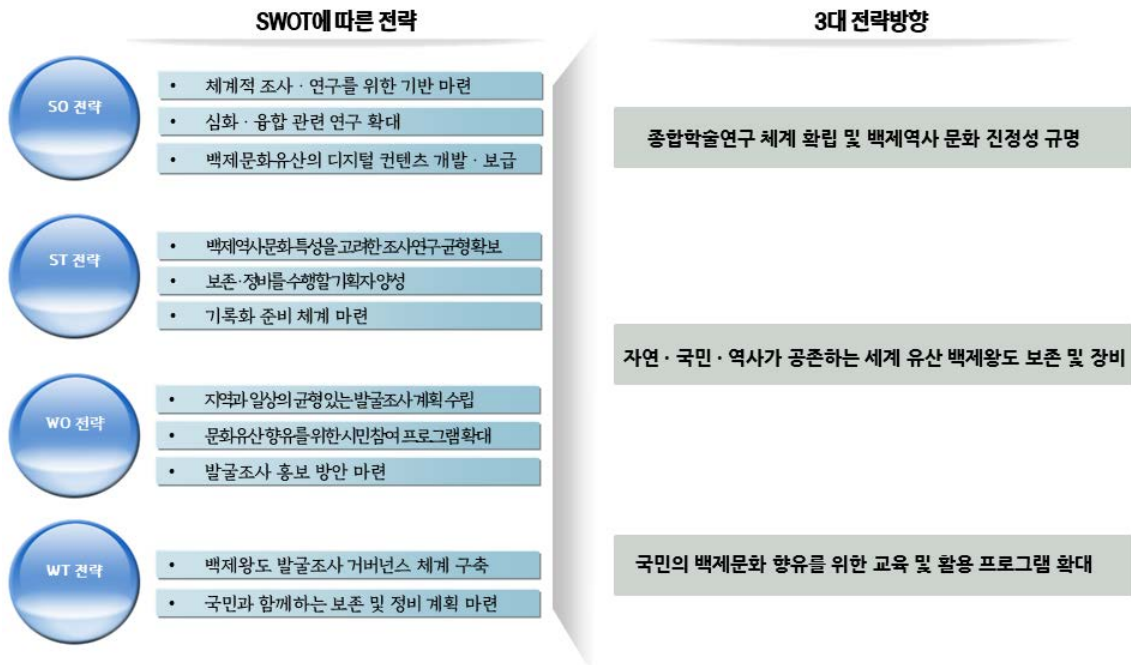
<그림 35> WT 전략



5) 전략수립 방향 도출

- SWOT 요인에 따른 전략을 통해 전략방향을 도출함. 첫째, 종합학술연구 체계 확립 및 백제역사 문화 진정성 규명 둘째, 자연·국민·역사가 공존하는 세계 유산 백제왕도 보존 및 정비 셋째, 국민의 백제문화 향유를 위한 교육 및 활용 프로그램 확대임
- 전략방향 도출 Map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36> 전략 방안 도출 Map



제2절 미션 및 비전 수립



1 미션 수립

- 가치체계는 조직의 설립목적, 미션, 비전, 핵심가치, 운영목표, 전략목표, 전략과제로 정렬(Alignment)되는 체계를 의미하며, 조직운영의 프레임(Frame)임
- 새로운 정부의 문화유산 관련된 국정 전략은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임. 국민의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문화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며, 문화행정체계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 문화 분야의 재정기반 확충과 매개인력 일자리 확대로 문화 분야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전략임
-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전략 중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련된 과제는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임. 이 과제는 생활문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 확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문화유산 보존·활용을 강화하고자 함
-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문화유산의 보존에 있어 최우선 과제임. 따라서 백제문화권 조사·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국민이 차별 없이 문화적 향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존 및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 함
- ‘백제왕도 핵심유적’은 오늘날 공주, 부여, 익산 등에 자리 잡은 백제 후기(475년~660년)를 대표하는 26개 유적을 말하는데, 문화재청은 유적의 성격, 고증자료 확보, 활용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백제왕도 핵심유적을 선정하였으며, 특히 이 중 9개 유적(‘백제역사유적지구’)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5년 7월 8일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음
- 세계문화유산 등재정책에 따르면, 문화유산은 가치평가기준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재질이나 기법 등에서 유산이 진정성(authenticity)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 문화유산의 진정성은 재질, 기법 등에서 본래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모든 문화유산은 진정성이 필요함

- 백제왕도 3대 핵심유적 종합학술연구의 미션은 새로운 정부의 비전과 국정과제의 문화분야 내용을 반영하고, 세계문화유산의 진정성 확보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음. 미션은 “백제왕도 진정성 확립을 통한 국민 문화유산 향유 확대”로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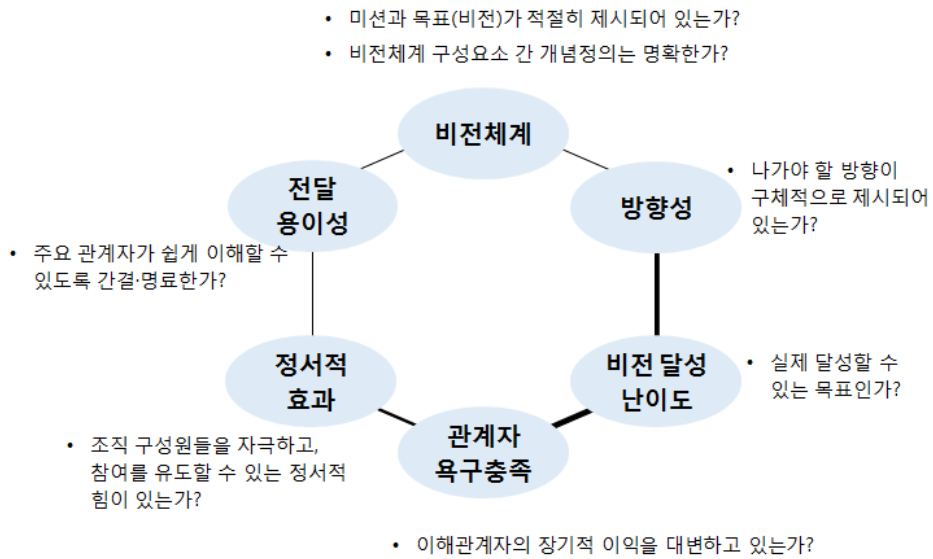
<표 67> 미션

Mission	백제왕도 진정성 확립을 통한 국민 문화유산 향유 확대
미션 의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정성 : 해당 유산의 본질 및 기원(유래)을 증명할 수 조사 2. 국민 문화유산 향유 확대 : 백제유적을 통해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적 향유권 확보

2 비전 수립

- 비전은 미래의 일정 시점에 달성되고자 하는 이상향으로 첫째, 미래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관련자들이 공유하기에 충분해야 함. 둘째, 구체적이며 명확하여 공동의 가치관에 호소해야 함. 셋째, 모두에게 의미가 있으며 감동적이어야 함
- 백제왕도 3대 핵심유적 종합학술연구 마스터플랜의 비전은 백제문화권의 발굴조사 결과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의 의미가 분명하게 도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세부 전략 및 개별 단위의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바람직한 비전의 기능 및 갖추어야 할 요건을 고려하여 비전체계 구조, 방향성, 달성 난이도, 이해관계자 이해 대변, 정서적 효과 및 전달 용이성을 비전체계 검토기준으로 확정함

〈그림 37〉 비전체계 적합성 검토



- 정부의 비전과 국정과제의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라는 문화 분야 내용을 반영하였음. 생활문화시대는 삶과 일의 균형을 의미하며, 이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의 여가 시간과 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일상에서 문화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의미함
- 생활문화시대의 한 축으로 문화유산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백제문화권 조사·연구의 비전으로 의미를 포함시킴
- 시민들이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하여 조사·연구의 성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누릴 수 있도록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생활문화시대를 실현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을 목표로 함

<표 68>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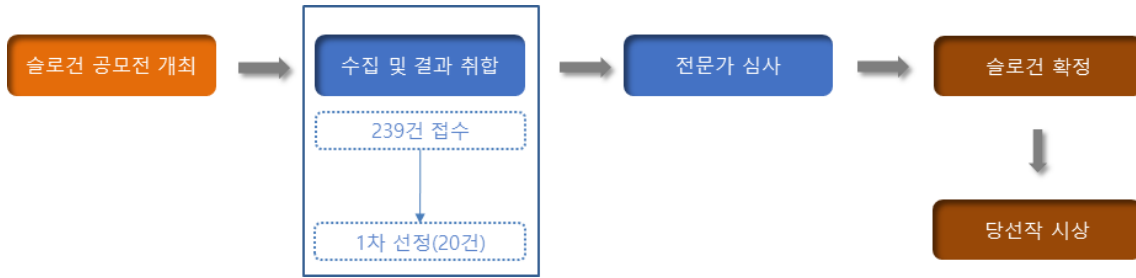
Mission	함께하는 백제왕도 복원, 국민을 즐겁게 하는 백제 문화
비전 의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함께하는 : 개방과 공유를 통해 국민 참여 유도 2. 복원 : 백제왕도 3대 핵심유적 복원을 통해 백제사 복원 3. 국민을 즐겁게 : 조사연구 및 복원·정비의 성과를 일상에 공개하고 향유를 통해 즐겁게 한다는 의지 표현

3 슬로건 및 핵심가치

1) 슬로건

- 슬로건은 브랜드 이름을 기억하고 부각시켜 인지들 돕고 기관의 이미지를 창출해 연속성 있게 이미지를 이어가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함. 이러한 슬로건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고안된, 브랜드 개성을 설명하는 간결한 문구로 정의됨. 결국 고객에게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것임
- 이에 본 용역에서는 국민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게 찾아갈 수 있는 슬로건을 직접 요청함으로써 그 효과를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함
- 슬로건은 공모전을 통해 선정하였음. 미션, 비전의 가치에 부합하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통해 함께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림 38> 슬로건 선정 프로세스



□ 국민 참여를 통해 선정된 슬로건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69> 비전

슬로건	백제를 품多, 문화를 잇多, 미래를 열多
슬로건 의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多 : 발굴을 통해 백제의 역사를 조사·연구한다는 의미 2. 잇多 :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존 및 정비를 통해 잇는다는 의미 3. 열多 : 교육 및 활용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다가 간다는 의미

2) 핵심가치

- 백제왕도 3대 핵심유적 종합학술연구 마스터플랜의 핵심가치는 품고(종합학술연구), 잇고(보존 및 정비), 열고(교육 및 활용)으로 설정함
- 핵심가치는 슬로건의 의미를 받아들여 선정함. 품고는 종합학술연구, 잇고는 보존 및 정비, 열고는 교육 및 활용을 의미함

<그림 39> 핵심가치



제3절 전략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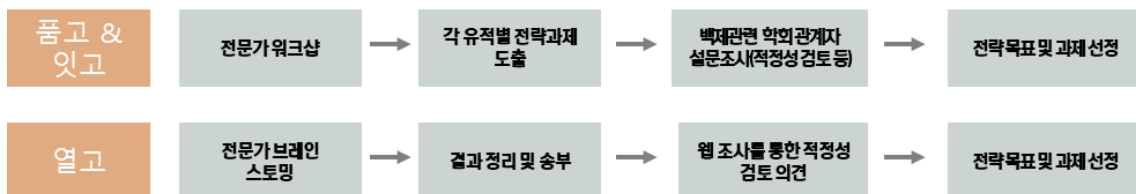


1 전략목표

1) 전략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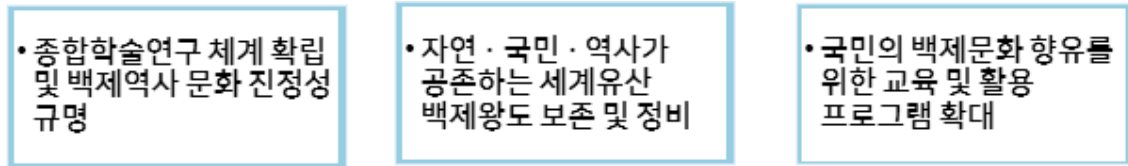
- 환경변화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전략적 시사점과 슬로건을 토대로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를 설정함. 백제왕도 3대 핵심유적 조사·연구의 전략목표는 종합학술연구 체계 확립 및 백제역사 문화 진정성 규명, 자연·국민·역사가 공존하는 세계 유산 백제왕도 보존 및 장비, 국민의 백제문화 향유를 위한 교육 및 활용 프로그램 확대로 선정함
- 또한, 전략 목표를 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적정성 및 수정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정함
- 종합학술연구와 보존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수립하였고, 열고는 교육청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하여 구체화하였음
- 종합학술연구와 보존 및 정비는 전문가 워크샵 → 각 유적별 전략과제 도출 → 백제 관련 학회 관계자 설문조사(적정성 검토 등) → 전략 목표 및 과제 선정의 절차로 이루어짐
- 교육 및 활용은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 결과 정리 및 송부 → 웹조사를 통한 적정성 검토 의견 수렴 → 전략목표 및 과제 선정의 단계로 이루어짐

〈그림 40〉 전문가 검증을 통한 전략 과제 도출 프로세스



□ 최종 도출된 전략 목표는 아래의 표와 같음

<그림 41> 전략 목표



2) 전략별 세부내용

(1) 전략 목표 1 : 종합학술연구 체계 확립 및 백제역사 문화 진정성 규명

- 해당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백제왕도 3대 핵심 유적 별 전략 목표를 설정함.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경우 “백제 왕실의 장례 및 능원 제도 복원”으로 설정함.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약 66.6%로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세부 전략 목표로 설정함
- 부여 관북리 유적의 경우 “백제 사비왕궁의 역사적 진정성 회복”으로 수립함. 이에 대하여 57.2%로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세부 전략 목표로 설정함
- 익산 왕궁리 유적의 경우 “ 백제역사유적지구 익산의 역사문화적 가치 창출”로 설정함.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66.7%로 동의하여 세부 전략 목표로 설정함

<표 70> 전략목표 1의 세부 전략 목표

전략목표 1	<p>송산리 : 백제 왕실의 장례 및 능원 제도 복원</p> <p>관북리 : 백제 사비왕궁의 역사적 진정성 회복</p> <p>왕궁리 : 백제역사유적지구 익산의 역사문화적 가치 창출</p>
---------------	---

(2) 전략 목표 2 : 자연·국민·역사가 공존하는 세계유산 백제왕도 보존 및 정비

-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민 중심의 보존·정비 방향 수립”을 설정함. 이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전시디자인 제도의 필요성이 71.1%로 조사되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해당 목표를 제시함

- “백제시대 모습 재현을 위한 연구 확대”를 제시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복원은 역사 공원화 하여야 하고 백제 시대 모습을 재현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임

〈표 71〉 전략목표 2의 세부 전략 목표

전략목표 2	시민 중심의 보존·정비 방향 수립” 백제시대 모습 재현을 위한 연구 확대
---------------	---

(3) 전략 목표 3 : 국민의 백제문화 향유를 위한 교육 및 활용 프로그램 확대

- 전략 3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향유를 위한 대상별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설정함. 해당 목표는 학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를 확대하는 것임
- “백제문화유산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제시함. 4차 산업 혁명, 3D프린팅 등의 기술 개발을 문화유산에 접목하여 국민의 접근성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함임

〈표 72〉 전략목표 2의 세부 전략 목표

전략목표 3	문화유산 향유를 위한 대상별 참여 프로그램 확대 백제문화유산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
---------------	--

2

가치체계도

- 조직의 가치체계는 그 조직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추상적인 이념체계로서 조직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임. 전략관리와 문화관리, 성과관리를 통하여 좀 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가 됨
- 가치체계는 어떤 경우라도 흔들릴 수 없는 조직의 철학, 조직의 존재이유이자 조직의 궁극적인 목적을 반영하는 미션(mission)과 조직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 미션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성해야 할 중장기적 목표인 비전(vision) 등으로 구성됨
- 가치체계의 핵심은 구성원의 가치 공유임. Top-down과 Bottom-up 방식이 융합되어 가치체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구성원 전체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미래상을 계획함. 이렇게 조직구성원 전체가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역량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정렬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됨
- 이념적이며 추상적인 가치체계는 조직구성원의 공유와 공감을 전제로 구체적인 전략과 행동규범으로 연계됨. 목표와 구성원 개인의 목표를 일치시킴으로서 개인과 하위 조직의 역량이 한 방향으로 집중하게 됨
- 이러한 측면에서 백제왕도 3대 핵심유적 종합학술연구 마스터플랜의 가치체계 설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함. 첫째, 변화하는 문화유산 연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체계를 수립함. 가치체계에서의 미션과 비전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 수단으로서의 전략을 수립함. 둘째, 가치체계 재설정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의 다양한 가치와 목표를 통합하여 상위의 목표로 수립함. 이 과정 속에서 비전 달성 및 전략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함
- 가치체계는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역량 투입의 초점인 전략적 방향과 각각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구체적 목표인 전략목표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과제들로 구성됨

〈그림 42〉 백제왕도 3대 핵심유적 종합학술연구 마스터플랜 가치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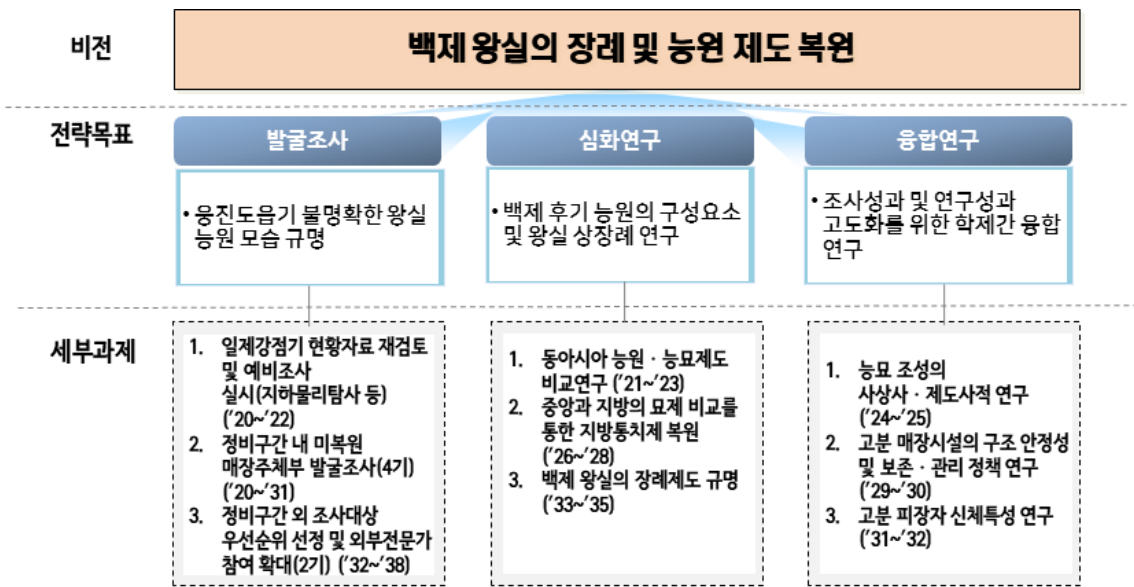
3 세부과제

1) 전략목표 1

(1) 송산리 고분군

-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가치체계도는 아래의 그림과 같음. 이에 대한 내용은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내용을 도출하였고 백제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작성함
- 비전 적절성 66.6%, 발굴조사 연구의 적절성 76.2%, 심화연구 적절성 66.7%, 융합 연구 적절성 61.9%로 응답됨

〈그림 43〉 공주 송산리고분군 가치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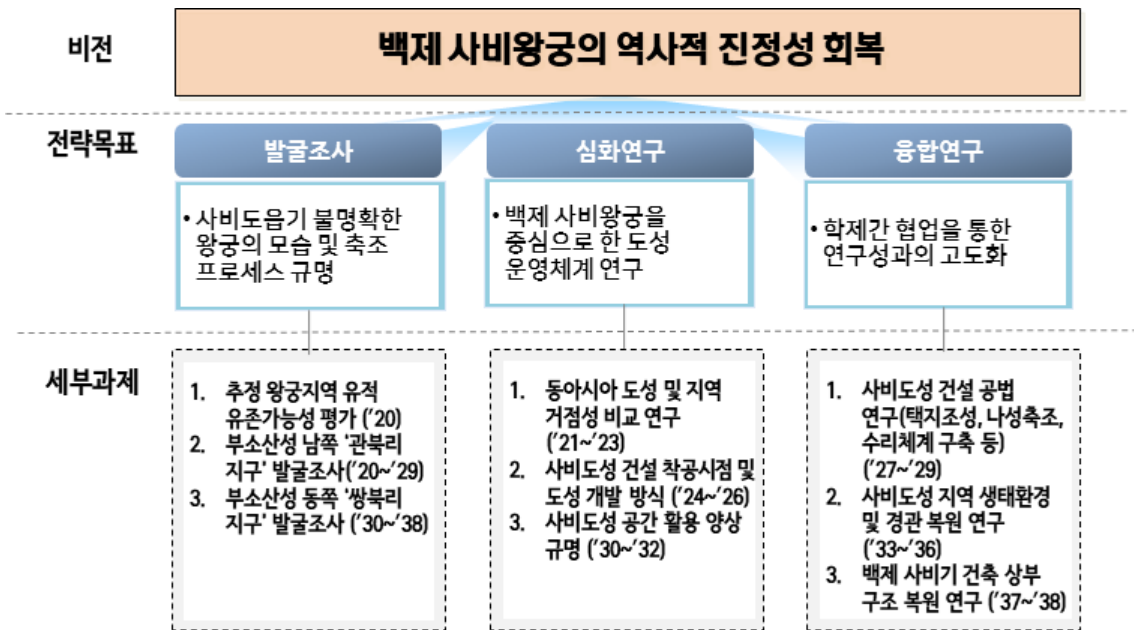
- 발굴조사 계획은 5단계로 제시하였고 전체 미션의 기간이 2038년까지인데 5단계 계획이 2039년으로 되어있다고 하여 그 기간을 조정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에 5단계 계획 기간을 2038년으로 수정함
- 고분조사는 긴급성·중요도 고려, 전문가 검토 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선별적으로 진행
 - 1단계(2020~2023년, 17,000㎡) : 송산리 고분군 복원·정비구간 조사
 - 2단계(2024~2027년, 150,000㎡) : 현재 복원·정비된 구간 주변으로 조사지역 확대

- 3단계(2028~2031년, 260,000㎡) : 정지산(정지산 유적) 일대 및 공주박물관 주변지역 조사
- 4단계(2032~2035년, 133,000㎡) : 교촌리(교촌리 고분군) 일대 조사
- 5단계(2036~2039년, 171,000㎡) : 웅진동 및 교동(웅진동 고분군 및 교동 유적) 일대 조사

(2) 관북리 유적 : 백제 사비왕궁의 역사적 진정성 회복

□ 해당 유적의 비전은 백제 사비왕궁의 역사적 진정성 회복으로 선정함. 이에 대하여 백제관련 전문가들은 57.2%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음. 발굴조사 전략목표는 76.2%, 심화연구는 66.7%, 융합연구는 61.9%로의 동의를 얻었음

<그림 44> 부여 관북리유적 가치체계도



□ 발굴조사 계획의 적절성은 47.6%로 조사되었음. 단계별 계획 기간이 짧다는 의견과 필요한 최소 구역에 대한 발굴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우선 1단계 발굴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다음 단계를 선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5단계 계획을 2039년에서 2038년으로 수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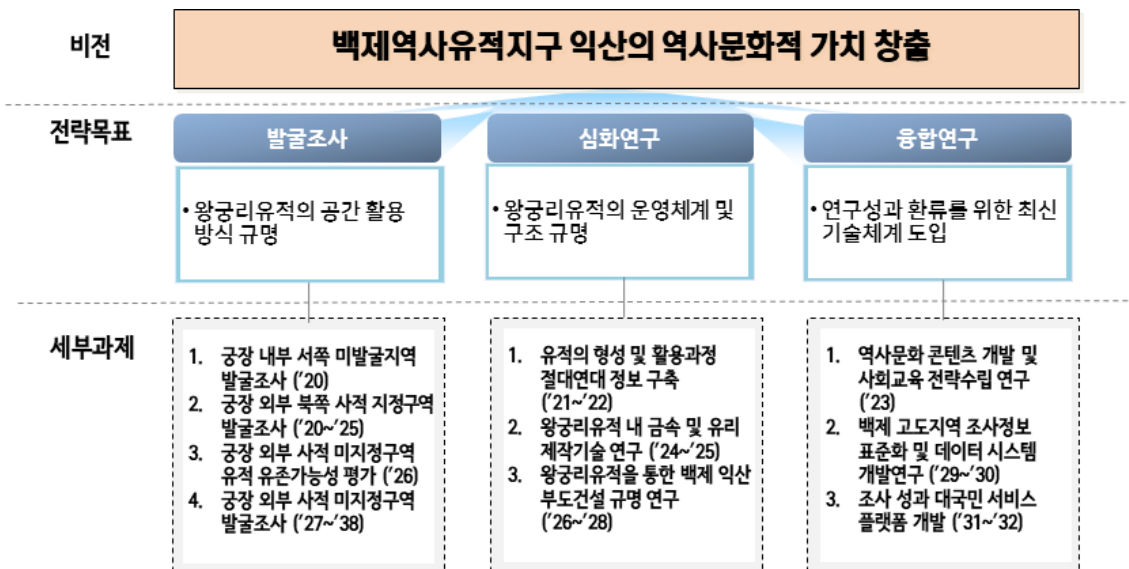
- 1단계(2020~2023년, 32,000㎡) : 현재 정비되어 있는 관북리유적의 남쪽 연접지역 조사
- 2단계(2024~2027년, 43,000㎡) : 부소산성 남쪽 중앙부의 부여여고 일대 조사
- 3단계(2028~2031년, 55,000㎡) : 쌍북리(쌍북리유적) 일대 조사

- 4단계(2032~2035년, 36,000m²) : 부소산성 동남쪽지역 조사
- 5단계(2036~2038년, 35,000m²) : 부소산성 동쪽지역 조사

(3) 왕궁리 유적 : 백제역사지구 익산의 역사문화적 가치 창출

□ 익산 왕궁리 유적의 비전, 전략 목표, 세부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은 비전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다는 의견이 66.7%, 발굴조사 연구 적절성이 71.4%, 심화연구의 적절성 67.2%, 융합연구 61.9%로 조사됨. 이에 따라 확정된 가치체계도는 아래의 표와 같음

〈그림 45〉 익산 왕궁리 유적 가치체계도



□ 단계별 발굴조사 계획의 적절성은 57.2%로 조사됨. 조사계획은 총 5단계로 진행됨

○ 5단계 계획을 2039년에서 2038년으로 수정함

- 1단계(2020~2023년, 165,000m²) : 유적 내 미조사구간 조사
- 2단계(2024~2027년, 91,000m²) : 유적 외부 북쪽 일대 조사(지형 개변이 적은 구간으로 유구 유존 가능성 높음)
- 3단계(2028~2031년, 174,000m²) : 유적 외부 동쪽 일대 조사(제석사지 관련 공간 활용방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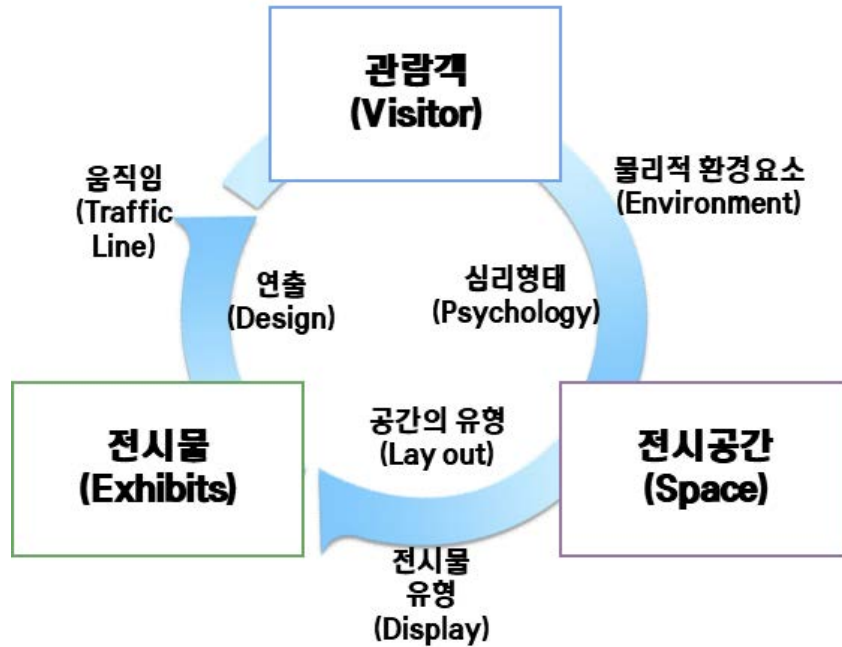
- 4단계(2032~2035년, 156,000m²) : 유적 외부 남쪽 일대 조사(공성 개발 및 활용 관련 공간 활용방식 조사)
- 5단계(2036~2039년, 420,000m²) : 유적 외부 서쪽 일대 조사(공성 개발 및 활용 관련 공간 활용방식 조사)

2) 전략목표 2

(1) 시민 중심의 보존·정비 방향 수립

- 시민 중심의 보존·정비에 관하여 전문가 설문 결과 전시디자이너제도 도입과 주민생활 기록화가 추천되었음. 두 가지 과제는 모두 시민참여형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으로 지역주민 공동체에 대한 지역 문화재 모니터링 및 초기 관리체계 확립에 부합함
- 전시디자이너
 - 전시란 전달의 목적을 효율적 방법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구체적 표현수 단임. 어떤 공간에서 이용자에게 해석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전시 공간은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임(2017. 정현지, 윤재은). 안 로렌스는 모든 전시공간은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라고 하였으며, 공간, 전시물, 관람객으로 기본 구성요소를 이룸. 일반적으로 전시 공간은 정보 전달을 위한 특정한 전달 매체를 사용하여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반 대중들에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장(場)의 역할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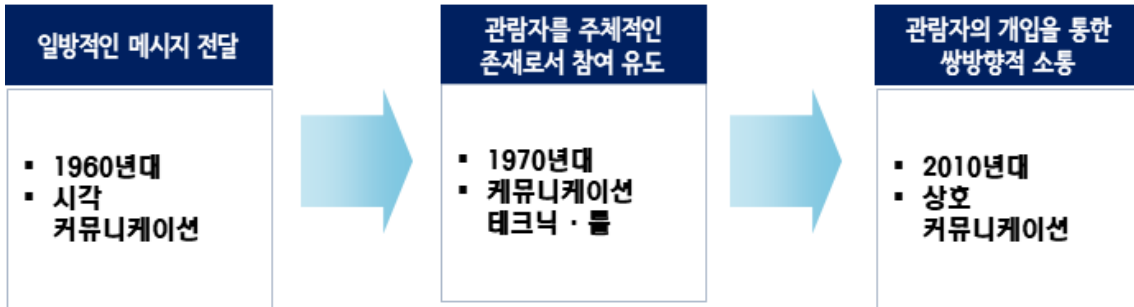
〈그림 46〉 전시공간의 커뮤니케이션



출처 : Jang, 2009, p10

- 전시공간은 사회·문화적, 경제적 요인의 흐름이 발전됨에 따라 그 형태와 기능이 끊임없이 변모함. 다양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작품의 진열, 분석이 중요한 ‘대상’에 관심을 주었던 전시는 전시 공간 안에서의 관람객과의 ‘소통’, ‘경험’을 강조하고 있음. 관람객과 공간 상호간의 효율적 전시 커뮤니케이션 공간은 이성적 사고에 근거하여 수동적으로 인지되는 공간이 아니라 감각과 지각을 통해 인간의 복합적인 체험과 감성적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공간을 의미함(Hong, 2010). 과거의 전시공간이 시·지각적으로 일방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면, 현재는 관람자를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관람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여 살아 움직이는 정보교환의 장(場)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

〈그림 47〉 전시공간 패러다임 변화



출처 : Jang, 2009, p17

-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수집·보관하고 기관은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임. 이 세 기관은 전시 및 출판, 견학 및 이용 교육, 강좌, 세미나를 진행하고 복합문화정보 제공, 지역민 등 문화적 이용자 대상 범위의 확대 및 세분화, 문화 영리사업 병행 등 경영지원, 문화적 이용편의 시설의 제공에 있음

〈표 73〉 기록관 · 도서관 · 박물관 기능 비교

업무비교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차이점	컬렉션	기록물	간행물	문화객체
	기본업무기능	-기록물의 장기 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에서 기록물을 수집·관리하는 기능	-도서 자료의 수집, 정리, 봉사에 이르는 전반 업무 기능	-문화유산의 연구·수집, 분류 및 정리, 등록, 전시 및 교육 등에 이르는 기능
	수집	이관, 구입, 기증	구입, 기증, 교환	구입, 기증
	평가선별	가치평가(보존기간 책정)	장서선정	가치평가(진위감정)
	정리기술/검색지원	기록분류체계 기록물 기술	도서분류체계 서지 기술	등록대장/야장(野帳)
	열람	대체로 폐가제, 관내열람	개가제 대출	수장공간과 전시공간 분리
	서비스	• 기록관련 영상물 상영 등 • 기록정보제공서비스	• 문화예술 관련 영상물 상영 등 • 참고정보서비스	• 역사관련 영상물 상영 등
유사점	서비스	• 전시 및 출판 • 견학 및 이용교육 • 강좌, 세미나		
		• 지식정보를 통한 교육 기능 증대 - 가치 있는 정보를 후세에 전달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정보를 다루는 통제 기능 증진 - 다양한 지식정보콘텐츠 개발 및 제공		

업무비교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문화정보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한정적 자원과 업무를 교차한 복합 정보 제공 • 지역민 등 문화적 이용자 대상 범위의 확대 및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세분화에 따른 다양한 이용 편의 제공과 지식정보 제공 - 지역의 문화 촉매제 역할과 지역민 대상의 다양한 문화 편의 서비스 제공 • 문화 영리사업 병행 등 경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품점, 카페테리아, 식당, 서점 운영 등 관내 문화적 영리 사업 제공 • 문화적 이용편의시설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휴게실, 수유실, 로비, 오픈라이브러리 등 이용편의시설과 관내 정보시설의 접목과 확장 		

출처 : 한희정(2014) 문화유산기관의 협업을 통한 교육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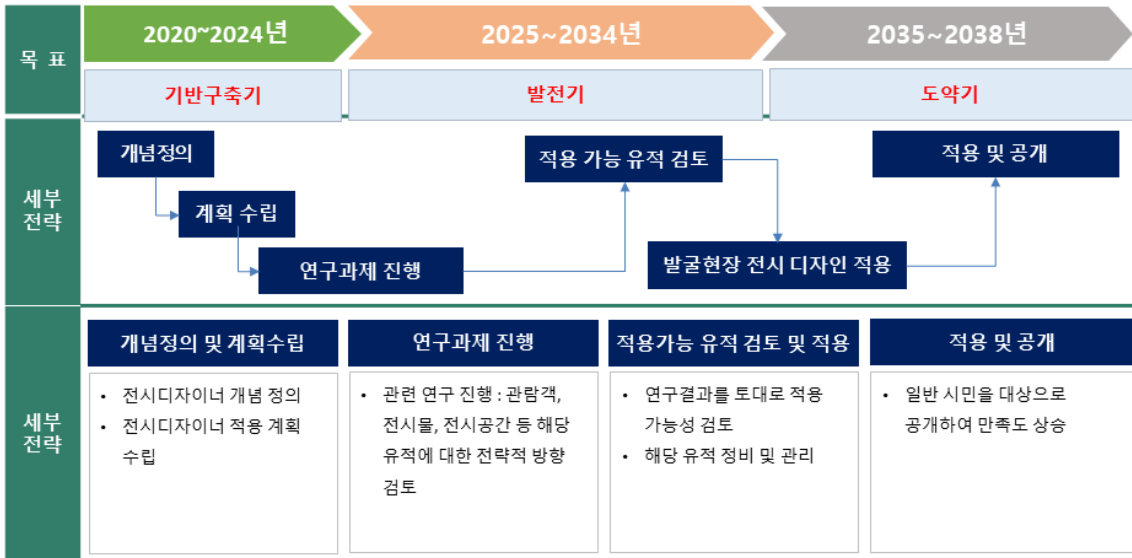
- 세 기관 모두 전시물을 모두 보여하고 있음. 또한 전시물을 대상으로 연출(Design)을 통해 관람객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 이에 비해 우리소의 경우 유적을 보유하고 있음. 유적의 발굴현장을 공개하고 소통하고 있지만 단순 공개일 뿐 관람객에게 어떻게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지 고민이 부족한 실정임

<그림 48> 발굴현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형태



- 전시디자이너 제도를 발굴현장에 대입하기 위하여 발굴조사와 병행하여 연구를 진행하여야 함. 우선 개념 및 계획 수립을 하고 연구과제를 통해 관람객, 전시물, 전시공간 등 해당 유적에 대한 전략적 방향 검토가 필요함
- 송산리 고분군, 관북리 유적, 왕궁리 유적에 대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발굴 현장에 전시 디자인을 적용 후 공개함

〈그림 49〉 전시디자이너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프로세스



□ 주민생활기록화

- 지역기록화는 2000년 이후 지자체에서 향토지 발간과 재개발지역 기록화 사업, 지역문화에 대한 디지털콘텐츠 구축 등 지역기록과 관련된 사업이 늘어나고 있음
- 특히 개발로 인해 사라지는 지역공간과 공동체 해체 등은 모습이 지워지기 전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나 기존 공간의 해체는 지역정체성 상실, 지역민의 자아상실과 같은 문제를 야기함. 하지만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역기록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하지만 지역기록화 사업을 추진할 기관이나 전문 인력 미비, 체계적 전략과 전문성 부재와 같은 현실적 문제가 대두됨
- 현재 지역기록화라는 전략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은 거의 없음. 다만, 지역문화를 기록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향토지를 발간하거나 기존에 발간된 향토지를 토대로 디지털콘텐츠를 만듦
- 재개발지역에 대한 기록화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록을 맡겨야 한다는 인식에서 재개발지역에 대한 조사보고서나 향토지 발간 사업이 추진됨. 판교개발을 앞두고 성남시 문화원에서 발간된 향토지는 판교마을지, 판교마을의 생활문화지도가

있음. 성남의 경우 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가 조직되면서 비로서 성남향토 문화총서가 발간됨

- 지역기록화의 과정과 방법은 기록화의 대상, 기록화의 범위·정도·기간, 기록화 과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기록화의 대상은 주제별, 권역별, 형태별, 주제별 구분이 필요함
- 문화재기록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이 지침은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문화재 기록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문화재기록화 사업 : 문화재 실측 기록, 옛도서, 옛문서, 금석문 등의 원문이미지, 무형문화재기록화, 영상기록, 탁본·영인기록 등 문화재 원형 기록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 현재 주민생활기록화 근거는 미흡하다고 판단함. 하지만 지역화기록 분류체계 연구에 따르면 문화유적(삶의 자취) 분류에 무형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부분이 있음. 따라서 우리소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향토사를 연구하는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음

〈표 74〉 지역기록화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자연·지리(삶의 터전)	자연지리
	인문지리
	동식물
역사(삶의 내력)	전통시대
	근현대
문화유적(삶의 자취)	무형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성씨·인물(삶의 주체)	성씨·세거지
	전통시대 인물
	근현대 인물
정치·경제·사회(삶의 틀)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복지
	과학기술

대분류	중분류
종교(삶의 내용1)	불교
	유교
	기독교
	신종교
문화·교육(삶의 내용2)	문화·예술
	체육
	교육
	언론·출판
생활·민속(삶의 방식)	생활
	민속
구비전승·어문학(삶의 이야기)	구비전승
	언어
	문학

출처 : 김덕목(2017) 지역기록화의 방향과 전략

- 주민생활기록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협력이 우선임. 관계기관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른 기관을 우선으로 함
 - 목적 :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설립 :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
 - 사업내용
 - ◆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 ◆ **지역문화 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 ◆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 ◆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 ◆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공주, 부여, 익산에 소재한 지방문화원은 총 3개로 조사됨. 향후 주민생활기록화 사업을 진행할 시 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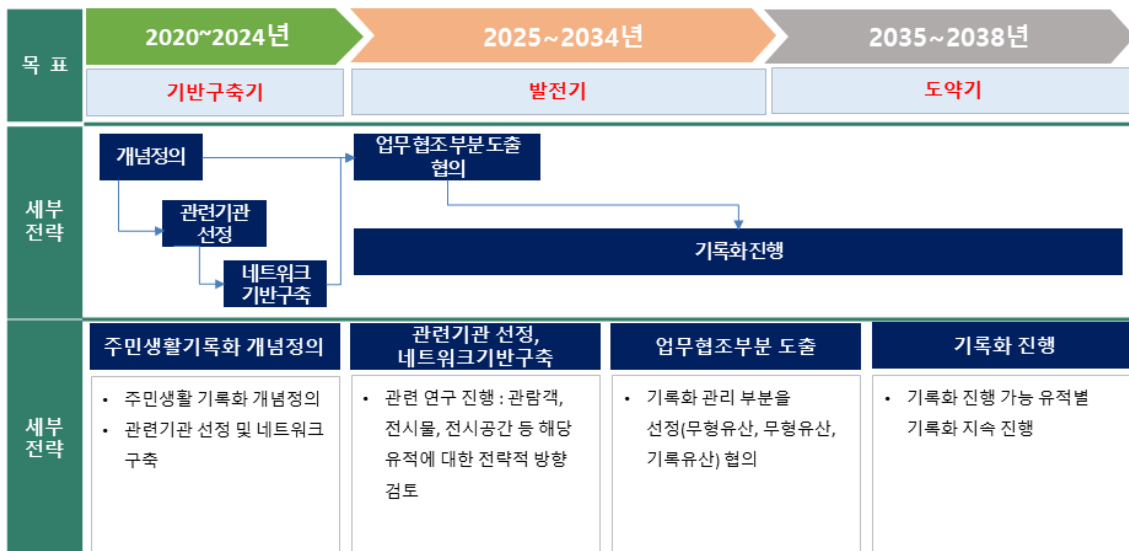
〈표 75〉 지방문화원 및 주요 운영 프로그램

번호	지역	문화원 명	주요 운영 프로그램
1	공주시	공주문화원	• 공주문화 발간, 향토민속발굴사업, 지방문화원 특성화사업, 지역문화학교 운영, 청소년 및 시민문화유적답사, 문화예술인 정기공연, 우리조상알기사업,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등
2	부여군	부여문화원	• 부여서동연꽃축제, 명사와 함께하는 백제역사문화탐방, 백제역사문화탐방시티투어, 부여청소년오케스트라 등
3	익산시	익산문화원	• 문화학교, 서동풍물경연대회, 역사바로알기 교육, 성포별신제, 무왕제례, 향토자료 발간, 어르신문화활동지원

출처 : 2018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주민생활기록화 사업은 관련기관의 협의를 통해 업무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명확한 업무 영역을 구분하고 협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 구축 마련 후 기록화를 진행하여야 함

〈그림 50〉 주민생활기록화 진행 프로세스



(2) 백제시대 모습 재현을 위한 연구 확대

- 전문가 설문결과 발굴조사 완료 후 정비 및 복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음. 반면에 발굴조사와 병행하여 정비 및 복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다소 동의를 받지 못하였음. 이는 정비·복원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으로 사료됨. 이에 백제 시대 모습을 재현을 위한 연구 확대가 필요함
 - 확인되지 않거나 충분한 고증과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복원·정비를 유보하고 현상 보존(Option Value 적용)
 - 유적의 가치를 제고하고 역사교육의 장 및 유적공원으로서의 휴식공간 제공
 - 유적지 주변의 환경 개선과 활용 가능 자원을 이용한 정비
 - 유적 중심의 주변 역사·관광 자원과 네트워크 구성
 -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및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 확보
- 연구 확대를 위해서 연구기관 공동연구 체계 구축, 조사연구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함
 - 연구기관 공동연구 체계는 문화유산 연구기관 간 조사협력 및 공동 연구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함. 과제 내용은 문화유산 연구기관 간 MOU, 협정서 체결 등임
 - 조사연구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조사연구 및 복원정비 지자체협회 외 구성 및 운영임.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자치단체와 조사연구 및 복원 정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백제역사문화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임

3) 전략목표 3

(1) 문화유산 향유를 위한 대상별 참여 프로그램 확대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 해당 과제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은 발굴체험 캠프, 국민 발굴단, 발굴현장 올레투어, 초등학교 방문교육, 청소년 도슨트를 제시함
 - 발굴체험 캠프 및 초등학교 방문교육은 해당 기관과의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필요함

<표 76>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개요

번호	프로그램 명	시기/예산	내용	비고
1	발굴체험 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2021년 • 예산 : 4회 1,2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방학을 이용 2박 3일 발굴체험 • 해당 지자체 주민과 고고학 전공 학생을 캠프 진행요원으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
2	국민 발굴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2021년 • 예산 : 4회 1,2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1회 운영, 기수는 20명 내외 • 발굴체험 전 교육 이수, 발굴 후 수료증 수여로 현장감 있는 체험 	
3	발굴현장 올레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2021년 • 예산 : 6회 2,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월 1회씩 진행하며 발굴이 마무리 되었거나 유적지로 개발된 곳을 선정해서 진행/ 1회 진행 시 20명 내외 • 해당 장소를 걸으며 돌아볼 수 있는 돌레길 형식의 코스 개발 • 연구소 직원이나 전문 해설사가 함께 걸으며 역사 공부 병행 • 가족 단위로 함께 걸으며 배울 수 있도록 해설과 걷기 난이도 조정 	
4	초등학교 방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2021년 • 예산 : 연 4회, 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1회씩 진행하며 어린이의 시각에서 발굴이라는 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 •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발굴 도구들의 용도 및 사용방법 설명 • 출토된 유물의 사용법 등을 재미있게 설명해줘 흥미 유도 • 과거 전설이나 설화를 이용해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제고 	교육청
5	청소년 도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2021년 • 예산 : 1,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이 자신의 눈으로 바라본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직접 해설하는 청소년 도슨트 운영 • 도슨트가 청소년 서포터즈가 돼 활동 후기 등 자산의 SNS에 게재 • 학교에 가지 않는 방학이나 주말을 활용하며 봉사활동으로 인정 	

□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은 부여소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기초로 수립함

<표 77>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개요

번호	프로그램 명	시기/예산	내용	비고
1	체험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2022년(반기 1회) • 예산: 1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대상 당일이 아닌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체험프로그램 운영 • 기본 이론 교육, 발굴 현장 탐방, 보존 및 처리 과정 체험 등 문화재 관련 모든 체험을 매주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진행 • 반기 당 1회 씩 4회 코스(매주 1회) 코스로 진행 • 연령 별 세분화한 프로그램을 별도 준비 	
2	주민퀴즈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2022년 • 예산: 2,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서동연꽃축제 등 부여군의 축제 활용 • 문화재연구소 주최하는 시민 대상 문화재 퀴즈 프로그램 진행 • 온라인에서 참가자 모집해 추첨 심사 후 100명 본선 선발 • 행사 당일 100명 골든벨 형식으로 퀴즈 최종 우승자 시상 	
3	백제역사문화 지킴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2022년 • 예산: 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별 맞춤형 교육 수료 후 문화 지킴이 봉사활동 실시 	
4	지역상권 함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2022년 • 예산: 1,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 아울렛 및 부소산성 등의 관광지와의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역사문화재 홍보활동 강화 • 부여 아울렛의 유명세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 실시 특히 주말에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역사프로그램 마련 	

□ 일반대중 대상 프로그램

○ 일반국민에게 백제관련 문화재를 알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도출함

〈표 78〉 일반대중 대상 프로그램 개요

번호	프로그램 명	시기/예산	내용	비고
1	부여연구소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2022년 • 예산: 1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문화재 추천코스에 부여연구소투어 프로그램 운영 	백제문화재 추진위원회
2	스토리개발&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2022년 • 예산: 5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시대 문화재를 정리하고 그에 따른 스토리 개발 • 일반 국민 대상 문화재 소재 창작 스토리 공모 • 수집된 이야기를 영화, 드라마, 연극, 소설 등 다양한 채널에 제공해 활용 기회 마련 	
3	사진 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2022년 • 예산: 3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관련 문화재 선정(ex. 금동대향로, 고분 등) • 해당 소재를 활용 제시한 주제를 표현하는 사진 공모전(ex. 문화재에서 만나는 미래) • 온라인으로 작품을 접수해 1차 선정작을 전문가와 온·오프라인 사진전을 통해 우수작 선정 	
4	극본 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2022년 • 예산: 5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파, 종편 등 방송사에서 드라마 극본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음 • 제작사 및 방송사와 연계해 문화재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 극본 공모(백제사 관련) • 당선작은 해당 제작사, 방송사 드라마로 제작 • 추후 드라마 시나리오 저작권을 구매해 활용 	
5	드론 촬영 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2023년 • 예산: 1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드론 동호회와 함께 하늘에서 바라본 문화재 & 발굴현장 드론촬영대회 개최 • 대회 참가자들은 드론으로 송산리고분군, 관북리, 왕궁리 발굴조사 현장 상공 촬영 • 촬영 된 사진 및 영상을 접수 후 심사 • 입상한 사진을 활용해 드론 사진전 개최 	

(2) 백제문화유산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

□ 디지털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 디지털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의 세부과제는 백제역사문화유산 디지털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운영임
- 백제역사문화유산 조사·연구 자료에 대한 디지털 기록화를 통해 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 운영이 목적임
- 과제 내용은 백제역사문화유산(3대 핵심유적)에 대한 디지털 기록화를 진행함. 이는 유적 발굴조사에 대한 디지털 기록화하고, 기존 조사·연구 자료 및 성과에 대한 디지털 기록화함. 그리고 디지털 정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함

□ 백제문화유산 증강현실 구현 및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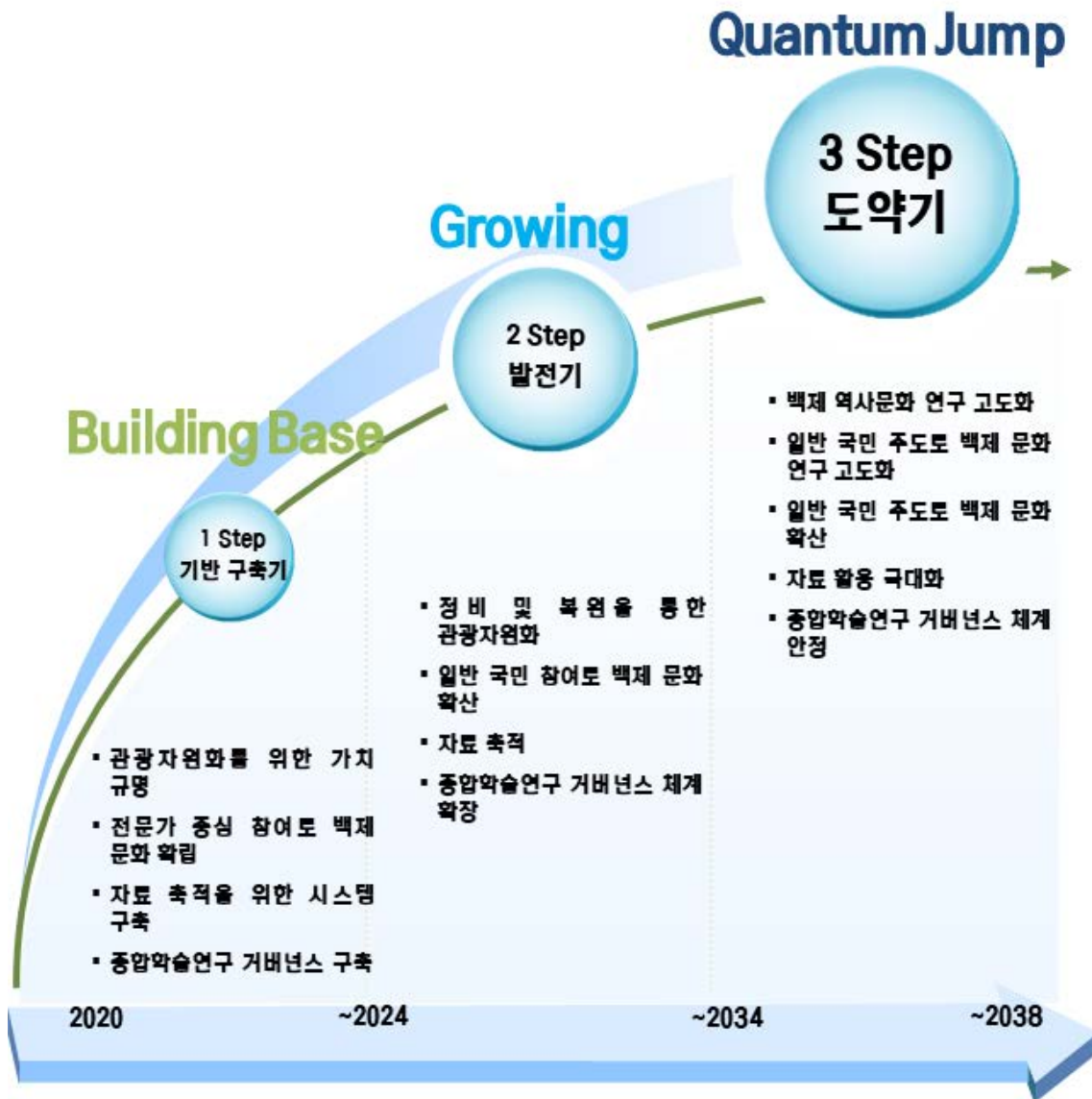
- 백제문화유산 증강현실 구현 및 제공의 세부 이행과제는 증강현실기술 기반 문화유산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임
- 첫째, 증강현실기술 기반 백제문화유산 프로그램 개발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증강현실 기술(AR, VR 등)를 활용하여 백제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목적임
- 과제 내용은 첫째, 관람객 및 일반 시민이 백제역사문화유산에 대해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임. 백제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콘텐츠와 증강현실 기술을 융합하여 가상 체험 프로그램 개발함
- 둘째, 증강현실기술 기반 백제문화유산 프로그램 운영임. 개발된 백제문화유산 체험 증강현실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다양한 관람 서비스 제공이 목적임
-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백제역사문화유산 콘텐츠 개발을 통해 증강현실 기술과 융합함. 개발된 증강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백제문화유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함

4

단계별 추진 전략

- 백제왕도 3대 핵심유적 종합학술연구 마스터플랜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략을 수립함. **전략은 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존해야 되는 수단들의 결합으로 장기적·통합적·집중적·실제적인 의사결정임**
- 마스터플랜의 전략은 부문별(품고, 잇고, 열고), 단계별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음. 단계별 전략은 비전 달성을 위한 체계적 접근 방법임. 단계별 전략은 1단계 기반 구축 → 2단계 발전기 → 3단계 도약기로 방향을 수립함
- 중장기적으로 수행하는 조사·연구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단계별 전략 목표를 수립하였음. 기반 구축은 5년(2020년 ~ 2024년), 발전기는 10년(2025년 ~ 2033년), 도약기는 4년(2035년 ~ 2038년)으로 총 19년에 걸쳐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수립함
- 1단계는 기반 구축기(2020년 ~ 2024년)로 관광자원화를 위한 가치 규명, 전문가 중심 참여로 백제 문화 확립, 자료 축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종합학술연구 거버넌스 체계 구축임
- 2단계는 발전기(2025년 ~ 2034년)로 정비 및 복원을 통한 관광자원화, 일반 국민 참여로 백제 문화 확산, 자료 축적, 종합학술연구 거버넌스 체계 확장하는 시기임
- 3단계는 도약기(2035년 ~ 2038년)로 백제 역사문화 연구 고도화, 일반 국민 주도로 백제 문화 연구 고도화, 일반 국민 주도로 백제 문화 확산, 자료 활용 극대화, 종합 학술연구 거버넌스 체계안정임

〈그림 51〉 마스터플랜 단계별 전략 목표



제4절 조직체계 구축



1 조사연구 기능분류

- 백제왕도 3대 핵심유적 종합학술연구의 조사·연구의 기능 분류는 대·중·소로 구분하여 분류함. 대기능은 기획·운영·홍보 기능, 발굴조사 기능, 연구 기능, 보존·정비 기능으로 구분함
- 기획·운영·홍보 기능은 백제왕도 3대 핵심유적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본래 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기능임. 연구기획 기능은 예산·인사·복무·성과 관리·대외협력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음. 행정지원 기능은 비용·자산관리, 시설관리, 급여 관리 등임. 홍보기능은 홍보전략 수립, 행사 및 학술대회 운영, 언론 및 일반인 홍보·운영임. 전시·교육 기능은 유물에 대한 전시관 운영,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임
- 발굴조사는 유구조사 및 유물을 수습하여 기록하고 유물을 보관하는 현장조사, 현장 시설 및 인력을 관리하는 현장관리, 디지털 자료관리, 홍보 및 교육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연구기능은 발굴조사 이전과 이후 관련된 연구를 수행함. 백제왕도 3대 핵심유적 관련 문헌 연구를 통한 역사·문화·생활상 연구, 출토된 유물의 기록화, 발굴조사 결과로 나타난 유물에 대한 연구, 건축물·고환경 등의 연구, 복원을 위한 지형학·도시공학 연구,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과학적 연구 등을 수행함
- 발굴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보존정비임. 유물에 대한 목록 작성, 보존처리, 유물 실측·전자도면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유물관리 기능, 출토된 유물의 분석과 보존처리를 수행하는 보존과학, 발굴조사 결과에 대한 유적 정비·보존 기법·정책·사례를 연구하는 정비·보존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52〉 백제왕도 3대 핵심유적 조사연구 세부 기능 분류

기획 · 운영	발굴조사	연구	보존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획 P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조정 - 인사, 복무, 예산 및 결산 - 성과관리 - 대외협력 • 행정지원 P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 및 자산관리, 물품구매 - 시설 및 안전관리 - 급여 관리 • 홍보 P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전략 수립 - 행사 기획, 준비, 진행 - 학술대회 운영 - 언론 홍보 및 SNS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조사 Part(유적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구조사 및 유물 수습 - 유물 및 출토과정 기록 - 유구 정리 및 유물 보관 - 보고서 작성 • 현장 관리 Part(유적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시설 및 안전 관리 - 인력 관리 - 물품 및 비품 관리 • 디지털 자료 관리 Part • 홍보 및 교육 지원 P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화 P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기록화 관련 연구 - 디지털 기록화 사업 수행 - 시스템관리 및 서비스 운영 • 유물 P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토 유물 분석 - 유물 제작기법 및 공예기술 연구 • 고환경 분석 P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목재,인골유물분석 - 고대 생태 환경 연구 - 생태 환경 복원 연구 • 지형학·도시공학 P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별 공간 특성 및 확장 연구 - 공간(지역) 복원 연구 • 사회과학 P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야 현장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연구 - 문화유산 가치 확산 프로그램 연구 - 백제문화권 연구 성과의 관광 자원 연계 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물관리 P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물 목록 작성 - 유물 보존처리 - 유물 사진 - 유물 실측 - 전자도면, 보고서 작성 • 보존과학 P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물 분석 - 유물 처리 전 조사 - 유물 보존 처리 - 기록 및 보고서 작성 - 유물 수습 및 보존처리 • 정비·보존 P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유적 정비·보존 사례 연구 - 유적 정비·보존 기준 및 정책연구 - 유적 정비·보존 기법·기술 연구

2 조사연구 조직체계 구축

1) 조직구조 설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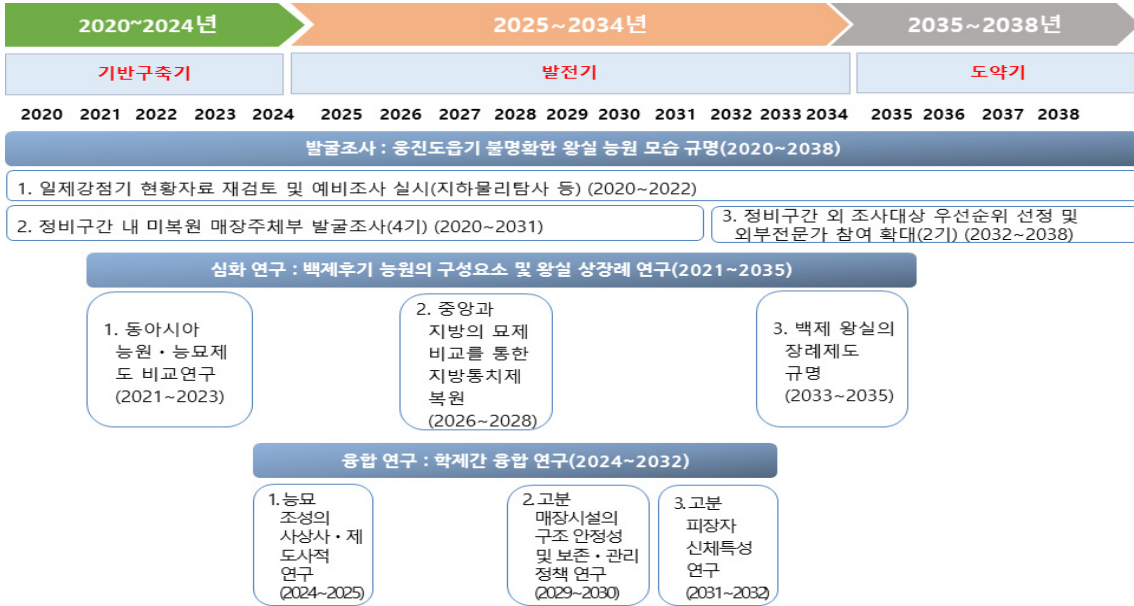
- 조직설계는 기본적으로 조직의 임무를 기능별로 구성하여 조직편제를 설계하는 방법, 조직의 임무 대상(사업, 고객, 지역 등)별로 사업별로 구성하는 방법, 임무와 대상을 혼합하여 편제하는 혼합형 등 세 가지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능형은 해당 조직의 기능을 유사하고 관련성이 높은 업무를 결합하여 개별 조직 단위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임. 사업형은 조직의 서비스, 지역 등을 기준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방법. 각 부문별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형태임. 혼합형은 사업과 기능별로 혼합하여 조직을 구성하는 방법임.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조직 설계 방법임.
- 조직구조 설계는 각 유형별 장·단점이 있음. 첫째, 기능형은 유사한 업무를 결합함으

로써 전문화의 이점을 확대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체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기능의 질과 효율성, 전문화가 중시될 때 가장 적합하다. 반면, 부서 간 업무 조정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관리자의 의사결정이 많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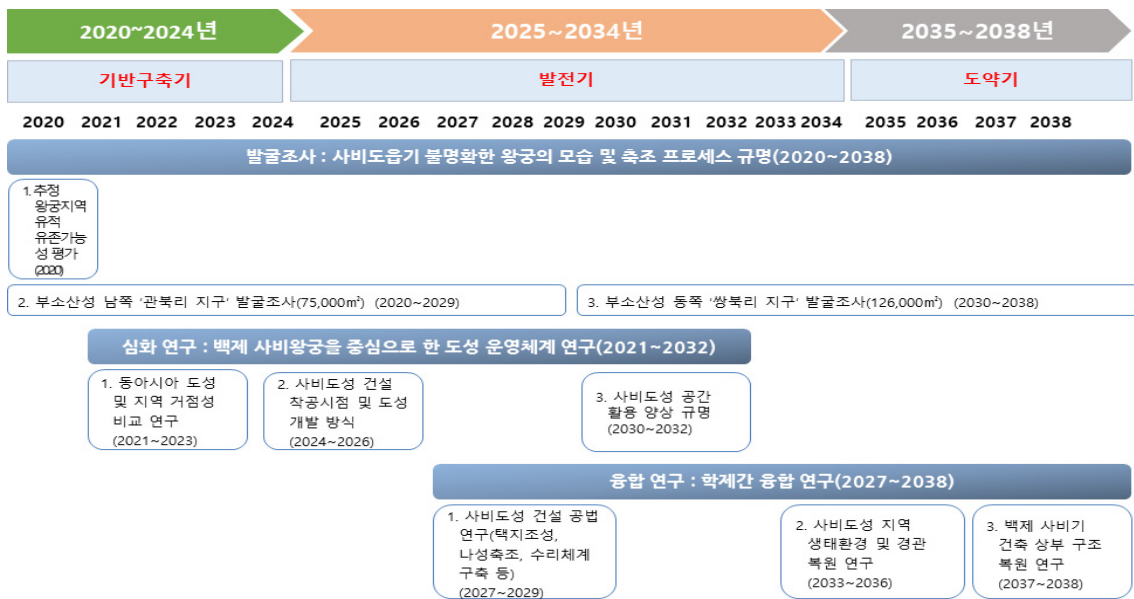
- 둘째, 사업형은 부문 내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며, 해당 부문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단점으로는 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음
- 셋째, 혼합형은 기능형과 사업형의 혼합 행태로 조직의 용이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조직이 목표와 부서 목표의 조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단점은 부서 간 역할과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음
- 백제왕도 3대 핵심유적의 조사·연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수행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장기간 수행하는 조사·연구 사업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조직·인력·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함.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기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조직(안)을 수립하여 대응하여야 함.
- 역사 유적은 한번 파괴되면 회복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음. 따라서 유적의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역사적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연구하여 백제왕도 3대 핵심유적을 현실에 복원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운명을 통해 이루어내야 함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정부기관의 특성상 조직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한 번에 충원되지 않음. 따라서 조직체계의 기반조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이에 중기(안)으로 유적연구실의 증원을 제안함. 발굴조사의 확대와 이와 연계된 학문분야의 다학제적 연구를 확대하는 단계로. 백제문화권과 관련된 문헌연구, 고환경·고건축 등 다학제적 연계를 통해 독립적인 연구조직을 마련하여 연구수행 확대를 추진함
- 장기(안)은 백제문화권 조사·연구 결과물에 대한 대국민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유적의 활용을 위한 정비복원 연구 및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조직을 설계하는 것임

제5절 전략목표에 따른 계획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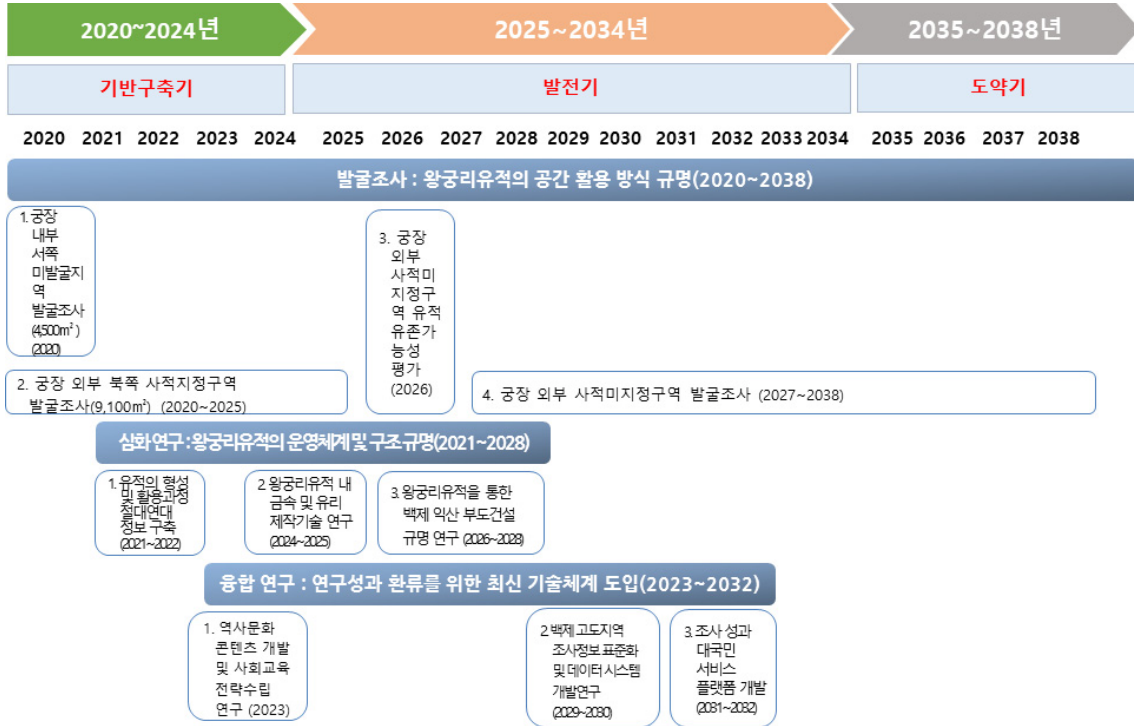
1) 공주 송산리 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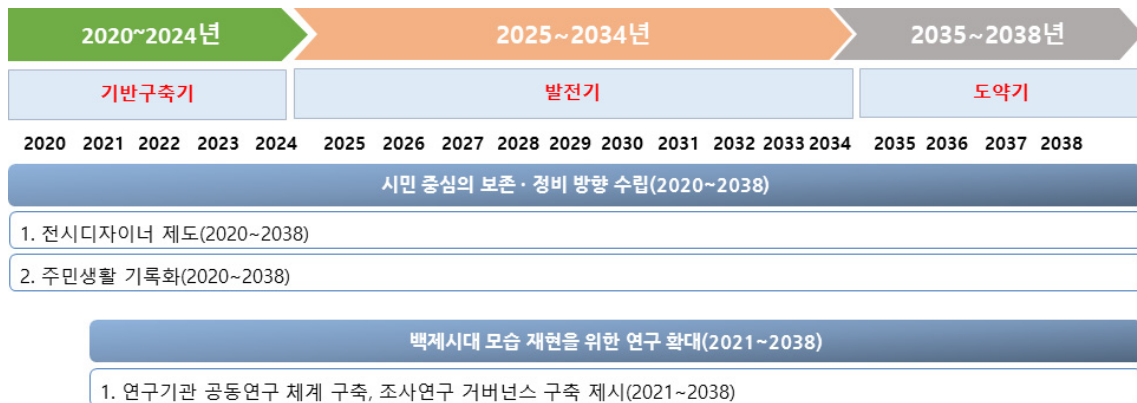
2) 부여 관북리 유적



3) 익산 왕궁리 유적



4) 보존 및 정비



5) 교육 및 활용



인쇄일 : 2019. 11. 25

발행일 : 2019. 11. 25

발행처 : (주)나루컨설팅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34길 14, Es타워 402호

T. 02-514-6600 F : 02-514-4242

ISBN 978-89-299-1653-4 93910